



2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2호

(루계 제760호)

차례

고향집에 울리는 노래	4
보천보의 붉은기는 오늘도 휘날리네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2월의 아침에 부르는 노래	5
주체문학의 대강	6
붉은기는 영원한 내 삶의 품	6
사과꽃	7
아 계절아	17
수령형상소설문학과 심오한 철학세계	18
탄생일의 상에 오른 합숙밥	21
초소소식 고향소식	21
흰눈세계	22
수월함, 순조로움	33
습관에 대한 생각	34

멀고먼 고장	35
강선의 불.....	36
꽃색갈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고	40
조선로동당원의 숭고한 신념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 화폭	41
래일을 본다	45
나의 당비	46
해병시절 그 아침처럼	48
읽히우게 쓴다는 의미를 두고.....	49
창의록	51
눈덮인 산정	52
《조선문학》축전상 시상결과.....	64
작가의 형상수법과 작품의 감화력	65
수정천	67
고전소설 《황생의 망상》에 대하여	74
마지막시험지를 바친다 (외1편).....	76
진달래	76
월터 스코트와 장편소설 《아이번호우》	77
나의 발자국	78
조선로동당창건 65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79
유엔이 새로 정한 문맹자기준.....	80

고향집에 울리는 노래

김남호

세월의 온갖 풍상을 이기며
청청 푸른 백두의 하늘에도
그 하늘을 떠받든 정일봉의 숭엄한 웅자에도
세기의 격정을 모아 인민이 드린
칭송의 노래가 가득차 울리고있다

서리꽃 하얀 이깔숲에도
물안개 피어나는 소백수가에도
대를 이어 수령복을 안겨준 2월의 영광
가슴가슴 사무쳐 인민이 부르는
크나큰 행복의 노래가 울리고있다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으신 우리의 장군
유년의 봄꿈이 첫걸음마에 실리던 프락
송진내 싱그러운 소박한 귀틀집의
문에 달린 노루발쪽손잡이 잡아보며
누군들 가슴뜨겁지 않았으랴

고드름 드리운 처마아래
항일전의 총성에 문풍지 울던 들창가에서
선군의 장엄한 시대를 이어
번영의 무궁한 미래를 밝혀주는
은혜로운 봄빛을 안을 때

아 인민은 터쳤어라
고향집에 노래의 바다를
누리며 사는 수령복에 더운 피 끓이며
천고의 밀림에 노래의 격랑을 일구고

백두의 만리창공에 노래의 푸른 하늘 펼쳤거니

걸음걸음 노래로 열리는 백두의 고향길에
정녕 인민이 세기를 이어 부르고부르는
김정일장군찬가!
천년인들 만년인들 다함있으랴

혈전의 눈보라속에 탄생하시여
꽃피는 자주의 봄시대를 우리에게 주신분
백전백승의 선군조국을 우리에게 주신분
김일성조선의 억만년 미래까지 다 밝혀
혁명승리의 영원한 진리를 안겨준
21세기의 태양이 여기에 솟아

바다같은 그리움의 노래 안고 찾아온 마음들이
열화같은 축원의 노래 안고 나서는
혁명의 고향집
세월이 흐를수록 뜨거워지는 심장의 선물이
누리를 진감하며 끝없이태어나는
백두밀영고향집이여

울창한 밀림속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인민을 위해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
만복을 안겨준 그 사랑 하늘같아
쌓으신 업적 그리도 위대하여
인민이 드리는 고마움의 노래는 강산에 넘치고
백두의 성스러움은 세계를 깨우치도다

가사

보천보의 붉은기는 오늘도 휘날리네

김중삼

보천보에 타오르던 승리의 화불인가
패궁정마루에 붉은기 휘날리네
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찬란하다 영원한 승리의 기폭이여

조선은 살아있다 우리 동포 깨우치던
청년장군 수령님의 그 음성 울려오네
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휘날려라 영원한 신념의 기폭이여

장군님 이끄시는 백두의 행군길에
강성대국 붉은 노을 펼치며 타오르네
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나래치라 영원한 선군의 기폭이여

아 보천보의 붉은기는 오늘도 휘날리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령수로 내세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일**동무가 지니고있는 필승의 신념과 철의 의지, 혁명적락관주의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 더욱 풍부하게 터득하고 굳건히 련마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2월의 아침에 부르는 노래

심복실

2월 16일!

손꼽아 기다려온 이 아침
축원의 꽃바구니 엮으며
깊어지는 마음속 생각
인민을 위해 바치는것만을 아시는
우리의 장군님
이 아침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떠나시지 않으셨는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인민의 만년행복을 위해
그이의 건강을 삼가 바라며
인민은 축원의 꽃바구니를 엮는데
탄생일 하루조차 쉬지 않으시고
굽이굽이 전선길 천리 먼 북방길
인민위한 헌신의 장정에 오르시는 장군님

고난의 령을 넘어
오늘의 행복이 클수록 목이 메여와라
이 행복을 위하여
그이 헤쳐오신 눈바람이 너무도 찼고
그이 넘어오신 강행군의 험한 령이
너무도 높았기에

맞으며 헤쳐가신 그 눈비는

주체철쇠물폭포 비날론폭포로 쏟아지고
오르고 또 오르신 그 험한 령길들은
비료산으로 높이 솟아
인민의 마음을 눈물로 적시나니

한송이 또 한송이 꽃을 엮으며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생각
뜻깊은 탄생일 이 하루만이라도
인민의 축원속에
우리 장군님 편히 쉬시였으면

바라노라
가장 뜨거운 마음을담아
가장 열렬한 축원을 담아
인민이 피워올린 꽃바구니들
그 향기속에 천년만년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옵기를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마음이
장군님께로만 달리는 2월의 이 아침
그 어디에 계실가 우리 아버지
오로지 안녕만을 바라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아
삼가 축원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립장으로 대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문예관은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사색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을 혁명사업으로 여기는 작가, 예술인이라야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붉은기는 영원한 내 삶의 품

박근원

붉은기
붉은기는 어이하여
내 한생의 마음에 받들려
그리도 높이 날리는것이나

내 한생토록
부르고 또 부르는 붉은기노래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싶은
끝나지 않을 나의 노래...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붉은기
머리들어 바라보느라니
저 멀리 생의 첫기슭
정다운 추억이 조용히 이 가슴에 와닿아라

내 어릴적 유치원시절
빨간 크레용으로 기발을 그리던
그 시절엔 미처 몰랐더라
우리의 붉은기 어떤 기발인지

붉은넥타이 가슴에 날리며
《적기가》노래를 배우던
그 시절에도 다는 몰랐더라
우리의 붉은기 왜서 그리도 붉은것인지

우리 수령님 높이 드시고
백두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붉은기
항일의 선렬들이
붉은 선혈로 물들인 붉은기

우리 장군님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
그 험한 전선길 헤치시며
더 곳곳이 더 높이 추켜드신 붉은기

그래서였구나

총대와 운명을 같이해온 붉은기
그앞에 서면
아버이수령님의 모습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그리도 우렷이 어려오는것은

그 붉은기 있어 내 삶이 있고
내 그 붉은기와 함께 있어
신념의 강자되고
인생의 절정에 높이도 뚫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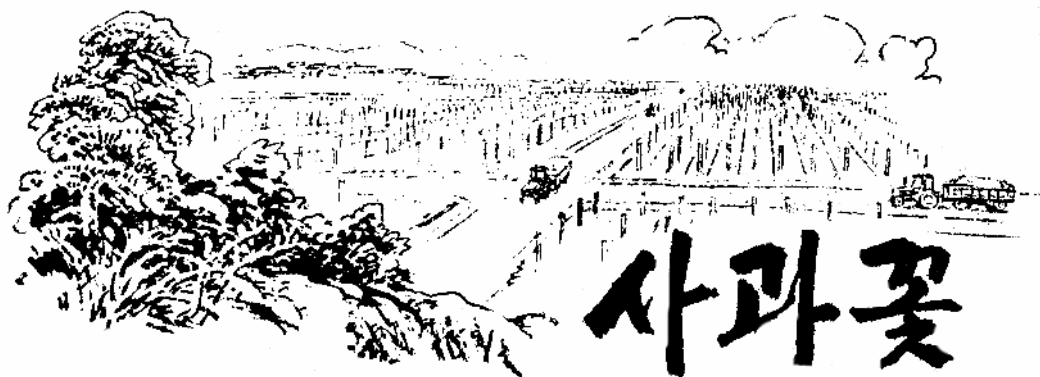
아 진정
그 붉은기아래에
내 삶의 대지가 있고
내 삶의 하늘이 있어라

붉은기의 그 빛발
내 심장에 이어져있어
그 어떤 잡물도 흐리울수 없으라
이 가슴에 끓는 붉은 피를

그 붉은기의 필력임
내 숨결에 이어져있어
이 심장의 박동 한생토록 변함없고
내 걷는 길 붉은기따라 곧바르거니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휘날리는
우리의 붉은기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천년만년 세월의 끝까지 폭풍쳐 날리리니

아 그 붉은기자락에 생을 얹고
그 품에 안겨있는 나의 삶이여
한생의 끝까지 그 품에
영원할 나의 삶이여



1

승용차는 간밤에 보슬비가 내리어 아직 물기가 흐르는 포장도로를 달리고있었다. 중천에 떠있는 해는 구름에 싸여 주위가 약간 칙칙해보였다. 차창너머로는 야산의 과일나무들이 보이였다. 지금은 잎이 떨어져 앙상하게 가지들만 드러난 그 과일나무들은 이미 로화기를 맞아 꽃도 일매지게 피어나지 못하고 열매도 자꾸 썩어 들어 몇해전 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일대를 지나가실 때마다 마음씨오신것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 야산의 높고있는 빈땅들을 모두 개간하여 과수원을 대담하게 넓히고 키 낮은 새 품종 사과나무들을 심으면 이 일대의 풍치가 달라지리라라는 생각을 하시였다.

《백두산에 있는 618건설돌격대가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모두 수행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시다.》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가는 석영빈이 조용히 말 씀을리였다. 온 한해 현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 오신 김정일동지를 보좌해온 일군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가에서 물려나시여 등반 이에 몸을 편히 실으시였다.

《그러니 지금 새 일감을 기다리겠구만.》

《그렇습시다.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새로운 대상으로 이동해갈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에서 만나보신 618건설돌격대의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백두산바람에 탄 구리빛얼굴들을 그려보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삼지연지구의 전기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한 대규모발전소를 일떠세운데 이어 힘준한

최성진

벼랑들을 극복하고 천연수림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수백리구간의 도로건설도 말아 짧은 기간에 해제킨 그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도로를 돌아보시면서 주변 정리며 미흡한 부분들을 퇴치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는데 그사이에 다끝냈다면 기쁜 일이였다.

《백두산물을 먹은 돌격대가 달라. 어떤 일을 맡겨 주어도 본때있게 해제끼거던.》

김정일동지의 정력에 넘치신 음성이 차안을 울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삼복철의 찌는듯 한 띄약별과 장마비를 다맞으시며 동서해안과 북부내륙지대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신데 이어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일대의 발전소건설장들,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고 여기 원흥지구에 새로 일떠선 과수종합농장을 찾아오시는 길이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기분이 대단히 좋으시였다.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과학화, 현대화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비약하고있는것이였다.

그이께서 구상하시였고 이미 현지도를 하시면서 주신 과업들이 하나하나 관철되어 현실로 되고있었다. 순전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또다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쏘올리고 제2차 지하핵시험에서 성공한데 이어 선군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사변들이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CNC 기술은 이미 최첨단의 경지에 올라섰고 성장에서는 주체철생산공정이 완성되어 쇠물목포가 쏟아져내리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창설하신 비날론공업이 새롭게 현대화되어 질 좋은 비날론솜은 물론이고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갖가지 화학제품들이 나와 세상에 소문을 낼 날도 멀지 않았다. 남흥가스화대상공사도

끝나 전반적인 시운전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홍남 가스화대상공사만 끝나면 우리 나라는 비료가 남아돌아가게 될것이다. 농촌의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진행된데 이어 비료문제도 우리 식으로 원만히 해결을 보게 되었으니 농업생산도 올라갈것이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풀리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있으니 우리 인민이 소리치며 잘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원흥지구에 새로운 파수종합농장이 생겨난것이었다. 이미전부터 그이께서 구상해오신 현대적인 파수종합농장을 내무군군인들이 한해사이에 건설하여 첫 사과를 따들이었다. 승용차는 길지 않은 다리를 지나왔다. 길은 곧추 뻗어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원흥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초조감을 느끼시였다. 마음은 벌써 거기 원흥에서 기다리고있을 종합농장건설자들에게 가닿으시였다. 그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이 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이제 가면 가깝고 친근한 오랜 지기라도 만날것 같은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김정일동지의 눈앞에는 인민보안기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윤승권의 거머짓밧한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건설을 내무군에 맡겨주시면서 김정일동지께서 한번 만나시였던 일군이였다. 올해초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농장건설진척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해 그를 전화로 찾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종합농장건설을 위해 수십만그루의 귀중한 사과나무모를 보내주시였다는것을 알고 온 나라 도처에서 유기질비료를 자동차마다에 가득 실어 보내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마음쓰시고 온 나라가 지원의 손길을 뻗쳐주니 우리 원흥에... 우리 원흥에 세상이 부러워할 과일바다가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화기에서 울려나오던 장령의 그 떨리던 목소리!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원흥에... 우리 원흥에》하던 윤승권의 목소리에서 원흥땅에 대한 애착 비슷한 류다른 그 무엇을 느끼시였다.

산촌에 푸른빛이 짙어가던 여름이었다. 멀고먼 지방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에 잠시 들어오시여 인민생활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협의회를 지도하고계시였다. 휴식시간에 석영빈이 들어와 대동강파수종합농장에서 사과꽃을 보내왔다고 말씀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뎌 반가우시였다.

《사과꽃이란 말이요? 그 사람들이 수정물을 높

이기 위해 파원에 벌통들을 놓았다고 하더니 첫 꿀을 딴 모양이구만!》

《그렇습니다. 종합농장건설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요즘 거기서는 꿀풍년이 들었습니다.》

《원흥벌에 사과꽃이 피어나니 꿀풍년이라. 모두들 함께 가서 원흥의 사과꽃을 구경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을 이끄시고 꿀을 가져다놓은 방으로 향하시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시니 방안에 꿀향기가 가득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포장을 벗기고 뚜껑을 열어놓은 꿀통앞으로 걸어가시였다.

《이게 원흥의 사과꽃이구만.》 그이께서는 꿀향기에 얼굴들이 환해진 일군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이건 정말 귀한 꿀이요. 어서 다들 와서 꿀구경들을 하오. 원흥의 사과꽃을 말이요.》

기뻐하시는 그이께 석영빈이 말씀드리였다.

《파수종합농장사람들이 이 사과꽃을 올려보내면서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먼길에 겹쌓인 피로를 푸시는데 꼭 쓰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석영빈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그는 조국의 먼북변에서 최전연초소들에까지, 동해지구에서 서해기슭에 이르기까지 김정일동지께서 걸어오신 현지도의 먼먼 길을 생각한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석영빈의 마음을 리해하시였다.

《종합농장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소. 이 원흥의 사과꽃을 보기만 해도 내 피로가 다 풀리는것 같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때에도 윤승권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우리 원흥에》하던 그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울려오는데 했다. 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그 동무들의 마음을 압니다. 내무군군인들을 믿고 원흥에 현대적인 파수종합농장을 건설할데 대한 파업을 주면서 원흥벌에 사과꽃이 피면 내 꼭 나가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과꽃이 한창 피어나는 계절에 자강도일대의 공장, 기업소들과 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느라 거기에 가있다나니 내 그 동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동무들이 사과꽃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렸을거요. 기다리다가 이 사과꽃을 올려보냈을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말 윤승권이네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이 미안하시였다. 그리고 사과꽃이 피어난 원흥을 못 보신것이 서운하시였다. 하지만

마음은 온 한해 원흥에 두고계시였다. 원흥이 어떤 고장인가! 어버이수령님의 심혼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땅이 아닌가. 그 원흥에 현대적인 과수 종합농장을 일떠세워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두고 두고 사라질줄 모르던 아픔을 가서드리려고 종합 농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온 한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종합농장건설자들이 사과원에 사과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달리어 기뻐할 때 그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그이께서도 기뻐하시였다. 새 품종 사과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고 때맞춰 필요한 농약이며 비료며 기계수단들도 보내주시였다.

이해파라 여름에 접어들기 바쁘게 예견치 않았던 폭우가 내리였다. 이상기후현상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내리는 동해안일대의 공장들과 인민군부대들을 현지도하시다가 원흥의 어린 사과나무들을 걱정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큰피해를 입지 않는지 빨리 알아봐야겠소. 원흥천으로 대동강물이 올라와 어린 사과나무들이 물에 잠기지 않는지 모르겠소.》

그이께서는 비물이 흐르는 기계공장의 구내길을 걸어가시며 석영빈에게 말씀하시였다. 즉시에 원흥의 형편을 알아본 석영빈이 그이께 보고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예견하신 그대로였다. 대동강의 수위가 급작스레 올라가면서 원흥천물이 과수원 한쪽으로 흘러든것이였다. 대동강과 린접한 그곳은 워낙 지대가 낮아 습기가 빠지지 못하던 곳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였다. 폭우는 한나절을 내리다가 멎었는데 하늘에서는 여전히 시꺼먼 구름장들이 내륙쪽으로 밀려가고있었다.

중기예보를 알아보시니 장마전선이 밀려오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물에 잠긴 키낮은 사과나무들을 보며 낮이 새까맣을 과수종합농장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으시였다.

《귀중한 사과나무들이 한그루라도 잘못되어서는 안되겠소. 그 사람들이 자체로 양수설비를 마련하여 고인물을 뿔스라고 하면 시일이 걸릴수 있으니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서 원흥에 양수기를 보내줍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시자바람으로 내각의 관계부문 일군들을 찾으시여 원흥에 보낼 양수기문제가 어떻게 되였는가를 알아보시였다.

내각의 일군들과 운수부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양수기를 실은 대형자동차가 벌써 원흥으로 가고있었다.

《됐구만! 이젠 됐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사과나무들이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윤승권이며 종합농장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한시름을 놓으시였다. ...

2

《천천히! 천천히 가자구!》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너머로 눈길을 보내시며 운전사에게 이르시였다. 승용차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파원의 한가운데로 난 구내도로에 들어서고있었다. 포장한 직선길이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확 열리시였다. 거뭇한 흙밭이 드러난 땅, 대지는 기름지고 창조물은 거대하다.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것을 창조할수 있는것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의 창조적능력이 열어놓을수 있는 가능성은 실로 무한대한것이라는 생각을 하시였다.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이곳은 지은지 오래된 자그마한 마을들이 강냉이숲에 묻혀있고 정리하지 않은 크고작은 논들과 밭들이 널려있었으며 풀이 무성한 물웅덩이들과 원흥천에서 고기잡이군들이 반두질이나 하던 한적한 벌이였다. 한여름이면 뚝들에 한벌 피어난 노란 들꽃들과 거기서 한가하게 풀을 뜯는 염소들이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내던 곳이였다.

《우리 내무군이 큰일을 했구만! 원흥벌이 한해 사이에 천지개벽을 했단 말이요! 저길 보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연히 펼쳐진 벌가득 줄맞춰 늘어선 사과나무들과 질서의 극치를 이룬 하얀 버팀대들을 가리키시며 자못 흥분된 목소리로 이으시였다. 《우리 내무군군인들이 마치도 사열을 받기 위해 정렬해있는것 같지 않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원흥땅의 전변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로고와 심혈은 다 잊으시고 파원을 일떠세운 내무군군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불시에 이름할수 없는 감회가 그이의 가슴속에 뜨거운 조수마냥 밀려들었다. 그이의 추억은 흘러간 지난 세기에로 내려쳐갔다. 《잊혀지지 않아. 해방직후 원흥에 나갔다가 본 그 여원아이의 손이!》 하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 저 무한대한 하늘의 어딘가에 수령님의 심뇌에 찬 그 말씀이 지금도 새겨있지나 않을까?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순간 격해지는 감정을 누르시며 정갈한 파원을 둘러보시였다. 저 한그루한

그루의 사과나무들과 버팀대들마다에 우리 내무군군인들의 땀이, 정성이 스며여있으리라. 두텁게 얼어붙은 대동강의 얼음이 켑켑 소리치며 갈라져 나가고 맵쌀 바람이 불어치는 엄동설한에도 언땅을 까내면서 구덩이들을 뚫으며 생산도로들을 뚫으리라. 옷등을 벗어놓고 허연 입김을 날리면서 기세를 올리는 내무군군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으시였다.

《장군님, 작년 이맘때 장군님께서 이쪽으로 지나가실 때까지만 하여도 여기에 이런 과수농장은 없지 않았습니까. 한해사이여 이런 과원이 생겨나고 저런 공공건물들과 문화주택마을이 솟아났으니 이진 정말 기적입니다!》

석영빈이 흥분되어 말씀드리였다. 그는 방금 지나오면서 본 종합농장어구를 다시 돌아보았다. 거기 산기슭에는 놀라운 한쪽의 상상화마냥 푸른 지붕을 한 눈부신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마을이 이채롭게 들어앉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이 일군의 흥분된 눈길이 닿아있는 덩치 큰 두동의 건물이 종합농장건설자들이 일떠세워 가동을 시작한 능력이 대단한 파일보관고와 설비조립이 마감단계에 들어간 사과말린편공장이라는것을 알고계시였다. 이제 얼마안있어 그 사과말린편공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가공품이 쏟아져나올것이다.

《동무의 말이 옳소. 이게 바로 기적이지.》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정성이 알리는 버팀대들과 겨울나이를 위해 벼짚으로 꼼꼼히 감싸준 사과나무들을 눈여겨보시며 석영빈의 말을 긍정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보통강상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수도의 모든 구역들에 현대적인 파일상점들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 상점들은 가장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려지고 손님들의 편의도 최상의 수준에서 도모하는 멋쟁이상점들로 건설될것이다. 원흥에 이런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가 일떠선데다가 이제 과일상점들까지 늘어나면 인민들은 아무때건 신선한 과일을 사다먹을 수 있게 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던것이 아닌가! 수령님께서... 아, 수령님께서 이런 현실을 보시였다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마음쓰시면서 그리도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수령님이 아니신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눈물이 나오시였다. 해방된 이듬해 봄 여기 원흥지구를 찾으시였던 수령님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어려왔다. 가난의 루적인양 해묵은 벼짚이영을 무겁게 떠인 처마낮은 낡은 토벽집들이 몇채 들어

은 마을이였다. 두엄냄새가 나고 땅이 녹아 질척해진 마을어구에서 수령님께서 배짱뽕이바람의 농민들을 만나시여 살아가는 형편에 대하여 들으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것을 알고 옆동네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왔다. 해방은 되였으나 아직은 가난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그들속에는 겨우 돌이 지났을 아이를 업은 젊은 녀인도 끼여있었다.얼굴이 여위고 창백한 녀인이였다. 더덕더덕 기운 무명치마에 코가 닳아진 검정고무신을 맨발에 신었다. 녀인의 잔등에 업혀있는 아이의 여윈 손에는 바람이 든 생무우조각이 들려있었다.

아직 세상을 알수 없는 어린것은 마치 마을의 경사를 자기도 아노라는듯 해죽해죽 웃고있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그 어린것의 생무우조각을 든 여윈 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윽해서 마을을 둘러보시였다. 어디에나 가난의 때가 흐르는 마을이였다.

《이제는 일제놈들도 망해서 쫓겨갔으니 여러분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그러니 힘껏 일해서 우리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앞으로 농사도 잘 지으면서 집오래나 저기 야산들에는 과일나무도 많이 심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손에 생무우조각이 아니라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를 쥐여줍시다.》

그이께서는 마을사람들과 잘살게 될 방도를 의논하시다가 늦어서야 마을을 뜨시였다. 시내로 들어오시면서 줄곧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먼 후날에 이르러서도 그때의 일을 자주 추억하시였다. 엄마등에 업혀 생무우조각을 빨고있던 아이의 모습은 수령님의 심중에 그렇듯 커다란 아픔으로 새겨졌던것이였다.

그런 아픔을 안으시고 한생 인민을 위해 로고에 찬 길을 걸어오신것이였다.

원흥사람들은 해방직후에 자기들의 고장을 찾으시여 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을 받들고 집오래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야산들을 개간하여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원흥지구는 과일고장으로 되였다.

어느해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고장을 지나가시다가 여기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다는 한 농촌작업반장을 만나시였다. 농사작황이 좋다고 기뻐하시는 수령님께 나이지속한 작업반장이 벌쭉거리며 자랑하듯 말씀올리였다.

《수령님, 우리 원흥도 좋은 세월을 만난 덕에 흥하는 고장이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찾아오시여 농사도 잘 짓고 과일나무도 많이 심으라고 하신 말씀을 받

들고 과수원을 조성하여 저렇게 야산마다 사과나무들이 자라니 우리 원홍사람들이 지금은 북청이나 과일군사람들 부럽지 않아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푸른 사과알들이 한창 커가고있는 가까운 야산의 과수원에 눈길을 보내시였다.

어느 사나이의 건드러진 타령소리가 거기 어디선가 들려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아니야, 반장. 만족해서는 안돼. 지금이 어떤 세월인가? 우리 사람들의 요구도 하늘만큼 높아졌어. 게다가 평양사람들은 아직도 과일군같은데서 과일을 날라다 먹지 않나. 발전해야지. 지난날 나라를 빼앗겼던탓에 지지도도 못살아온 우리 인민인데 세상이 보란듯이 잘살아보아야 할게 아닌가.》

그날도 늦어서야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교외에서 돌아오신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모두 과일을 마음껏 먹게 되면 내 소원 하나가 풀리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수령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뜨거워지시였다. 《잊혀지지 않아!》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였다. 왜놈들이 남기고간 가난의 흔적! 엄마등에 얹혀 생무우조각을 빨고있던 아이의 여윈 손을 수령님께서 또 추억하신것이 아닌가? 그 아픔을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북청땅을 찾으시여 온 나라 야산들을 과일숲으로 뒤덮으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안으시고 고산이며 과일군, 평양과수농장이며 온 나라의 곳곳에 현지지도의 자욱을 남기신것이 아니라, 떨어진 사과 한알때문에만도 모진 수모를 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을 위해 우리 조국을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켜주신 수령님께서 원홍의 그 여윈 아이를 그리도 잊지 못하시니 정녕 언제면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어혈져있는 그 아픔이 말짱 가시여질가? 언제면 봄날의 꽃향기같은 그윽한 기쁨만이 수령님의 마음속에 가득찰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눈앞에 꽃바다가 보이시였다. 별가득 들어찬 키낮은 사과나무의 가지들마다에 몽글몽글한 꽃송이들이 한벌 덮여 꽃바다를 이룬 광경이, 부지런한 벌들이 꿀철을 만나 뽕뽕거리며 날아들어 소란스럽고 꽃향기가 넘쳐나 취할듯 한 봄날의 과원이 보이시였다.

얼마나 좋으랴. 수령님을 원홍의 꽃바다에 모셨더라면! 무르익은 사과의 노랑고 붉은빛이 어리어 온통 노을속에 잠긴듯 한 가을의 원홍벌에 우리 수령님을 모셨더라면! 평양의 과일매대마다에, 온 나라의 과일상점들에 사과가 산처럼 쌓이는

풍경을 수령님께서 보셨더라면!

《수령님! 수령님께서 한생 아픔으로 새겨안으시였던 이 땅이 천지개벽하여 오늘은 이렇게 현대적인 과수종합농장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평양사람들이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먹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장공사까지 하면 수령님의 심혼이 깃든 이 땅은 세상에 더없는 보배땅으로 될 것입니다!》

《종구만! 보배땅이라... 우리 나라 땅은 다 보배땅으로 돼야지. 평양사람들이 좋은 과일을 마음껏 먹을수 있게 되었다니 오늘은 정말 기쁘오. 우리 인민에게 하나라도 좋은것을 더 주고싶은것이 내 마음인데 원홍에 세상이 부러워할 과수종합농장이 생겼다니 큰 시름이 하나 풀리는것 같소.》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아득한 하늘나라 멀리에서 울려오는것만 같으시였다.

(수령님!)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이 메여오시고 뜨거운것이 눈앞을 가리였다. 문득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어리여왔다. 꽃바다 펼쳐진 환희의 계절, 눈같이 정갈한 사과꽃이 가지마다 소뽕이 피어나 미풍에 흐느적거리는 그속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걸으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만시름을 잊으시고 기쁨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장군님, 종합농장소재지마을입니다.》

석영빈이 말씀드려서야 김정일동지께서는 승용차가 과원안의 직선길을 다 지나왔다는것을 아시였다. 승용차는 종합농장소재지마을에 들어서고있었다. 현대맛이 나게 조형미를 살린 산뜻한 색깔의 공공건물들이 안침진 골안에 조화롭게 들어앉은 새로운 풍경이 앞에 펼쳐졌다. 환상으로는 그려볼수 있는 아름다운 소도시를 방불케 했다.

소재지중심으로 난 깨끗한 포장도로를 따라 구릉같은 나지막한 등성이를 넘어서니 이번에는 아담한 살림집들이 나타났다. 그 살림집마을에 채 못미쳐 야산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있었다. 승용차는 이제 그 갈림길로 들어서야 한다. 거기 야산마루에는 지금 종합농장을 건설한 일군들과 농장관리일군들이 기다리고있을것이였다. 조금전에 과수원구내길을 지나오시면서 산마루전망대에 모여서있는 사람들을 띠여보신 그이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금 지체되더라도 분홍색담장을 아담하게 두른 새 살림집마을에 들러보고 싶으시였다.

《저 살림집마을에 들렀다가 올라가자구.》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초조해서 기다리고있을 전망대의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시였다.

승용차가 갈림길을 그냥 지나칠 때 그이께서는 별경게 달아오른 윤승권의 거칠거칠한 얼굴이 떠오르시었다. 한해전 김정일동지께서 종합농장건설을 내무군에 맡겨주실 때 일군들속에 있던 사람, 《최고사령관동지, 기어이 한해동안에 세계적인 종합농장을 일떠세우고 우리 원흥벌에 사과꽃을 피우겠습니다!》하던 그의 흥분과 열정에 떨리던 목소리! 그렇다, 그때에도 그는 《우리 원흥》이라고 했다. 어찌된 일인가? 어찌하여 그가 오랜 지기처럼 생각되는것인가?

3

김정일동지께서 갖 포장한 야산마루의 전망대에 이르신것은 그때로부터 얼마간 지나서였다.

《우리 내무군이 인민을 위해 큰일을 해놓았소! 멋있구만! 이 종합농장은 만점짜리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중나와있는 윤승권이며 종합농장일군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아득히 펼쳐진 눈부신 파원을 바라보시다가 《여긴 떠나고싶지 않은 고장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빛이 어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사과꽃이 한창 피여날적에는 우리 원흥벌의 경치가 정말 볼만 했습니다.》

윤승권이 말씀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겨운 눈길로 내무군장령의 별것하게 혈색이 피여난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였다. 자신께서는 한해동안 새 종합농장건설을 놓고 이 장령과 마음이 하나로 통했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이 원흥벌에 사과꽃이 피여나면 내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미안하오. 그땐 정말 시간을 낼수 없었소.》

윤승권의 눈에 물기가 피여올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농장으로 들어오는 어구에 들어앉은 파일보관고건물이며 사과말린편공장이며 무연히 펼쳐진 사과밭을 둘러보시다가 대동강과 린접하고있는 파원 한끝을 가리키시였다.

《저기가 여름에 큰물피해를 입었던 곳이겠구만.》

저기 바람꽃이 뽕얇게 이는 원흥천기슭의 하얀 양수장건물을 띠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사파나무들이 물에 잠긴것을 보며 마음고생들을 했겠구만.》

《그때는 정말 속이 까맣게 타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양수기를 보내주시어

다시는 큰물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확철에는 저기서도 잘 익은 사과를 따했습니다.》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허리치는 물속에 들어가 사과알마다에 올라있는 감탕을 씻어냈는지? 인민을 위하는 그 정성이 눈우에서 수박을 탄셈이요. 모두 얼굴들이 뒹구만. 한해사이에 이런 종합농장을 일떠세우느라 언제한번 집에 가볼새도 없이 고생들을 했을거요.》

《저희들이야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우리 원흥벌에 기율이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로고와 심혈이 있어...》

윤승권이 종합농장건설의 나날들이 생각나서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그래, 인민들을 위하는 동무들의 정성이 여기에 이런 기적을 펼쳐놓았지. 그런 정성이면 온 나라를 백과 주렁진 락원으로 만들수 있소, 만들수 있단 말이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몇걸음 앞으로 걸어나가시며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였다. 《이 원흥벌이 꽃바다를 이루었을 때엔 풍경이 볼만 했던 말이지. 옹초, 그건 어디서나 볼수 없는 풍경이었을거요. 이제는 평양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려고 정방산이나 다른 어떤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겠소. 여기 와서 사과꽃을 구경하면 될거란 말이요. 동무들의 땀과 노력의 토양우에 피여난 원흥의 사과꽃이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지.》

그이께서는 떠오르는 환상의 세계에 잠기시여 그윽한 빛을 눈에 담으시였다. 꿈나라처럼 별가득 피여오르는 사과꽃바다! 봄의 원흥벌을 찾는 사람들은 꽃향기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사고는 해쓷은 아침처럼 정화될것이다. 시인은 금강석같은 시어가 떠오르고 과학자라면 천만가지 환상이 번개 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사과꽃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윤승권의 두눈에 의혹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 방금 겨울나이에 들어간 한적해진 파원이 아니라 정말로 사과꽃이 만첩으로 피여난 파원의 봄풍경을 보신것처럼 말씀하시기때문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얼굴에 실리는 의문의 빛을 알아보시고 부드럽게 웃으시였다.

《동무들, 내 방금 저 사과밭을 지나오면서 꽃이 만발한 봄날의 파수원을 그려보았습니다. 꿀벌들이 분주스레 날고 꽃향기가 진동하는 파수원풍경을 말입니다. 심신이 다 거뽏해졌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파원의 구내도로를 지나오실 때의 걱정이 다시금 살아나시여 음성이 조금 갈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인차 부드러운 음성으로

《첫해에 꽃이 그렇게 많이 피었다는데 수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라고 물으시었다.

《43프로였습니다. 사과밭에 벌통들을 놓아주었더니 수정률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면 높은 수준이요. 동무들이 여기서 생산한 첫꿀을 나한테 보냈는데 내 그 원홍사과꿀을 반갑게 받았습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종합농장건설자들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시었는데 윤승권은 눈곱이 젖어 들었다.

《그 꿀이야 최고사령관동지께서...》윤승권이 목이 메어 떠뜸거리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멀고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인 피로를 푸시기 바라면서 윤승권이네가 올린 사과꿀은 실상 평양산원의 산모들에게 차례졌다. 윤승권은 출가한 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딸이 평양산원에 들어가 옥동자를 낳고 산원에서 산모들에게 주는 사과꿀을 먹었다는것이였다. 애엄마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과꿀을 먹어서인지 안고온 손자녀석도 사과알처럼 통통해서 복스럽기만 해요. 하고 안해도 전화로 말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윤승권의 말을 들으시며 사과알처럼 통통하다는 그의 귀염상스러운 손자의 모습을 그려보시었다.

《허허... 좋구만! 원홍의 사과꿀이 좋아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튼튼하다니 얼마나 좋소.》

윤승권이 손자가 생각나듯 얼굴이 불깃해졌다.

《최고사령관동지, 이 원홍벌이 꽃계절에도 불만했지만 어른의 주먹보다 더 큰 왕사과들이 주렁진 가을풍경 또한 세상에 다시 없을 장관이었습시다.》

《왕사과라... 왕밤이나 왕다래는 있지만 왕사과라는 말은 동무한테서 들소.》

김정일동지께서 즐거워하시며 밝게 웃으시자 윤승권은 행복의 미소를 얼굴에 가득 띄워올리었다.

《우리 원홍의 사과가 정말 그렇게 컸습시다. 그 사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조화가 아닌가, 장군님께서 조화를 부리는 신기한 사과나무모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게 아닌가고들 했습시다.》

《조화야 무슨 조화를 부렸겠소. 동무들의 정성이 그렇게 지극하니 사과도 그렇게 컸겠지.》

김정일동지께서는 윤승권의 안내를 받으면서 종합농장전경도가 있는 전망대 한가운데로 걸어가시었다. 전경도앞에는 농장에서 생산한 여러 품종의 사과들을 전시해놓았다.

윤승권의 해설을 들으시며 사과품종들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시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유난히 큰 사과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이게동무가 말하던 그 왕사과겠구만. 허허, 대단하오! 이 사과 한알이 반키로그람은 더 나가겠소.》

윤승권이 대번에 얼굴이 환해졌다.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그렇습시다. 이 사과 한알이 현재 540그램입니다. 따들인지 오래되어 수분이 빠져서 그러지 원래는 550그램이였습니다.》

윤승권은 유럽에서 한다하는 과수업자로 소문난 조반니 잔지라는 사람이 평양에 왔다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고 감동되었던 사실을 말씀드리었다.

사과알들이 가지마다에 달려 새알만 해졌을 때였다. 그는 꿈같이 화려한 과원을 돌아보며 오랜 과수업자의 자존심도 다 잊고 연방 탄성을 질렀다.

《이 조반니는 한생을 과수업에 몸담고그고 살아오면서 세상에 소문난 과수원들은 다 돌아보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거창한 과원은 처음 봅니다. 그럴뿐만아니라 사과나무를 심은 첫해에 꽃이 일매지게 피어나고 이렇게 가지마다에 열매가 많이 달린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당신네는 이 사과만 국제시장에 내가도 한해사이에 굉장한 리운을 볼것입니다!》

그는 조선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비배관리하는 데서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개발한게 아닌가고 물었다.

윤승권은 웃으며 대답했다.

《특수한 기술은 무슨 특수한 기술이겠습니까. 그저 우리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과나무들을 심고 가꾸었을뿐이지요.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좋은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이 과수종합농장건설을 발기하셨고 술한 기계수단들과 비료며 농약이며 필요한것을 다 보내주셨지요. 과수원이 다된 다음에는 새 품종 사과나무의 비배관리를 하는 방법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조반니 잔지는 돈을 벌기 위하여 한생 과수업을 해온 사람이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과일을 마음껏 먹이시려고 현대적인 과수종합농장건설에 천만금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조반니 잔지가 세상에 더없는 위인을 모신 조선인민을 부러워했다는 윤승권의 말을 들으시며 가볍게 웃으시었다.

《그 과수업자가 이렇게 큰 사과를 와서 보면

더 놀라겠소. 이제 각 도당책임비서들이 여기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모두 와서 보게 하자고 하는데 이 540그램짜리 왕사과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건사하라구. 어느 엉큼한 책임비서가 탐을 내서 자기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구 몰래 가져갈수도 있소.》

주위에서 웃음이 일렁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원흥을 떠나고싶지 않은 고장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정말로 만시름이 다 풀리시어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 여기서 하루해를 보내시려는듯 했다.

4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재 조성되어 첫 수확을 한 파수발전적이며 종합농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다음 확장공사를 대담하게 벌릴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확장할 면적을 정해주신 구획안에는 사과나무들이 로마기에 들어선 주변야산들과 함께 갑문에 이르는 넓은 부지가 다 들어갔다. 종합농장사람들은 확장공사를 예견하고있으면서도 상상할수 없었던 거창한 규모였다. 누구보다도 놀란것은 윤승권이였다. 하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을 하시고 구획을 그어주시였으니 전투는 진행될것이고 기적은 일어날것이다. 윤승권의 얼굴에는 당장 흥분의 기색이 살아났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확장공사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풀어 주겠으니 공사를 대담하게 내밀어보오.》

그이께서는 원흥지구가 한눈에 안겨오는 전망대 한끝으로 걸어나가시어 이제 확장전투가 벌여질 야산지구며 갑문까지의 드넓은땅을 둘러보시였다.

《저—기가 다 파수원이 되면 굉장하겠구만.》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어주시신대로 파수원을 확장하면 우리 원흥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세상에 없는 대파일생산기지로 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어 윤승권을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언젠가 전화를 통해 울려오던 《우리 원흥》이라고 하던 그의 별스레 떨리던 목소리가 또다시 생각나는것이였다. 여기 원흥에 오면 오랜 지기를 만날것 같이 여겨지던것은 바로 그때문이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세상에 없는 대파일생산기지라...》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짧은 기간에 확장공사를 끝내자면 험치 않을거요. 그래서 내 동무들한테 힘있는 건설부대를 보내주

자고 하오. 618건설돌격대를 여기에 불입시다.》

윤승권이 놀라서 한순간 굳어졌다. 618건설돌격대라면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가 있는 백두산지구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무어주시고 키워주신 건설부대가 아닌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아함과 놀라움이 엇갈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따뜻이 물으시였다.

《동무는 최근에 와서 백두산에 가본적이 있소?》

《2년전에도 가보았고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백두산지구가 10년전에 비하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삼지연읍에 들어서면 꼭 별천지에 들어간것 같았습니다. 삼지연읍도 멋있지만 백두산에 올라가 볼때마다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넓어지는것 같았습니다.》 《백두산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곳이지. 그래서 누구나 백두산에 오르면 그렇게 심신에 열정이 깃들고 가슴이 넓어지는거요. 618건설돌격대가 백두산에 가서 세상을 놀래우는 일을 참 많이 했소. 이제 그 동무들이 오면 여기에 백두산바람이 일거요.》

《최고사령관동지, 그 동무들이 오면 확장공사가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제라고 해도 기한전에 끝낼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무들이야 당에서 더 중요시하는 대상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공사는 다 인민을 위하는 일이요. 수령님께서 백두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시면서 왜놈들과 싸우신것도 빼앗긴 나라를 찾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내세워주기 위해서였소. 618건설돌격대를 부릅시다. 여기 원흥지구만이 아니라 고산파수농장도 당장 현대적인 농장으로 일떠세우자고 하는데 거기에도 백두산에서 단련된 그 동무들을 보내자는거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최전연으로 나가실 때마다 아버지수령님의 자욱이 어려있는 고산땅도 세계적인 대파일생산기지로 일떠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의 파수의 력사에 대하여 생각하시였다. 1961년 4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파수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후 온 나라 방방곡곡에 파수원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대규모파일생산기지들은 또 얼마나 생겨났는가. 이제 그 많은 파수원들을 청춘파원으로 되살리며 현대적인 파일생산기지로 확장하면 우리 나라는 가까운 앞날에 가서 어디에나 파일꽃이 만발하는 락원으로 전변될것이다.

파일상점마다 신선한 파일이 가득차서 온 나라에 파일향기가 넘쳐나고 인민들은 그속에서 행복을 노래하게 될것이다.

《할일이 많소!》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혼자말 씩처럼 나직이 뇌이시였다.

하늘에서는 언제 구름이 벗겨졌는지 두리반갈은 태양이 이글이글 타며 눈부신 빛발을 뿌려주고있었다. 조금전까지만 하여도 바람꽃이 뽕얇게 일던 파원의 먼 변두리에도 밝은 빛이 한껏 서리였다. 대동강상류의 감문도 그림처럼 선명해졌다.

그이께서는 원홍별을 감돌아간 대동강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파원 맞은켠 등성으로 눈길을 옮겨가시였다. 담장을 규모있게 두른 새 문화주택마을이 거기에 있었다. 집집에 엮은 푸른 기와가 해빛에 눈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곳 마을의 집집에도 들러보고싶으신데 지금은 그러실수 없는것이였다.

《그림같은 풍경이요! 저 집들에도 종합농장사람들이 살고있소?》

《그렇습니다. 종합농장을 건설하면서 여기 소재지마을과 함께 지었는데 파수원이 생기면서 철거한 세대들과 원래부터 저 동모루에서 살던 사람들이 입사했습니다.》

《내가 여기로 올라오면서 소재지마을의 문화주택에 들어가보았는데 설계나 시공이 조금도 흠잡을데없이 잘되였습니다. 평양에 새로 지은 만수대거리살림집들 못지 않습니다. 허허, 그래서 나도 이사집을 싣고 내려와 살고싶다고 했소.》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동모루의 새마을을 가리키시였다.

《동무들, 보시오.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저런 희한한 집들에서 살며 파원의 꽃바다에서 흥겹게 일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사회주의리상촌이 아니겠소.》

윤승권이 얼굴이 환해서 말씀드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밑에 온 나라 도처에 선경이 펼쳐져 이제는 선군10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홍에 와보는 사람들은 이런 종합농장은 웅당 세상에 대고 자랑해야 한다면서 원홍별의 사과꽃풍경을 선군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선경이라고들 말합니다.》

《웁소. 봄이면 사과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열매바다가 펼쳐지니 선경이야 선경이지. 이제는 선군10경이 아니라 선군11경이요.》

그이께서는 해빛이 자오록이 서린 파원과 공공건물들이며 황홀경을 이룬 살림집마을들을 이윽도록 둘러보시다가 《바로 이런 현실을 보시는것

이 수령님의 소원이였습니다.》라고 깔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수원들과 종합농장일군들은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이의 심중에 지금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고래치고있다는것을 윤승권이만이 아닌 사람들모두가 느끼고있었다. 아니, 김정일동지께서 잠간사이면 가실수 있는 파원의 포장한 구내길을 그리도 천천히 통과하시여 전망대에 이르신 그때부터 그리고 종합농장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사과꽃에 대한 의미깊은 말씀을 하실 때부터 그이께서 심중에 류다른 걱정을 안고 계신다는것을 어렴풋이 의식하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멀리 파원의 한끝에 눈길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조금전에도 눈길을 보내시던 곳이었다. 거기에는 대동강이 있었다. 력사의 하 많은 사연을 싣고 아득한 태고적부터 유유히 흘러온 강! 인류탄생의 첫 태를 묻던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의 다난사를 지켜보며 흘러온 저 대동강에 우리 장군님의 심중을 파고드는 그 무엇이 있단말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도록 말이 없으시였다.

그 시각엔 술술 불어오던 바람도 잦아들었다. 태양은 더 뜨겁게 작열하는데 산촌은 위인의 숨결과 심장의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듯 했다.

《오늘 여기 원홍에 와서 희한하게 펼쳐진 파수 종합농장을 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나에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령님께서 어리실 때 아버님께서 교편을 잡으시고 혁명활동을 하고 계시는 봉화리로 가시기 위해 어머님과 함께 배를 타고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가신적이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날의 자그마한 배가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으시여 잠시 말이 없으시였다. 삐걱, 삐걱... 강물위로 올라가는 노젓는 소리...

《어리신 수령님께서 배가 이 고장을 지나갈 때 강기슭에 금시 쓰러질것 같은 오막살이 몇채가 모여앉은 가난한 마을을 보시고 왜놈들 등쌀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인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백두산시절에도 가난이 속마음에 드리웠던 그 마을을 잊으실수 없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해방된 이듬해 봄에 여기 원홍땅을 찾아오셨는데 그때에도 가난한 모습은 여전하더라고, 그날 해진 무명치마에 꿰진 검정고무신을 신은 젊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 생무우조각을 빨던 아이의 여윈 손을 보니 가슴이 아프셨다고 하시였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곳을 지나가면

서 수령님의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수령님의 심혼이 깃들어있는 이 땅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현대적인 파수종합농장을 일떠세울 결심을 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래서 오늘 위대한 수령님 생각이 더 난다고 하시였다.

갑자기 흑— 하는 흐느낌소리가 들리였다. 윤승권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때… 그때… 수령님의 심중에 아픔을 새겨드리였던 그 아이가… 바로… 저…》

토막토막 겨우 이어지던 그의 목소리가 툭 끊어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놀라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장령의 얼굴에서 그날의 여윈 아이의 흔적이라도 찾아보시려다가 공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가난에 짓눌려 살아온 이 나라 인민의 모습으로 새겨져 그이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것이 어찌 그 어린아이 하나뿐이라.

윤승권은 한참만에야 가까스로 진정을 하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해방의 봄빛을 안고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아픔을 실어드린것이 가슴에 걸리어 원홍의 야산들에 전쟁전에도 전후에도 파일나무를 심었다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다. 원홍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꾸려놓고 만경대가문의 위인들을 기쁨속에 모시고싶은 하나의 소원을 안고 한생을 기다려온 평범하고 소박한 너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였구만! 그래서 동무는 원홍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우리 원홍〉 이라고 했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투원들과 함께 온 한해를 벌에서 살며 이 벌에 사과꽃을 피워놓고, 열매바다를 펼쳐놓고 기다렸을 윤승권의 마음이 헤아려지시여 가슴이 저으기 뜨거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땅의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는 우리 수령님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동무들도 나도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구, 이제 저 야산의 사과밭들도 넓혀 새 품종으로 채워놓고저 갑문이 있는 곳까지 사과꽃을 피워놓으면 수령님께 가난을 보여드린것으로 해서 원홍사람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어혈도 다 풀릴거요 하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설속의 룡궁이라도 옮겨온듯 한 동모루의 황홀한 문화주택마음로 다시금 눈길을 옮겨가시였다.

《오늘은 정말 이곳을 뜨고싶지 않소. 동무들과 함께 저 넓은 사과밭을 다 밟아보고 저 동모루의 집집에도 다 들려보고싶소. 하지만… 시간이 허락

치 않는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윤승권이네와 아쉬운 작별을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를 모신 승용차는 파원의 구내길을 벗어나 쾌속으로 달리였다.

《우리 정말 할일이 많소!》 그이께서는 차창너머로 흘러가는 산촌풍경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시다가 문득 《청산리.》하고 나직이 뇌이시였다.

석영빈이 의아해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석영빈은 한순간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했다. 장군님께서 《원홍》이라고 하신것이 아닌가? 아니야, 이자 분명 력사의 고장 청산리를 뇌이시지 않았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아해하는 그를 리해하신듯 《원홍에 현대적인 파수종합농장을 건설해놓고보니 어깨가 더 무거워지누만!》하고 말씀하시였다.

석영빈은 그제서야 김정일동지께서 어찌하여 청산리를 뇌이시였는지 리해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옥이 새겨져있는 땅, 사회주의락원으로 이름높은 청산리가 아닌가.

하지만 그이께서 어찌 청산리만 생각하시였으랴. 이제 다시한번 용을 쓰면 천지개벽의 새 모습으로 세상을 놀래우게 될 수많은 청산리들을 생각하신게 아니라.

석영빈의 눈앞에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온 한해동안 다녀온 나라의 방방곡곡이 떠올랐다. 아직도 북방의 눈냄새가 풍겨오는듯 한 그이의 야전복자락, 동해안의 철의 기지들에서 맞으신 쇠물의 뜨거운 열기, 협동벌들과 공장들을 찾으시며 맞으신 바람과 눈과 비…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선경을 자랑하는 고장들, 소리치며 일떠서는 조국땅 그 어디에나 이어지는 선군령장의 거룩한 자옥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만경대가문의 위업을 말아안으시고 우리 조국을 인류리상의 최절정에 올려세우시려 김정일동지께서 걸으시는 애국헌신의 장정!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계승의 길! 아, 이 원홍에 현대적인 파수종합농장을 일떠세우고 우리 장군님을 기쁨속에 모신 저 윤승권이네들이 다 알가? 인민의 행복을 위한 나라의 만년채보가 일떠선 이날에 우리 장군님의 어깨우에 천만가지 무거운 짐이 덧실리였다는것을 저 사람들이 다 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을 다녀가신 후 원홍땅에 그이께서 보내주신 618건설돌격대가 왔다. 파수종합농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무렵 김정일동지께서 이미 현지도의 자옥을 새기신 고산땅에서도 백두산에서 달려간 618 건설돌격대가 현대적인 대과일생산기지를 일떠세

우기 위한 건설바람을 일으키고있었다.

어느날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확장공사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해 전화로 운승권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도당책임비서들이 그곳 과수종합농장에 다 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모두 왔더랬습니다. 도당책임비서들은 원흥벌에 전에는 볼수 없었던 현대적인과수종합농장이 생겨난것을 보면서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해했습니다.》

《그랬을거요. 도당책임비서들이 감동되었으면 좋은 일이요.》

《최고사령관동지, 그런데...》

방금전까지만 해도 젊음이 부활된듯 혈기에 넘쳐 말씀드리던 운승권이 선뜻 말끝을 잇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아해하시며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보아주신 540그램짜리 사과를...》

《그 왕사과 말이요? 그 사과가 어떻게 되었는데거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도당책임비서들이 와서 보면 부러워할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 사과가 없어졌기에 알아보니 리봉은도당책임비서가 슬그머니 가져가질 않았겠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그 사과를 보물처럼...》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니 그 보물을 잃어버렸구만. 거 참 안됐소.》 그러시고는 또다시 웃으시였다.

《그 사과가 없어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오. 원흥에서 해마다 사과풍년이 들어 그런 사과들이 넘쳐나게 될거요. 이제 두고보오. 잃어진 그 원흥의 사과가 정말로 조화를 부리어 새로운 원흥을 낳게 될거요. 사과꽃바다가 펼쳐지고 왕사과들이 주렁지는 새 원흥을 말이요. 그러니 그 도당책임비서를 탓하지 마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과가 조화를 부린다는 말씀에 의아해하는 운승권의 너뵈한 얼굴을 그려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실 내가 일전에 그 책임비서동무한테 비판을 줌 했소. 그곳 도에도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이름난 과수농장이 있는데 최첨단돌과의 시대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 일을 늦잡는다고 말이요. 그 동문 우리의 의도를 알고 사과를 가져갔을거요. 그 원흥의 사과를 자기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분발하게 하자고 말이요. 이제 그 동무네 도에서도 과수농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거요. 그런데 주인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가져갔단 말이지, 허허...》

수화기에서는 뜨거운 침묵이 흐르는데 그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또다시 울려갔다.

가사

아 계절아

문정삼

해빛넘친 이 땅에 따뜻한 봄이 오니
고난의 그 나날이 가슴에 어리어오네
야전복 적시던 눈비는 그 얼마
아 계절아 장군님 가시는 그 길에
눈비를 막아다오 찬바람 막아다오

이 나라의 하많은 전선길 생각하면
강행군 그 길은 얼마나 험난했던가
야전차 막아선 얼음길 그 얼마
뜨겁게 쏟아붓던 폭양은 또 얼마

아 계절아 장군님 가시는 그 길에
얼음길 녹여다오 폭양을 막아다오

조국위해 험한 길 다 견고걸으시는
장군님안녕을 바라는 마음 끝없네
가시는 그 길에 봄바람 되고싶어
따르는 전선길에 별빛이 되고싶어
아 계절아 장군님 가시는 그 길에
포근한 봄빛만 봄빛만 뿌려다오

수령형상소설문학과 심오한 철학세계

김 학

무릇 문학작품일반이 그러하지만 수령형상작품에는 특히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운명문제가 문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철학상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측면은 내놓고라도 수령형상작품의 제일주인공인 수령이 위대한 철학가이고 수령이 창시한 철학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리념으로 되며 그 철학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는 물론 인간도 개조변혁된다는것만 보더라도 수령형상작품에서의 철학성은 그 문학의 절대적인 풍격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수령형상소설문학이라는 세계를 자량차게 수놓아오면서 그 생리에 대해 정당히 인식한 우리의 많은 소설가들이 수령의 철학세계에서 인생의 진리, 심오한 인간문제의 탐구와 해명을 추구하면서 응당한 성과와 경험을 쌓고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 단편소설 몇편을 통해서도 금지높이 확인할수 있다.

《그리운 땅》(정영종 작 2호), 《승전비》(김도환 작 6호), 《병사의 어머니》(림봉철 작 7호), 《12월과 12월》(림봉철 작 10호) 등의 소설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위인적품모를 인간학적요구에 철저히 립각하여 심오히 형상해냄으로써 철학성이 짙은 수령형상작품들로 그 면모를 시위하고있다.

×

수령형상소설문학에서의 철학성은 무엇보다도 철학적깊이가 있는 심오한 종자의 선택에 있다.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생활의 깊은 세계와 결부되어 뜨겁게 안겨오며 두고두고 삶의 참뜻을 되새겨보게 할수 있는 생활의 진리, 인생철학이 깃든 심오한 종자의 탐구와 선택은 수령형상작품의 철학성을 담보하는 선결조건이다.

수령이 작품의 제일주인공인 수령형상소설문학

에서 종자의 철학성은 철저히 수령의 사색과 활동에서 이루어지는것이며 따라서 수령의 철학세계는 곧 작품의 철학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수령형상작품의 본도이다. 수령의 사색과 활동에서 인생철학의 발견, 종자탐구의 주목은 여기에 돌려야 한다. 시작부터 이렇게 되어야 작품은 수령의 형상을 덕성소재일면에 머무르게 하는 경향성을 사전에 극복할수 있다.

단편소설 《그리운 땅》이 이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주고있다. 혈연의 정, 작품은 이것을 형상의 중심에 핵으로 깊숙이 박아넣었다.

인간은 정에 살고 정에 죽는다고 했다. 인간관계에서 정처럼 순결하고 열렬하고 고귀한것은 없을것이다. 그것도 피를 나눈 혈연의 정은 그 무엇으로써도 켤수 없고 헤아릴수 없고 가릴수 없는 절대불변의것이다. 그래서 부부간이나 친구간에는 물론 동지들사이에도 혈연의 정이 차고넘칠 때 그보다 공고하고 숭고한것은 없다고 하는것인지. 그 혈연의 정이 우리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맺어져있다. 소설이 세상에 대고 소리쳐 웨치고저한 생활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

북방의 먼 연하땅 광산로동계급의 투쟁소식에 접하시자 불쑥 그리움이 북받쳐오르시여 엄동설한 수천리 험한 길을 헤치시며 그들을 찾아가신다.

자강도의 여러 대상들을 현지도도하시고 어느 한 나라 대표단과의 중요한 회담때문에 귀로에 오르시면서도 이상하게 그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연하땅, 무엇인가를 놓쳐버리신듯 한 허전한 느낌, 줄것을 다 못 주고 나눌것을 다 못 나눌듯한 아쉽고도 안타까웠던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괴롭게 얹힌것은 강계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의 한끝 연하광산이었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에 돌아가셨다가 하루만에 또 북방으로의 길을 되짚으시는것이다.

눈덮인 천험의 솔매령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좌일군들은 물론 위대한 장군님 모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광산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눈물겨운 마음속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광산을 찾으신 장군님의 그 깊디깊은 심중을 누가 다 알것인가.

물론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부강을 마련하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선 령도자가 광산의 생

산정형과 발전전망, 대비약의 경제기술적비결 등의 수자와 실무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다. 하지만 연하땅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수령님 키우신 인민, 자신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광부들이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그리워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워하는 혈연의 정이 것처럼 우리 장군님으로 하여금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서둘러 빠짐없이 찾으시게 하고 그 숭고한 혈연의 정이 대비약, 대혁신의 원동력으로 되어 이 땅은 하루, 한해가 다르게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변모되어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주체사상의 제일신봉자, 제일관철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이민주의의 철학사상이 이렇게 혈연의 정이라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구체화되어 작품의 핵으로 들어박힘으로써 《그리운 땅》에서는 미구에 짙은 철학성의 향기가 풍길수 있게 되었다.

단편소설 《12월과 12월》도 마찬가지이다.

작가는 사색한다. 《...둘러보건대 어느 인간,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 운명의 개척을 위하여 잠재하거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정신력이 있다. 하여 오늘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자기들의 민족정신을 제일로 찬양하고있다. 하다면 매 인간, 그 민족이 발휘하는 정신력의 한계와 가치는 무엇에 의하여 규제되는가. 그것은 수령이다. 개인적으로 발휘되는 그 모든 각각의 정신력들을 소용돌이치는 룡소처럼 하나의 의지와 행동과 목적으로 엮을수 있는 구심점을 가져야만이 그 집단은 번영할수 있다. ...》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된 1950년대의 천리마대고조와 2000년대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체현된 위대한 진실에 대한 심오한 사색은 마침내 수령이 없는 민족정신이란 께지 않은 구슬이라는 무게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게 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관한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탐구된 생활의 본질인것으로 하여 종자는 심오한 철학적무게를 가질수 있었다. 수령형상소설문학에서는 이렇게 작품의 종자가 수령의 업적, 수령의 사색과 활동에서 탐구되어야 내세운 형상과제도 전적으로 수령에 의해서 실현되면서 수령형상소설문학으로서의 풍격을 원만히 갖추실수 있고 웅당한 철학적무게도 보장할수 있다.

단편소설 《병사의 어머니》에 심어진 장군님은 병사들의 어머니라는 종자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병사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체현된 철학적인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며 단편소설 《승전

비》에서 풍기는 철학적인 향기도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애에서 깊이 탐구된 선군은 애국이라는 형상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작품의 종자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생활계에서 이미 찾았던 생활의 본질을 재생하는 식으로 잡을수도 있고 아직 모르고있던 생활의 본질이 어떤 현상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사색을 깊이하는 과정에 새로 찾아질수도 있다.

이렇든저렇든 수령형상소설문학에서의 종자탐구는 철두철미 수령의 철학사상과 령도업적에 대한 폭넓은 미학적분석, 수령의 사색과 활동에 대한 깊이있는 철학적사색으로 일관되어야 수령형상작품의 핵으로 될수 있는 철학적인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건어칠수 있다.

우의 단편소설들이 이것을 말해주고있다.

×

수령형상소설문학에서의 철학성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심오한 종자를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는데 있다.

문학작품은 사상적의도가 뚜렷하면서도 철학적으로 웅심깊고 생활의 긴 여운을 주어야 가치있는것으로 된다. 이러한 요구는 종자를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 그것이 진실하고 심오한 형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할 때 해결된다. 특히 위인중의 위인인 수령에 의하여 인간문제가 제기되고 풀려나가는 수령형상소설문학에서 철학적인 종자의 예술적가공은 더우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의 단편소설들은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들을 성과적으로 탐구, 발견하였을뿐아니라 다양한 형상수법들을 능란하게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성을 비상히 강화하고있다.

단편소설 《그리운 땅》에서 긍정하게 되는 형상수법은 종자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치밀한 감정조직이다. 소설은 혈육의 정으로 서로 그리워하는 위대한 장군님과 광산사람들사이의 감정적련계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다양한 감정선들을 복종시키면서 시종 박력있는 정서적흐름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에서 주되는 감정선을 이루는것은 광산방송원 채수연의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흐름이다. 우리 장군님을 그리는 채수연의 흐름선은 소설의 시작부터 극적으로 긴장하다. 간밤에 있는 술매령길에 대한 눈치기전투로부터 채수연의 감정선이 급격히 발단된다. 위대한 장군님

게서 며칠째 진행하고계시는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도, 몇해전에도 자강도를 찾아주셨던 장군님께서 언제건 시간이 허락되면 연하광산에 꼭 들려보겠다고 하셨다던 약속, 눈치기전투를 지휘하고 돌아오던 지배인이 광산연혁소개실에 진렬할 사연깊은 강아지완구의 안전이동을 질책하며 《동문… 아침첫 보도를 들었소?》라고 묻던 의미심장한 물음 등등으로 하여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확정적인 기회를 예감하며 숨막히는 걱정으로 몸을 떠는데… 눈이 많이 내린 위험한 령길에 우리 장군님을 모실수 없다고, 설사 떠나오신대도 막아드려야 한다는 지배인의 눈물겨운 웨침은 채수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철없는 생각을 심심히 뉘우치게 한다. 소설은 여기서 채수연이 아침 일곱시보도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도를 마치고 이미 평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과 지배인이 새벽보도로 먼저 그 소식을 알고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더욱 다양한 극적인 감정을 야기시킨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 자책과 실망으로 일단락지었던 감정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루만에 끝내광산을 찾아주신것으로 하여 급격히 양양되기 시작하며 여기서도 연혁소개실에 들려주실것을 가슴타게 소원하는 채수연의 감정선에 또다시 기대—실망—환희의 극적굴곡을 다양하게 줌으로써 소설의 정서적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작품의 강한 형상적여운은 실로 종자의 미학적 요구에 리상적으로 밀착된 감정조직의 덕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의 혈연의 정을 상징하는 강아지완구세부의 발견,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을 간절히 그리면서도 험지로 오시는것은 결사 막아나서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대변한 지배인의 모순된 성격의 탐구 등으로 생활이 있고 철학이 있는 수령형상소설작품창조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병사의 어머니》는 병사들의 진정한 어머니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자못 신중하고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있는 소설이지만 시종 풍만한 생활로 형상적해답을 끌어내고있는 특기를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을 형상한 분량은 작품의 반에 반도 안되게 극히 적다. 집무실에서의 웃놀이장면이 거의 전부이다. 그 나머지 많은 분량은 모두 철경이 어머니의 생활과 귀도 병사들의 생활 그리고 분장마을생활이다. 소설은 이 많은 분량의 다양한 생활속에 종자해명

의 전제를 충분히 깔아주고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으로 초점을 집중시켜 풍만한 생활정서속에 제시한 형상과제가 웅심깊게 풀려나오도록 하였다. 소설의 구성이 매우 특색있고 묘사가 시의 서정으로 채색되어 진한 정서적향기를 풍기는것 등은 다 종자의 형상적요구에 충실한 결과의 산물이다.

종자의 요구에 충실한 특색있는 구성은 단편소설 《12월과 12월》에서도 볼수있다. 벌써 대비의 형상생리를 암시하는 제목 그대로 소설은 대비의 정연한 구성을 짜고있다. 시대와 시대, 위인과 위인, 정신과 정신… 그리고 자주와 굴종, 자립과 예속, 공감과 배격…

이 비례의 대비적구성의 형상적효과는 참으로 놀라운것이다. 여기서 소설의 골격을 이루고있는 정비례의 대비는 두 시대에 걸쳐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힘있게 확증하면서 변함없이 즐기치게 이어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로정을 금지높이 시위하고있다. 하면서도 철저히 오늘의 시점을 살리는 구성적대를 세움으로써 현대성의 견지에서 혁명적수령관의 철학이 풀려나오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확실히 구성에서의 형상적기교는 수령형상소설문학의 예술성을 풍부히 하고 철학성을 강화하는데서 그 어느 분야보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심고리의 하나이라는것을 단편소설 《승전비》에서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첫시작부터 정문부의병대의 왜적격멸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있다. 하여 독자는 역사적감각의 긴장속에 소설의 형상세계에 인차 뛰어들게 되며 그로부터 시작된 정서적여운의 물결을 타고 이야기의 진행정을 단숨에 헤쳐가게 된다. 비록 범상치 스틸 측면이지만 그것이 종자해명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키려는 작가적노력의 산물이기 에 귀중한것이다.

수령형상소설문학을 최상의 형상수준에 올려세우려는 우리 작가들의 노력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상기 작품들에서 얼핏 본것처럼 나날이 성과가 이룩되고 경험이 창조되고있다.

하지만 인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는 낮아지지 않는다. 세월이 흐를수록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은 더욱더 빛나고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대를 이어 끝까지 한길을 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더욱 굳어지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까지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자.

탄생일의 상에 오른 합숙밥

생일은 누구에게나 뜻깊은 날이어서 사람들은 이날을 기쁘게 맞고 보낸다.

그러나 자신의 탄생일마저도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맞고 보내시는 위대한분이 계시거니 그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주체75(1986)년 2월 16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계기로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담아 경축연회를 조직하여 그이께 삼가 인사를 올릴것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었다. 처음에는 엄한 책망으로 막으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일군들이 절절히 청을 드리자 내가 생일을 쇠지 않는다는거야 동무들이 알지 않습니까, 동무들은 생일날에는 누구나 다 생일상을 받는다는것으로 나를 설복하려고 하는데 나는 집에서도 생일상을 모릅시다라고 간곡히 타이르는것이였다. 하여 그날 일군들은 끝내 경애하는 장군님께 탄생일을 경축하는 연회를 차려드리지 못하였다.

그 이튿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과 담화를 나누시다가 전날, 탄생일 저녁에 있는 사실을 여담삼아 들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실 집에서도 생일상 걱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공연한 걱정을 한다고 나무람을 했다시며 집안사람들끼리 둘러앉을 상인데 밥이면 됐지 뭘 특별히 차릴게 있는가고 하셨다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집에서 하는 밥은 늘 먹는것이니 밥은 자신께서 따로 말겠다고, 그래서 합숙밥을 가져오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합숙밥맛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알아보자고 했는데 마침 검사검사해서 합숙밥을 가져다 먹어봤다고, 결국 그러고보니 올해 생일상은 합숙생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받은셈이라고 하시면서 환히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탄생일의 상에 오른 합숙밥.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검박한 생활을 하시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특전도, 특혜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인품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가사

초소소식 고향소식

김정삼

사과꽃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
초소에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꿈에도 그림던 고향의 소식
따뜻이 병사에게 전해주셨네
아 장군님 다녀오신 전변의 고향
병사는 감격속에 뜨거이 안아보네

양어못 아담한 선경의 마을
또다시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
병사의 어머니를 만나주시며

공세운 아들소식 전해주셨네
아 장군님 다녀오신 최전연초소
어머니는 감격속에 아들을 안아보네

초소와 고향소식 꽃을 피우며
장군님 전선길을 이어가시네
그 소식 일당백 용맹을 날고
조국은 행복의 노래부르네
아 장군님 걸으시는 전선길우에
초소소식 고향소식 전설로 이어지네

흰눈세계



김혜영

1

류레없는 폭설이었다.

양력설 아침부터 맹렬한 속도로 퍼붓기 시작한 함박눈은 런 사흘째 조금도 기세를 늦출줄 몰랐다. 이 땅의 모든것을 눈속에 영영 파묻어버릴듯 줄기차게 내리고 또 내렸다. 어느덧 무릎을 넘게 쌓인 눈에 한걸음도 내딛기 어려웠고 자욱한 눈발에 지척도 분간할수 없었다.

세상은 오직 하나 은빛눈의 세계였다.

이 시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고 계시었다.

당중앙위원회 박창규부부장은 흑한속을 걸으시는 장군님을 눈물겹게 우러르며 이틀전 설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이께서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였다.

《동무들이 지난해에 나를 따라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올해에도 나와 함께 힘겨운 강행군길을 더 많이 달려야 하겠소.》

하지만...

설인사를 받으시는 그길로 북방천리 폭설의 바다에 나서시였을 때 수행원들은 누구나 아찔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걸음걸음 생명을 내대야 하는 그 천리길을 헤쳐온 몇시간은 박창규에게 있어서 순간순간이 천년맛잡이로 여겨지는 운명적인 분과 초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수행원들을 더욱 놀래운것은 언제건설장을 다 돌아보시고난 저녁에 장군님께서 야전차에 오르시며 하신 말씀이었다.

《어서 떠납시다. 아침까지 재령광산에 도착해야겠소.》

《에?!》

박창규는 금시 심장이 얼어붙는듯 했다. 이 밤중에 재령이라니? 간고하게 헤쳐온 천리길을 휴식도 없이 되돌아가신단 말인가?

울음같은것이 울컥 솟구쳐 목을 짝 메웠다.

저도 모르게 한걸음 나서며 절절하게 간청드렸다.

《장군님! 위험한 길을 밤중에...》

수행원들의 눈에도 간절한 념원의 눈물이 번쩍이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한손으로 내리그으시며 명쾌하게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좋소? 마치도 백두산천지에서 눈보라를 맞는것 같은게... 천군만마가 달리는듯 장쾌하지 않소? 자, 우리도 어서 달려봅시다!》

야전차들은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어둠, 눈보라, 끝없이 쏟아지는 눈, 길없는 생논의 바다...

아, 이런 날, 이런 밤 어찌하여 장군님께선 희천에 이어 재령땅을 찾으시는것인가?

박창규의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추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지난해 3월 중순이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뒤를 이어 강철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즉시로 그곳을 찾으시였었다.

전력과 내화물을 많이 절약하면서도 비할바없이 높아질 강철생산량, 그대신 제철소에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철광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게 된것이였다.

평양으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박창규와 내

각의 해당 일군을 부르시여 재령광산의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의 후과로기본갱인 승리광구가 백수십메타이상 침수되어 생산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 보고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무거운 생각에 잠기시였다.

《오랜 력사와 많은 매장량을 가진 재령광산이 아직 고난의 흔적을 털지 못하고있단 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가슴아프신 어조로 뇌이시더니 이윽고 박창규를 돌아보시였다.

《뒤편이해도 전망이 큰 재령광산을 살려야겠소.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우선 침수된 갱부터 건져야겠는데...》

그래, 승리광구의 현재 물량이 얼마라구?》

그이의 시선이 이번엔 내각일군에게로 향하시였다.

《84만립방입니다.》

《걸리고있는 문제는 뭐요?》

《전력과 배수설비 그리고 시간당 350~400립방의 속도로 계속 솟구쳐나오는 지하수입니다.》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총동원하면 그 물을 다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 같소?》

내각일군은 그런 경우를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는지 일순 당황해하는 표정이였다.

《한번 정확히 계산해보요.》

장군님께서 이르시자 그는 얼른 전자수산기를 꺼내들었다.

잠시후 두달이라는 답이 나왔다.

《두달?... 두달이란 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방안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돌연 머리를 저으시였다.

《너무 늦어. 더 앞당길 방도가 없을가?》 내각일군은 고개만 무겁게 숙이였다.

박창규도 안타까와 입술만 깨물었다.

숨가쁜 침묵의 몇순간이 흘렀다.

《중소, 래일 현지에 나가 토론해봅시다.》

그 이튿날 장군님을 모신 야전차행렬은 남쪽을 향해 질주하다가 재령광산쪽으로 꺾어들어갔다.

정문에서 대기하고있던 광산일군들이 감격에 넘쳐 장군님을 맞이하였다.

《재령광산 지배인 리남천입니다!》

《당비서 김용석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 일군의 모습을 눈여겨보시였다. 첫눈에 둘다 키들이 늘씬하고 나이도 엇비슷해보이는데 지배인이 쇠돌빛얼굴에 고수머리가 인상적이라면 당비서는 무용수같은 체격에 녀성적인 이목구비가 특징적이였다.

《수고들 하누만.》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나서 채

굴장전경도로 다가가시였다.

리남천지배인이 광산의 연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해드렸다.

《채광막장에 물이 가득 찼는데 생산을 어떻게 하오?》

《옛, 저희들은 현재 물이 찬 옷부분을 소갱돌과 하여 광석을 캐내고있습니다. 온 광산이 떨쳐나 소부대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쟁쟁 울리는 탁성에 억양심한 북방말씨...

쩍 벌어진 어깨와 안경속의 크고 역실역실한 눈이며 우뚝한 코날 등에서 50전 사나이의 드센 완력이 느껴진다. 저으기 호감이 가졌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저으시였다.

《지배인동문 그제 마치도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리남천은 금시 어쭙은 인상이 되어 곁에 선 당비서쪽을 흘깃 돌아보았다. 섬세하면서 다감한 지성미가 느껴지는 김용석의 얼굴에도 당황한 빛이 어렸다.

잠시후 일행은 승리광구가 한눈에 안겨오는 전망대에 이르렀다.

그것은 광구라기보다 하나의 큰 호수였다.

박창규는 놀랐다.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엄청난 규모의 호수를 보게 될줄은 몰랐었다.

둘레로는 지배인이 말하던 소갱아구리들이 무수히 뿔려있었다. 거대한 호수의 면적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개미굴이라고나 할수 있었다.

아득한 생각에 누구나 입이 벌어불고말았다.

《호수에 물고기가 많겠구만.》

긴장한 분위기를 농쳐주시려는듯 장군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였다. 김용석이 대답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광산이라 하지 말고 양어장이라고 하지, 응?》

해학이 섞인 말씀이었으나 누구도 웃을념을 하지 못했다.

《그래, 지배인! 어떻게 하겠소?》

《없애버리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의도를 제격 알아차린 리남천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였다.

《흠소. 물을 퍼내고 대부대전으로 쇠돌을 캐내야 하오. 그래 이제부터 필요한 전력과 설비를 총집중해준다면 이 물을 다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 같소?》

순간 박창규는 긴장해졌다. 곁에 선 내각일군을 돌아보는데 그의 눈길도 동시에 마주 날아왔다. 지배인의 입에서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것인가?

모름지기 이 거창한 호수를 통채로 들어낼 엄두는 꿈에도 내보지 못했으리라.

한초한초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리남천은 두눈을 내려뜨고 아래입술을 짓개문채 혼자생각에 몰두해있었다.

창규는 손에 땀을 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속에선 기대와 불안이 널뛰듯 했다.

헌데 계산시간이 너무 오랜것 같다. 계산이 잘 안되어서일가? 계산이 되었지만 대답하기 주저되어 망설이는것일가?

불안과 초조감에 속이 바짝바짝 타든다.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장군님의 안색을 우려러보았다. 놀랍게도 그이의 얼굴에는 다른 기색이 조금도 어려있지 않았다. 충분히 타산하고 대답하기를 바라시며 언제까지고 그렇게 기다려주실 진지한 표정이시였다.

드디어 남천이 계산을 끝냈는지 줄곧 내려깔고 있던 두눈을 쳐들었다. 김용석당비서를 피뚝 마주보고 다시 돌리는 순간 안경알이 번쩍 빛을 뿜었다.

《장군님! 한달이면 풀수 있습니다!》

《한달?!》

장군님의 놀라우신 반문과 동시에 모두가 입을 딱 벌렸다.

박창규는 이 순간 둔중한 쇠방망이에 머리를 얻어맞은듯 멍해왔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오산을 해도 정도가 있지 실현불가능한 대답을 드러놓고 나중엔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내각일군도 아연실색하여 리남천지배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혹시 그의 계산능력을 의심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사색의 여유를 주시려는듯 되물으시였다.

《모든것을 정확히 타산해보았소? 정말 한달이면 될가?》

《그렇습니다, 장군님!》

주위에서 비발치는 경악의 눈빛들엔 아랑곳없이 리남천은 배심만만하게 대답을 드렸다.

《그래, 전력과 설비, 로력, 그다음엔 또 무슨 타산이 있소?》

《장군님! 객관적조건으로는 최소한 두달이 걸리지만 장군님의 믿음과 우리 광부들의 정신력으로 계산하면 한달로 단축할수 있습니다.》

순간 장군님의 안광에 해빛같은 미소가 환히 피어났다. 일군들을 돌아보며 환성을 올리듯 물으시였다.

《어떻소? 한달에 푸면 괜찮지, 응?》 《!》

박창규는 목이 짹 메여 젖어드는 눈만 습벅이

였다. 진정 얼마나 바라시던 대답이었으면...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흥분되신 어조로 리남천에게 재차 물으시였다.

《정말 한달동안 푸겠다고 했소.

참, 이런 일은 딱소리나게 약속을 해둬야지 안소?》

《예, 장군님! 약속합니다!》

리남천이 씨원스럽게 대답올리자 장군님께서는 《좋아.》하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래일부터 한달이면 4월 23일! 맞소?》

《예... 맞습니다!》

아마 지배인은 3월의 마지막 일주일을 여분으로 타산했을것이다. 창규자신도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달을 4월 한달로 생각했던것이다. 달이 아니라 분초를 쪼개시는 장군님의 시간관념을 미처 따르지 못한 실책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내각일군을 부르시였다.

《이 시각부터 재령광산에서 정전되는 일이 없어야겠소.》

《알았습니다.》

분위기는 자연히 엄숙해졌다.

장군님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선언조로 말씀하시였다.

《재령광산의 물을 한달동안 다 푸라는것은 내가 재령광산과 내각에 주는 전투명령이요!》

박창규는 이름할수 없는 격동과 짜릿한 흥분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

장군님께서는 유쾌하신 어조로 이제는 어디를 또 보여줄텐가고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죄스러운 어조로 떠듬거렸다.

《저... 아직은... 장군님께서 후에 다시한번 와 주신다면 그때는 정말...》

《좋소, 한달동안 물만 다 퍼내오. 그럼 내 꼭 다시 오겠소.》

《야!》

리남천은 어린애마냥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내며 싱글벙글했다. 티없는 웃음이었다.

장군님께서는 기꺼이 머리를 끄덕여주시고나서 남천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치시였다.

《그대신 물을 못 푸면... 그걸 내놔야 해!》

《걱정마십시오. 제가 아무렴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남천이 기고만장해하자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하하... 이것 봐라. 배짱이 맞아!》

박창규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사이에만 나눌수 있는 정이고 믿음인것이다. ...

차에 오르시려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생각나신 듯 물으시였다.

《참, 여기 연혁소개실이야 있겠지?》

그이께서 어느 한곳이라도 더 보아주고싶어하시는데 이런 난사가 어디 있으랴. 연혁소개실이 대보수중이어서 볼수 없게 되였다는것이다.

《그럼 다음번에 봐야겠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래도 그냥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신듯 다시금 멈춰서시였다.

《가만, 연혁소개실 간판은 있지 않소?》

《예, 있습니다. ...》

《그럼 됐소. 그앞에 가서 우리 사진이나 한장 남기지요.》

모두가 깜짝 놀랐다. 정말 천만뜻밖이었다. 그 무슨 자랑을 안고 맞이한것도 아니요, 광부로서 응당 할 일도 못하여 걱정만 없어드렸는데 사진이라니? 이런 일도있단 말인가!

예상밖의 행운인지라 지배인과 당비서는 전할 정도로 감격하였다.

사진을 찍고나자 그이께서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왜 오늘 동무들과 연혁소개실앞에서 사진을 찍었는가? 동무들이 이 광산의 역사를 지키고 빛내이는 참다운 주인이 되라는거요!》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두 일군은 눈물을 머금고 목메여 대답올렸다.

차가 광산구내를 벗어났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는것이였다.

《지배인이 참 이악하게 생겼어. 한달동안 꼭 해낼거야!》

순간 박창규의 가슴속으로 불덩이같은것이 건달수 없게 치밀어올랐다. 그의 눈엔 어느덧 뜨거운것이 샘솟아올랐다.

그후 박창규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내각 일군과 함께 한달동안 재령광산에 파견되였었다.

2

야전차들은 깊은 밤 눈보라길을 달리고있었다. 주먹만 한 눈이 휘휘 차창으로 날아들어 얼음버께를 짓는다. 시창닭개가 부지런히 반원을 그린다.

라디오에서는 10년래의 최저기온에 최대폭설임

을 거듭 경고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였다. 오히려 심신이 상쾌해짐을 느끼시였다.

좋다! 혹한도 폭설도 다 새해농사를 돕기 위해 자연이 베푸는 혜택이 아니겠는가. 이야말로 우연이면서 우연이 아닌, 인민생활향상에 총공세를 호소한 우리 당의 의지에 하늘도 뜻을 합친것일가.

올해가 과연 어떤 해인가? 당창건 65돐, 조국해방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정녕 변을 내도 큰 변을 내야 할 력사적인 해의 첫시작이 어찌 범상하고 레사로울수 있으랴.

흰눈의 계절에 눈덮인 백두밀영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흰눈을 사랑하신 그이이시였다.

순결함과 청신함의 결정체인 흰눈! 그이께 있어서 흰눈은 언제나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간 마음의 대명사이기도 하였다. 가식과 위선을 모르고 거짓과 사심이 없는 깨끗한 인간만이 역경속에서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투철한 용사가 될수 있음은 력사가 주는 진리이다.

그렇듯 정갈하고 고요하다가도 일단 바람이 불면 사나운 갈기를 일으키며 용용한 눈보라가 되기도 하는 흰눈!

온 세상을 폭풍쳐내닫는 그 격렬함, 그 장쾌함, 역세인 그 기개를 장군님께서선 사랑하신다.

이제 만나게 될 재령의 광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지없이 순박하다가도 일단 전투명령을 받으면 폭풍쳐일어나 무섭게 내달릴줄 아는 순결하고 용감한 사람들!

그이께서 이밤 눈내리는 령길을 주저없이 넘어 재령으로 달리시는것도 바로 그들에게 자신의 순결하고 열렬한 진정을 아낌없이 깡그리 바치시고 싶은 뜨거운 충동에서였다.

...최소한 두달은 걸려야 한다던 채광장의 물푸기를 단 한달동안에 끝내겠다고 한 리남천지배인의 대답은 얼마나 큰힘으로 되었던가?

사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한달후부터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150일전투를 시작할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하고계시였다. 그러자면 인민경제선행부문에서도 첫째인 채굴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켜세워야만 하였고 이 한달내에 150일전투에 진입할 준비가 완결되어야 했던것이다.

그이의 마음속에서 한달이라는 시간표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준 지배인이 더없이 고마우셨고 그 배짱과 담력이 더우기 마음에 드시였다.

믿음이 클수록 도와주고 떠밀어주고싶은 마음

도 크시였다.

재령광산에 1초도 정전시키지 말데 대하여 강조하신 그이께서 광산을 떠나신길로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것은 전기와 운명적으로 련결되어있는 광산의 앞날을 위해서였다. 그다음엔 또 배수설비를 해결해주시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었다.

한편 도당의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였다.

《재령광부들이 막장에서 결사전을 벌린다는데 그동안 도적으로 달라붙어 살림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진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삼지강마을에 못지 않은 훌륭한 선경마을을 안겨줍시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셨던것이다.

약속날자를 며칠 앞둔 때 예견치 않았던 무더기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려움에 처한 광산의 정경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룰수 없으시였다.

광부들이 이 극한점을 어떻게 넘기겠는지…

믿음과 걱정속에 4월 23일은 밝아왔다.

광산에 내려갔던 박창규부부장이 흥분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장군님! 재령광산에서 드디어… 물을… 다 퍼냈습니다. 이젠 정말… 기적입니다!》

걱정에 목이 메여 말도 잘 번지지 못하는 그의 두눈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래! 그 동무들이 끝내 해냈구만!》

장군님께서도 솟구치는 기쁨의 걱정을 억제할수 없으시였다.

박창규는 서둘러 가지고온 서류가방안에서 록화테프를 꺼내드리었다.

《장군님, 재령광산에서 한달동안의 물푸기전투과정을 기록한것입니다.》

《잘했소. 어디 우리 함께 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록화기를 가동시키시고나서 박창규와 나란히 쏘파에 앉으시였다.

화면이 전개되자 제명이 새겨졌다.

《장군님 믿음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의 내용이 붉은바탕에 새겨지고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여! 이 땅에 쇠돌이 생겨 수수천년, 광산이 생겨 수백년… 언제 어느때 한 나라의 령도자가 자그마한 광산막장에까지 내려와 전투명령을 하달하신 일이 있었던가!》

명령관철을 위해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투쟁장면이 펼쳐진다.

3월 23일 현재 물량 84만립방메터, 배수뿔프증설과 전기시설 보강, 시간당 배수량 800~1 200립방메터.

이 정도로는 도저히 될수 없어 찾은 방도—배관이설공사시간 단축! 이를 위한 조립식이설공법과 전진식이설공법의 창안도입.

그리하여 뿔프이설시간 24시간으로부터 2시간으로!

낮과 밤의 계선이 없어진 광산이 불도가니마냥 끓는다. 무선전화기를 들고 현장지휘를 하는 지배인과 화선식선동을 벌리는 당비서,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물줄기와 용접의 불보라, 후방사업을 하는 가족들과 주변인민들, 이동리발사들…

한메터, 두메터 소리치며 물이 줄어든다.

이렇게 날이 흘러 4월 20일, 막장바닥이 거의 드러나게 되었다.

《승리가 보인다!》, 《총돌격 앞으로!》

기세충천하여 마감전투를 다그치는데 뜻하지 않았던 시련과 난관이 막아선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줄기 비줄기… 전동기의 과부하 사고, 전진도상에 있던 기계설비들이 감탕속에 묻혀들어가고 시뻔건 탕수가 한치한치 높아간다.

27일간 피땀으로 건져낸 광구를 한순간에 또다시 물바다속에 잠그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시각, 처절한 결전의 마당에 기관총사격음과도 같은 김용석당비서의 빠른 고음이 울린다.

《동무들! 장군님과 약속한 그날까지 3일이 남았소.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우린 영영 장군님의 믿음을 저버린 인간이 되고맙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엔 죽을수도 없소. 우리에게엔 오직 한몸이 열백번 부서져도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할 한길만이 있을뿐이요!

모두다 심장에 피가 뛰는 한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한다는 결사의 의지로 펼쳐일어납시다!》

절망에 쓰러졌던 사람들이 어깨결고 일어난다. 련이어 틀어진 마이크에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는 리남천.

《동무들! 이만한 난관에 주저한다면 우리가 무슨 재령의 광부이겠는가?

잊지 말자! 지금 이 시각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창에 야전차를 미시며 폭우강행군을 하고계신다는것을! 장군님께서 재령광산이 울리는 충정의 보고를 기다리고 계신다! 동무들, 나를 따라 앞으로!》

꼭 쉬어버린 탁성으로 목터지게 웨치고난 지배인이 맨먼저 바깥쪽을 들고 감탕물속으로 뛰어들자 노도처럼 와— 밀려드는 사람들, 이에 호응하여 가정에서, 마을에서 손에손에 바깥쪽을 들고

떨쳐나선 로병들과 가두너맹원들... 온몸이 감탕 투성이 되어 물을 퍼낸다.

하늘에서, 땅에서 쏟아지고 솟구치며 불가항력적으로 불어나는 물, 그것을 몰아내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싸움, 말그대로 자연과 인간의 치열한 대결전이다.

한편 비속에서 감전되어 작업을 중지당했던 용접공들이 머리우에 비닐박막으로 가림막을 펼치고 배관조립의 불꽃을 황황 날린다.

식당으로 가는 시간조차 아까와 후방차에 실어온 식사를 전투현장에 선채로 비물에 말아먹는 전투원들의 모습...

그 언제 비가 멎었던가, 다시 줄어드는 물.

드디어 4월 22일 막장의 물을 말끔히 퍼내고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광부들! 승리의 이 순간을 굳이 믿어 가슴속에 간직했던 공화국기와 붉은기를 손에손에 높이 들어 휘날리는 그들의 얼굴마다 행복의 눈물이 줄기진다. 그것은 마치도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고지마다 기발을 휘날리며 만세를 부르던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그들의 기쁨을 축하하듯 하단막장에서 자라던 세루의 복숭아나무에 4월의 첫꽃이 피었다.

목화물은 한달동안 집에 들어가보지 못한 광부들이 그사이 장군님께서 새롭게 변모시켜주신 선경마을에서 자기 집을 못 알아보았다는 감격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화면이 꺼진지 한동안이 지나도록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장군님의 안광을 우러르던 박창규의 가슴이 찢르르 울렸다. 그이의 눈가에 축축히 물기가 어려있었던것이다.

창규는 급기야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눈물에 목이 잠겨 아무 말씀도 하실수 없었다. 무어라 말하랴,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불물처럼 뜨겁게 가슴을 채울뿐...고마움, 광부들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 이런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자신에 대한 행복감, 뿌듯한 희열...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불쑥 일어서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온갖 꽃이 만발한 4월의 봄풍경이다.

허나 그이의 눈앞에는 방금 보신 화면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불편이 끼치고 눈확이 더 깊어진 지배인, 입술이 부르트고 눈에 충혈이 진 당비서.

난관의 극한점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서 웨치던 그들의 피타는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온다.

《내가 잘못보지 않았어. 리남천이, 김용석이!》

장군님께서서는 혼자말씀으로 뇌이시고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신다.

《확실히 광산이 주인을 잘 만난것 같애. 어찌면 두 일군이 성격도 기질도 꼭 같거든.》

《장군님, 리남천지배인에게는 자기 경력을 말할때 즐겨 꼽군 하는 3대자랑이 있습니다.》

창규의 말에 장군님께서서는 호기심이 동하시였다.

《3대자랑?》

《예, 첫째는 고향이 장군님 고향인 백두산과 가까운 곳이라는것, 둘째는 소년시절을 김형권군에서 보냈다는것, 셋째는 어머님고향인 함북도에 있는 광산금속대학을 나왔다는것입니다.》

《하하하... 그 교수머리가 정말 피짜요.》

장군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다가 당비서에겐 또 어떤 자랑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동무한텐 자랑이라기보다... 저... 담배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데...》

창규가 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장군님께서서는 어서 말해보라고 독촉하시였다. 어떤 얘기는 기꺼이 들어주고싶은 심정이시였다.

평양이 고향인 김용석은 군대에서 제대되어 배천광산으로 탄원했는데 거기서 광부로부터 한계단한계단 성장하여 10년전에 이곳 광산에 당비서로 배치되어왔다. 일화는 바로 부임 첫날 광산을 돌아보다 로천의 휴식장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광부들과 부임인사를 하고 허물없이 담배를 나누어 피우던 그는 한 로동자가 잡지에 실린 자료를 보는것을 같이 들여다보게 되였다.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글인것이다.

그 로동자가 다 본 다음 잡지를 다시 보고난 김용석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독보를 하였다.

《담배가 나쁘다면 고질인 나부터 먼저 끊어야겠군. ...》하고는 피워물었던 담배대를 훌 집어던졌다는것이였다. 거기에 앉아있던 모두가 괜한 소리일거라고 우습게 여겼는데 그는 광부들앞에서 한 말을 계기로 정말 칼로 두부모 자르듯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어버렸다는것이였다. ...

《음, 쉽지 않은 사람이요. 그쯤들 되니까 이번 일도 해낼수 있을거지.》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다가 흥겨운 마음으로 자리를 일으키시였다.

《그들이 나와 한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일력을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 문득 놀라시였다.

《이제 며칠 안있으면 5.1절이로구만. ... 5.1절 ... 그때 재령에 가서 명절을 함께 쇠면서 축하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뇌이시는 장군님의 눈앞에는 가보고싶고 만나고싶은 온 나라 로동계급의 모습이 줄지어 떠오르시었다.

초고전력전기로를 일떠세운 강선과 황철의 로동계급도 모두 축하해주고싶으시었다.

그리움을 달래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흥분하여 돌아서시었다.

《부부장동무, 우리가 재령광산으로 내려가는것보다 그곳 광부들을 평양에 올려다 5.1절경축연회를 크게 차려주는게 어떻겠소?》

《예? 광부들을... 평양으로 말입니까?!》

창규는 너무도 뜻밖의 말솜에 미처 대답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그렇소. 재령광산뿐아니라 은률과 황철, 안주, 강선의 로동계급도 다 평양으로 불러다 연회상도 크게 차려주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도 함께 보면서 5.1절을 즐겁게 쇠여보자는거요.

명절밤에는 온 나라 로동계급을 축하하는 축포야회도 성대하게 조직하고... 며칠간 평양시내를 구경시킨 다음 돌아갈 때는 가족들에게 안겨줄 선물도 듬뿍듬뿍 보내줍시다, 어떻소?》 박창규는 세찬 격정에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킬수 없었다. 세상에 5.1절이라는 명절이 생겨 언제 이렇듯 환희로운 경축으로 로동계급을 영광의 단상에 떠올려세운적 있었던가.

크나큰 희열과 행복감으로 창규의 심장은 터질듯이 뛴뛰었다.

《장군님! 재령의 광부들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창규는 눈물에 목이 잠겨 가까스로 뇌이였다.

그리하여 태양절축포야회가 있는지 보름만에 또다시 성대한 규모의 축포야회 《우리는 승리하리라!》가 평양의 하늘에 펼쳐지게 되었고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각지 로동계급 수천명이 여기에 직접 참가하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전설적이야기가 태어나게 되었다.

부르릉... 부르릉...

용을 쓰는 승용차의 동음에 장군님께서는 추억에서 깨어나시었다. 차가 가파로운 령길을 숨차게 툭아오르고있었다. 경사가 급하고 구배가 심한데다 차바퀴가 묻히도록 슷눈이 깔리어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공회전을 했다.

《아무래도 내려서 좀 밀고 올라가야겠구만.》

장군님께서는 혼연히 말씀하시며 차에서 내리시었다. 이런 고비를 수없이 넘고넘으신 그이이시었다.

하지만 장군님과 함께 차를 밀고오르는 박창규

의 가슴은 터져나가는듯 아팠다.

아, 언제면 우리 장군님께서 이런 길을 걷지 않으시게 될가?

언제면?

과연 언제면?

3

리남천은 저녁을 먹다말고 깜짝 놀라 수저를 떨어버렸다. 텔레비존에서 장군님의 희천현지지도소식이 보도되는 순간이였다. 희천이란 말이 번개치듯 재령으로 련쇄되면서 견잡을수 없게 심장이 뛰었다.

보도가 끝나자 그는 무작정 자리를 차고나와 광산쪽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무엇때문에 이러는지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이 한해사이에 저도 모르게 체질화된 본능이었던가? 쌓이고쌓여온 그리움의 분출이었던가?

아니, 지금 그의 심정은 그렇게만 설명될수 없었다. 그리움에 앞서, 감격에 앞서 놀라움을 초월한 심정이였다.

오늘일만 해도 그렇다. 하루종일 백여리가 넘는 큰 도로의 눈을 쳐내면서도 지나다니는 자동차 한대 볼수 없었던 그였다. 자동차는커녕 사람의 그림자도 보기 힘들었다. 그자신도 가까이에 계획했던 출장을 포기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이 나라의 운명이신 그이께서 어찌면 이렇게도 무리하신단 말인가?

따갑게 두볼을 지지는 눈물을 흘리며 정문안으로 들어서던 그는 멀리에서 전지불을 비치며 나오는 후리후리한 사람의 형체를 보고 김용석임을 알아보았다.

《지배인동무요?》

《보도 들었소?》

리남천은 동문서답격으로 물었다.

《듣지 았구. 난 심장이 다 멎는줄 알았소. 희천소리가 재령으루 들리더란 말이요.》

《나도 처음엔 그런 예감이 번쩍 들더구만. 전번에도 재령 다음에 희천 가시지 았았소? 그때처럼 래일도 월요일이구.》

《지배인동무, 그거야... 장군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구 하신 약속이야 이미 지난 5.1절날 지켜주시지 았았소?》

《내 말이 그 말이랴구. 장군님께서 이 험한 날 희천까지 가신것만두 가슴 떨리는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시길 바란단 말이요?》

세상에 무더위강행군, 폭우강행군도 힘이 들지

만 생능길강행군의 위험성에야 대비가 되는가?》

리남천은 울컥해서 부르짖는데 눈물이 또 글썽 차오른다.

김용석도 평소의 그 답지 않게 갈린 저음으로 뇌어였다.

《장군님께선 지난해에도 제일 추운 소한때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도하시지 않았소?》

《그러구보니 백두산시절부터 오늘까지 장군님께선 언제나 추위와 눈보라길을 맞받아갔지요.》

《그래서 백두산형의 장군이시고 빨찌산식강행군이 아니겠소?》

두사람은 잠시 뜨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래일은 또 어디로 가시는지… 제발 날씨가 풀려야겠는데…》

남천은 얼어드는 귀뿌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리다가 《자, 그럼 난 막장에 가보겠소.》하고 먼저 걸음을 떼었다. 김용석도 자기가 맡은 구간을 돌아보기 위해 체육관과 광부원이 있는 옆길로 꺾어들었다. 밤마다 광산구내를 돌아보는것은 그들의 어김없는 일과였다.

어느덧 남천은 승리광구에 이르렀다. 언제나처럼 배수중대앞마당에 세워져있는 착정기에서 보내주신 최신형채굴설비였다.

대형화물차 너대를 합친것만 한 거물급기계인데 새파란 결면이 유리알처럼 알뜰거린다. 하루종일 걸려야 하던 발파구멍 10메터를 단 20분만에 뚫어제끼는 성능이 높은 기계이다.

그날 10여대의 대형화물차에 석대의 착정기설비를 나누어싣고 내려왔던 박창규부부장은 영문을 몰라하는 광산일꾼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연을 전해주었다.

얼마전 그를 전화로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새롭게 나온 현대적인채굴설비를 재령광산에 제일먼저 보내줄데 대한 파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는것이다.

《재령광산의 광부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소. 그만한 담력과 배짱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채굴설비까지 안겨준다면 얼마나 큰힘을 내겠소?》

재령광산이 이제는 생산정상화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으니 날개를 활짝 펴고 날수 있게 비약의 룡마에 태워주자는거요!》…

리남천은 북받치는 오열을 참을길 없어 자동차의 차체를 쓸어안으며 부르짖었다.

《장군님! 숨죽였던 광산을 살려주신것만도 고마운데… 그 사랑에 미처 보답도 하기 전에 이런 은정을 또 베풀어주신단 말입니까?》

장군님! 으흑…》

둘러섰던 사람들도 눈굽을 적시며 어깨를 들먹이였다. 삽시에 온 마당이 눈물의 바다, 걱정的大海가 되어버렸다.

4일만에 조립하여 첫 시운전을 할 때의 감격은 또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통나무만 한 정대가 암반을 뚫고 쭉쭉 박혀들어갈 때의 그 광경! 눈뜨고도 믿어지지 않는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였고 그 신기함을 표현할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 안타깝기까지 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저 입이 터진 팔자루가 되어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돌아갔다. 글썽 24시간 뚫던 구멍을 2시간도 아닌 20분만에 뚫어제끼지, 별의별 고생을 다하며 몇달 걸려야 하던 발파준비를 단 하루사이에 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호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힘들고 품을 많이 들여야 하는 곳으로 알려졌던 광산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였다. 이제부터 광부들의 로동은 그대로 흥이 되고 멋이 될게다.

그때부터 리남천은 착정기와 함께 밤낮 현장에서 살았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보답할수 있을가 하는 열망뿐이었다.

그 과정에 비싼 자금을 들여야 하는 착정기부분품들, 특히 원동기와 정대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 교체할수 없을가 하는 불같은 의욕이 솟구쳐 광산의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탐구와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밤도 그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그 사랑에 보답할 불타는 열망을 안고 열심히 기계를 닦으며 그 상태를 살펴보는것이다.

운전공과 함께 운전조작시험을 해보고 이상없음을 확인한 그는 피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물었다.

《참, 착정기로 땅을 뚫을 때 처음엔 먼지가 일겠지?》

《그야 물론…》

《아무래도 발파구멍을 3메터가량 먼저 파놓아야겠소.》

《왜 말입니까?》

운전공이 의아해하자 리남천은 버럭 성을 냈다.

《왜라니? 이 지배인의 속생각을 동무한테 다터놓을수야 없지 않아.》

두사람은 야외등을 켜놓고 먼지가 안날 때까지 선행작업을 해놓았다. 그다음 주변마당을 티 한점없이 쓸어내고서야 리남천은 다른 곳들을 돌아보았다.

휴계실로 돌아왔을 때는 어느덧 새벽 1시였다.

책상을 마주앉아 주섬주섬 담배를 붙여물던 리남천은 밀려드는 졸음에 못이겨 그 자리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잠이 들었겠을까. 꿈결에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우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드르릉드르릉 창문을 흔들며 지동치듯 바람부는 소리였다. 새벽 2시가 좀 지난때였다.

창문을 열어보는데 바람에 휘뿌려지는 눈송이들이 두눈을 찌르며 날아들었다.

(젠장, 또 눈이 오는구나. 이거 정말 하늘이 꺾었나?)

리남천은 눈치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벌써 눈이 하얗게 마당을 덮었는데 이리저리 눈가루가 휘몰아친다.

(콩크리트도로에 눈이 깔리면 차들이 위험할텐데...)

그는 장군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열어나가는 심정으로 눈을 쳐나갔다. 쇠기둥같은 팔뚝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억척같이 눈치개를 밀고달리는 그의 얼굴엔 구슬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전망대에 이르러 허리를 펴보니 광구길은 물론 사무청사쪽으로 향한 큰길에도 어느새 군데군데 자동차전조등빛이 환히 켜지고 눈을 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끓는다. 김용석당비서의 지휘하에 밤에도 눈만 오면 이렇게 펼쳐나서는것이 광산사람들의 체질화된 생활이었다.

100여리에 달하는 기나긴 구간의 도로를 다 치냈을 때는 어느덧 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했다. 눈은 천 뒤가 없이 그냥 내린다. 쳐내면 또 쌓이고 쌓이면 또 쳐내고...

그래도 힘든줄을 모른다. 자기들이 이렇게 할 때 장군님께서 어디 가시든 안녕하실 것이라고, 자기들처럼 온 나라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눈을 쳐 장군님 가실 길을 안전하게 해드리리라 생각하면서...

또 한차례 눈을 쳐내고서야 사람들은 아침식사를 하러 집으로 들어갔다.

맨 나중에 천천히 집으로 향하던 리남천은 광산정문의 문주옆에 홀로 서있는 김용석의 뒤모습을 보았다.

리남천은 담배를 붙여물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있소?》

용석은 돌아보지 않고 한참만에 대꾸했다.

《눈이 어찌면 이렇게도 깨끗하구 청신할까 하구 감탄하는중이요. 이런 땐 시인이 되지 못하게 한스럽단 말이요.》

《무슨 소릴? 당비서동무한테 자작시를 적어두는 비밀수첩이 있다는걸 내 모르는줄 아오?》

《허허... 그건 또 어느새 냄새맡았소?》

《다 알지. 저 속보들에 주련이 달아놓은 제목들 두 그래, 현장방송에 나오는 선동문들도 다 당비서창작품이 아니요. 이런 때 멋들어진 즉흥시 하나 읊어주구려. 나두 뭔가 막 북받치는데 표현할 줄 몰라서 이러질 않소?》

《에라, 그럼 지배인동무 대신해서 시 한수 지어 준다.》

《차— 이거...》

리남천은 병글서해서 피워물었던 담배마저 던져버리고 손을 비비었다.

김용석이 그 특유한 고음에 감정을 담아 시를 읊기 시작했다.

햇숨같이 하얀 눈
고요히 내릴 때면
내 스스로 묻노니
저 희디흰 눈처럼
네 마음도 그렇게 깨끗한가를

그러면 내 심장은 대답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한빛으로 순결한
흰눈이여 너처럼
내 한생을 살리라고!

리남천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어찌면 내 마음을 신통히도 표현했소.

당비서동무, 정말 고맙수다.》

《허, 우리야 언제나 한마음이 아니요. 리남천작으로 지은 시이니 아주 가지오.》

《고맙소. 그럼 내 직접 한번 읊어보겠소.》

리남천은 목청을 가다듬고 평양하늘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햇숨같은 함박...

갑자기 리남천의 목소리가 푹 끊어지더니 그 큰 눈이 폐곤해졌다. 반사적으로 그의 시선을 따르던 김용석이기도 그만 흠칫 놀랐다.

아득한 눈보라의 장막을 뚫고 까만 점들이 나타나 이쪽으로 흘러오고있었다. 점점 가까와오면서 형체가 분명해진다. 승용차들의 행렬이다!

순간 두사람은 동시에 손을 얼짜잡았다. 약속이나 한듯 말을 못하고 단숨만 내뿜는다. 이 순간처럼 심장의 하나됨을 절감해본적은 없는 그들이었다.

무아경의 세계속에서도 한순간 두사람의 눈빛이 격렬한 부딪침을 일으켰다.

(장군님께서 혹시 삼지강이나 오국리에 가시는 게 아닐가?)

(그럴수도 있소. 올해는 경공업과 농업의 해이니 까.)

그런데 다음순간 선두차가 광산쪽 갈림길로 꺾어드는것이 아닌가?

《아니?!》

두사람은 그만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4

장군님께서서는 리남천과 김용석의 인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1년사이 생산을 2배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소. 정말 수고들이 많았소.》

《장군님, 별로 한일없이 사랑만 받아안았습니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착정기를 받아안구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리남천이 감격에 겨워 말씀올리었다.

《그래, 착정기가 괜찮소?》

《예, 한번 보아주시시오!》

김용석의 쩡 올리는 고음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시었다.

잠간사이에 승리광구 배수중대 앞마당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마당 한옆에 설치되어있는 착정기로 다가가시었다. 가까이 가보니 더 으리으리하고 웅장해보였다.

지배인이 윤기나는 파란색본체의 머리우에 포신처럼 얹혀진 검은색의 굵고 긴 정대들이며 측면에 붙어있는 송풍기와 제진장치 등 구조와 성능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천공을 얼마나 하오?》

《30미터 합니다. 그전엔 두달 걸리던 발파준비를 단 하루동안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최첨단설비인데 그만이야 해야지. 그럼 어디 착정기 일하는거 좀 보지요.》

운전공이 기계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정대가 땅속으로 박혀들어가는것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저런걸 보고 호박에 동침이라구 해, 하하...》

장군님의 웃음소리에 박창규의 가슴에도 기쁨이 출렁이였다.

리남천은 장군님의 통쾌한 표현력에 그저 황홀해질뿐이였다.

《정대는 자동으로 교체하겠지?》

《예, 장탄하는것처럼 빙빙 돌려가면서 맞춥니다.》

《좋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정대와 원동기에비는 얼마나 들어왔는가, 운전칸에서 속도조절, 유압조절을 어떻게 하는가를 세세히 알아보시고나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최첨단으로 나가자면 발전된 다른 나라의 기술에 정통하고 그것을 룡가해야 하오.》

《장군님, 저희들이 착정기부분품들을 우리 식으로 교체해보려고 애쓰고있는데... 잘 안됩니다.》

리남천의 솔직한 고백에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기쁨을 느끼시었다.

《그래! 우리 식으로 해보자는 그 시도자체가 얼마나 좋소? 나의 의도가 바로 그거요.》

부부장동무, 중앙에서 속히 기술진을 조직해 보내줍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개발센터 등에서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선발해야겠소.》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박혀들어가는 정대의 움직임에 다시 시선을 옮기시었다.

그러자 또다시 만면에 웃음이 활짝 어리시였다.

《됐소. 이젠 우리 광부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소. 신선놀음을 하게 됐단 말이요, 하하...》

만시름을 잊으신 그이의 호탕한 웃음은 그대로 해빛이 되어 백설의 광야에 눈부시게 뿌리어졌다.

박창규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생각했다. 진정 인간을 아끼고 위하시는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것인가.

장군님께서서는 밤새 눈보라길을 달려온 긴장과 피로가 씻은듯 가셔지고 온몸이 구름우에 실린듯 즐거우시었다.

《이젠 생산도 쭉쭉 밀고나가야겠소. 룡마를 탔으니 하늘을 날아야지?》

《예, 장군님! 이젠 정말 문제없습니다.》

《계획 못하면 착정기를 도로 가져가겠소. 룡마도 주인을 잘 만나야 날수 있거던.》

장군님의 룡기어린 말씀에 리남천은 그만 목이 메였다. 눈앞이 뽕얇게 흐려지면서 지난해 3월 약속을 하며 이르시던 말씀이 되살아왔다.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 믿음과 담력이야말로 천하를 주름잡는 비약의 룡마가 아니였던가. 그런데 오늘은 그 룡마에 날개를 달아주시려 새해벽두에 천리 솟을길을 헤쳐오신것이다.

그렇다! 장군님께서 룡마를 안겨주시고 날개까지 달아주시는데 무서울게 무엇이고 못할 일이 무엇이라!

그는 크나큰 산악을 가슴에 안은듯 한 벅찬 심

정으로 힘있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재령광산의 대답은 언제나 〈무조건 한다!〉 이 하나뿐입니다!》

《음, 좋소. 올해 인민생활에서 변을 내자면 무엇보다 쇠돌이 많이 나와야 하오. 쌀도 비단도 사탕도 결국은 철에서 나오는거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워주시고나서 천천히 야외부감터로 나오시었다.

무량한 감개가 가슴을 적신다. 물이 가득차 큰 호수로 변했던 광구가 수백미터깊이의 최하단막장까지 자기의 모양을 말끔히 드러내보이고있었다. 깎아지른 절벽들이 층층 여섯계단을 이루고 그 계단을 따라 운광도로들이 빙글빙글 타래쳐오른것이 마치도 거대한 쌀함박을 런상시킨다. 매계단마다 뿔프와 배관들이 련결되어 아아한 산마루까지 뻗어올라갔고 장거리레투를 따라 광석을 실어올리는 대형 함드레와 박토산까지 버력을 끌어올리는 대형권양기가 서로 위용을 다투고있다.

이 넓고 깊은 막장의 물을 다 퍼내자니 얼마나 힘겨웠으랴 하는것이 새삼스레 절감되었다. 역수로 퍼붓는 비발속에서 선채로 식사를 받아먹던 광부들, 지금은 또 이렇게 퍼붓는 눈발속에서 쇠돌을 캐내야 할테지.

귀중한 광부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수 있을가 생각하시던 장군님께서는 박창규를 불러 간곡히 이르시었다.

《재령광산에선 광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서 일하기때문에 겨울철엔 솜옷과 솜신, 솜장갑을 제때에 좋은것으로 공급해주고 여름철엔 비옷과 장화를 잊지 말고 보내주어야 하오.》

《알겠습니다.》

《당비서동무는 앞으로 광산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더 잘해주어야 하겠소, 운전사들에겐 무조건 땅크병대우를 해주고.

광부들의 건강문제는 전적으로 동무에게 맡기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김용석은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세계를 가슴에 안으며 힘있게 대답올렸다. 그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떠오르는 추억에 웃음을 머금으시었다.

《참, 그때 여기 호수에 고기가 많다 했댔지. 고기가 없어져서 서운하지 않소?》

《장군님, 그대신 수백만톤 광체를 타고왔습시다.》

《옳소, 광부가 땅속의 보화를 들어내야지 호수의 물고기나 낚아내서야 되겠나? 하하...》

장군님의 통쾌한 웃음소리에 온 천지가 또다시 눈부시게 빛났다.

이때 부관이 떠날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이제 또 100여리 눈길을 달려 인민군부대의 기동훈련을 보아주셔야 하는 자신을 깨달으시었다. 그다음은 새로 건설되는 레성강발전소...

그러나 선뜻 떠나고싶지 않으셨다.

《참, 전번에 보수한다던 연혁소개실은 다 완성됐겠지?》

《예, 하지만...》

김용석은 품들여 꾸린 연혁소개실을 보아달라고 간절히 청을 드리고싶었으나 더이상 장군님의 귀중한 시간을 지체시킬수 없어 머뭇거렸다.

장군님께서는 그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부관에게 《지체되는 시간은 속도를 높이는것으로 봉창하기요.》라고 눌러놓으시며 차에 오르시었다.

연혁소개실에는 먼 옛날부터 쇠돌을 캐내기 시작한 광산의 유구한 력사가 집약되어있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실 때 수령님, 어머님을 따라 이 광산지구에 첫 자옥을 새기신 때로부터 1974년 70일전투의 돌파구를 여시기 위해 현지 지도를 하여주신 뜻깊은 사적자료들을 비롯하여 오늘까지 광산에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광산의 성과와 업적을 자랑하는 수많은 표창장들과 명예증서, 우승기발들도 보관되어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감회깊이 보아주시고 앞으로도 일을 잘해서 황해남도의 본보기광산으로 만들라고 고무해주시었다.

《장군님! 저희들이 일을 더 잘할테니 찬눈길 더는 걸지 말아주십시오!》

《고맙소.》

장군님께서는 울먹해서 간청하는 두사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차에 오르시었다.

《장군님, 미처 눈을 치지 못해서... 길이...》

리남천이 새로 내려쑤인 눈을 걱정하여 죄송스럽게 떠듬거리는 말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뜨겁게 껴안아주고싶은 충동을 느끼시며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걱정마오. 오히려 흰눈에 덮인 이 길이 더 좋

구만. 동무들의 그 마음처럼 깨끗한 숫눈길이 말
이요.》

《장군님!...》

《잘들 있소!》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유리를 내리우시고 눈내리는
창밖으로 손을 저어주시었다.

뽕얀 눈발속에 그들은 시야밖으로 멀어져갔다.

차가 속력을 내어 미끄러지는데 그이께서 갑자기
이르시었다.

《가만, 차를 좀 세우라구.》

박창규는 차가 급정거하자 의아해서 주위를 둘러
보았다. 장군님의 바쁘신 걸음을 또다시 지체시
킨것이 무엇일까?

길 한옆으로 대문짝만 한 숙보관들이 늘어서 있
었다.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재령광산의 명줄》,

《재령광산의 대답 〈무조건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유리를 내리우시고 눈발사이
로 안겨오는 숙보의 제목들을 읽어보고계시었다.

시간의 촉박감마저 잊으신듯 정을 기울여 한제
목 또 한제목 읽어가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사랑

하는 자식의 창작품을 대견하게 보고 또 보는 어
머니와도 같이 그렇게 밝고 따뜻한 미소가 한껏
어려있었다. 그것은 정녕 자식에게 바치는 어머니
의 사랑과도 같이 그렇게 다함없는 헌신이었고
사심없는 정이었다.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앞에는 눈부신 은빛세계가 아득히 펼쳐져 있었
다. 강산을 희디흰 하나의 빛으로 물들인 그 눈이
박창규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안겨왔다.

흰눈세계—그것은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하나로 흐르는 순결무구한 정의 세계, 혼연일체의
상징처럼 부각되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하고 인
민은 령도자를 위하는 뜨거운 혈연의 정! 뜻도
숨결도 담력과 배짱도 한결같아 믿음과 충정이
혈맥처럼 흐르는 고결한 의리의 세계! 바로 그것
으로 하여 천만이 하나로 되는 우리의 흰눈세계!

그렇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빛으로 순결한 이
세계우에서 기적의 룡마는 더 힘껏 내려쳐오를것
이며 장군님의 리상은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으로
더 활짝 꽃피나게 될것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혁명적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강성대국건설자이다.

-공동사설에서-

조선속담

수월함, 순조로움

- 가루 가지고 떡 못 만들라
- 누에가 진 뽕아내듯
- 더운 국에 국수사리 풀어지듯
- 무른 땅에 나무 박고 재고리에 말뚝치기

- 주머니속에서 물건 쥐여내듯
- 땅짚고 헤엄치기
- 얼음에 박밀듯(하다)
- 옛장사 옛 주무르듯 하다

습관에 대한 생각

백성근

매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습관이 있다. 자라온 가정 환경과 직업상 특성, 개별적 취미와 기호에 따르는 서로 다른 습관이...

많은 습관중에서 못사람들의 습관은 화제에나 얼핏 올랐다가 사라지지만 명인들의 습관은 일화로 남아 력사의 갈피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고있다.

명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어떤간에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습관이 모두 그 자신들의 개별적인 취미와 기호에 의해 생겨났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수 없는 참으로 특이한 습관들의 체현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이한 습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뜨거운 심정으로 생각하게 된것은 한 기회에 장군님의 혁명활동사료를 접하고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자신께서는 수십년동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고, 정말 하루에 두세시간밖에 자지 않았다고, 자신께서는 밤새워 일하는데 습관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정녕 그 밀바탕에 깔려있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에 가슴이 짝 메여오르는 장군님의 말씀.

그이께서는 평범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결코 평범치 않은 위인의 한생, 습관으로 비추어볼수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헌신과 로고의 위대한 생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체현하고계시는 특이한 습관이 있다. 그이의 이 습관들이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 무수히 많은 혁명일화를 낳고 전설들을 이루었다는것은 우리 인민 누구나가 너무도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체현하고계시는 특이한 습관들에 그이의 위인상이 깃들어있다는것을 나는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나, 자료작업의 기회에나, 취재의 길에서나 너무도 자주, 많이, 뜨겁게

체험하곤 하였다.

그리고보니 얼마전에 본 기록영화의 화폭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린다.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 군군인들이 아담하게 꾸려놓은 덕수터우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

그때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화폭에 비쳐진 땀에 화락하니 젖은 그이의 옷을...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그저 마냥 기쁘신듯 환히 웃으시며 서계시였고 그 길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였다.

우리의 장군님도 인간이시다. 물보라 날리는 덕수터가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는데야 어찌 그이라고 몸을 식히고싶은 생각이 없으셨으랴.

하지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일하시느라 그런 불편쯤은 참는데 습관되신 그이이시다. 그런 소박한 휴식조차 미루는데 습관되신 그이이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언제 봐도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그이!

그 길에서 생겨나고 굳어진 특이한 습관이 천가지런가 만가지런가.

달리는 승용차나 렬차에서 일하시는 습관, 췌기밥으로 야전식사를 하시는 습관, 야전리발습관, 늘 쪽잠을 주무시는 습관, 항상 간편하게 야전복을 입고 다니시는 습관...

하나하나 그이의 습관을 꼽아보느라니 눈물이 앞선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께서 여느 사람들의 보통의 정신세계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습관아닌 습관들을 자신의것으로 만드시였다.

자신을 위한 한순간의 휴식마저 불허하시는 습관!

그 습관의 밀바탕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자신이란 없다. 오직 조국과 인민만이 짝 들어차있기에...

진정 우리 장군님의 습관들은 단순히 굳어진 행동방식이기 전에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 그이의 인생철학의 산물이고 만경대일
가로부터 물려받은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위대한
인간상이다.

이제는 그것을 그이의 천성이라고밖에 달리는
부를수 없단 말인가. 정녕 그 습관을 그이의 천품
과 동일시해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이여, 우리 이제 더는 위대한 장군님께
이런 습관들을 잊어달라고 말로만 간청을 드리지
말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굳어진 장군님
의 그 모든 습관들이 우리 자신들의 몸에 폭 배
게 하자!

그런 일본새로 이 땅 가는 곳마다에 우리 장군
님의 숭고한 리상이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게 하
자!

우리 천만군민의 불타는 헌신으로 창조한 행복
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들을 돌아보시면서 우
리 장군님 인민들이 좋아합니까? 하고 물으시며
언제나 기뻐하시게...

뜨거운 눈물로 젖은 마음들이 우리 장군님의
특이한 습관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머나먼 현지지
도의 길에 제실 장군님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멀고먼 고장

한원희

산넘어령넘어
가고가신 곳
구름도 쉬여넘는 험한 령 험한 고개
우리 장군님 다시 또다시 찾으신
창성은 머나먼 북변

머나먼 곳 오신 길 피로도 잊으신듯
그이는 기쁘시여 돌아보셨네
아담한 식료공장
흐름선에 떠실려 줄줄이 나오는
파일술 파일단물 갖가지 식료품들

머나먼 곳 오신 길 보람도 크신듯
그이는 기쁘시여 돌아보셨네
자그마한 직물공장
크지 않은 직기들이 오붓이 들어앉아
짜고짜는 천필들
모양 곱고 입기 좋은 멋쟁이뜨개옷들

걸음걸음 가시는 곳마다
걸음걸음 기쁘이시였네
산에 산마다 산열매 따내리고
산에 산마다 구름처럼 양을 길러
알뜰히 군내살림 꽃피워가는
알뜰한 식료공장 직물공장

창성땅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수령님 자욱이 어려있는 곳이길래
지척인듯 자주자주 오가시며
도와주고 이끌어주신 그 로고 잊으시고
치하하셨네 고무하셨네
선군시대 공장답게 더더욱 현대화하자고
더 높이 더 높이 받들어주셨네

산이 많아 산간군
창성처럼 지방산업 꽃피워가자고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이 산 저 산 찌렁찌렁 받아외우며
산넘어령넘어 온 나라에 울려갔네

창성은 머나먼 북변
구름도 쉬여넘는 고개 고개 또 고개
하지만 쉬지 않고 넘어오는건
도시벌방 부럽지 않은 잘살 날이라네

아 창성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면
아버이수령님 그 사랑
만복으로 천만복으로 주렁지우시는
우리 장군님모습이 하늘가득 어려와
창성은 마음속에 가장 가깝더라
머나먼 북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어라

우리 인민은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내는 영웅적인민이며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답보도 모르는 백절불굴의 인민이다.

-공동사설에서-

서사시

강선의 불

주광일

머리시

불로 세운 기념비앞에
내 지금 서있나니
한껏 열풍을 안은 이 가슴에는
하늘에 치솟는 초고전력전기로의 화광이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불을 안고 나아가던
그 심장들의 불길처럼 안겨온다
한몸을 기꺼이 내대여
12월의 불씨가 된
그 결사의 삶들이
잠 못 들고 몸부림치며 불타던
그 결사의 낮과 밤들이
오늘도 여기 흐른다
오늘도 여기 끓는다

×

오 초고전력전기로여
불가슴 터쳐 이야기하라
어제날엔 세인의 눈길을 모으며
천리마가 나래쳐올라
천리마의 고향으로 이름높은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불이 어떤 불이였기에
천만의 눈길을 휘둘러당기며
온 강산에 타번졌느냐
여기서 어느분이 너의 불씨를
대고조의 불길로 지펴올렸느냐

×

강선, 강선...
그분의 발자국소리 울려오고
그분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이 땅에서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고조의 선봉에서 내닫고
명절의 그밤들에는
땅에서 끓던 강선의 쇠물인양
평양의 밤하늘에 축포의 불보라가 터져올라
5천년민족사에 처음 보는
불보라의 세계를 펼쳐놓았거늘
내 어이 불을 노래하지 않으랴
조선의 정신력을 하늘가에 떠올린
불의 주인공을 우러르지 않을수 있으랴

1장

노래가 흐른다
당중양창가에 노래가 흐른다
불별을 머리우에 이고
사품치는 물속을 뚫고 삼복철강행군을 하시던
그 여름도 지나고
북방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다시 북방으로 이어진
강행군의 그 가을도 지난 이밤
그 무슨 사연깊은 노래이기에
첫눈을 이고 돌아오신 장군님
밤깊도록 록음기앞에 서계시는가
창밖에는 하얀 창가림같은 흰눈이 소리없이 날
리는데
숭엄한 추억으로 깊어졌다가도
그리움을 퍼내며 솟구쳐오르고
광란하는 눈보라를 불러오다가도
12월의 쇠물처럼 끓어오르는
새로 형상한 노래 《강선의 노을》...

×

—강선...
그이는 가만히 불러보신다
해방후 우리 수령님

고향 먼저 찾으셨던 강선
전후 폐허속에 오신 수령님을 반겨
작은 잎새 흔들던 백양나무도
이제는 소소리높은 거목이 되었으리
그 백양처럼
강선로동계급의 마음도 자랐으리
—강선...

다시 불러보시는 그이의 마음속에
12월의 강선길이 보여오고
수령님 맞으시던 그날의 눈이 내리고...
밖에서는 대국주의자들이 압력을 가하고
안에서는 수정주의자들이 날뛰던
1956년의 그 12월
난로옆에 모여섰던
충혈된 그 얼굴들이 떠오르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오늘의 이 난국을 타개해나가자던
수령님의 불같은 그 말씀에
불과도마냥 일어난지던 그날의 회의장이
장군님의 심중에 끓어번지고
그러면 또 언제인가
강선에서 돌아오시는 차안에서
수령님 부르시던 《적기가》의 노래소리가
하늘땅을 뒤돌리며 메아리쳐오고...
철령을 오를 때도 내리던 그 눈송이
강계길을 가실 때도 내리던 그 눈송이
오 12월의 그 붉은 눈이
이 나라 전선길 굽이굽이에
장군님의 빨찌산행군길에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우리 어이 다 알리

×

장군님의 부름심을 받고 들어선
명훈을 비 롯한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
방안을 울리는 그이의 음성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수령님의 조국에는
강선이 있어야 한다는것이
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걱정을 누를길 없으신듯
일어서시며 이으시는 말씀
—지금 원썬들은 강선이 일어서지 못하게
2중 3중 봉쇄의 차단봉을 내리고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있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있다
그들을 믿고 현대상씩 현대화하면
얼마든지 자력으로 강선을 살릴수 있다
마디마디 불꽃이 튀길듯

장군님의 그 음성이
일군들의 심장에 불을 달던 그밤
그 말씀을 받아안은 명훈이
강선으로 내려간 그밤
이 나라의 하늘과 땅에
《강선의 노을》이 울려 퍼졌다

×

노래여 《강선의 노을》이여
너는 그대로 불이 아니더냐
그 불을 안고 너는 흐르리
머나먼 초소에 들끓는 일터에
그 뜨거운 숨결을 안기여주리
하저늘 누가
그 어떤 봉쇄의 검은구름이
그 어떤 눈보라와 비바람이
그 불의 영원을 막을수 있다더냐
이 시각도 우리 장군님
강선의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리니
《강선의 노을》이여
쇠물집후손들의 심장을 두드리며
그이의 마음을 전하라
강선에 태를 묻은 사람들을 흔들어
일으켜세우라
천리마의 열풍으로 온나라를 덮으라!

2장

그날 밤
강선은 잠들지 못했다
방송에서 텔레비존에서 《강선의 노을》이
거리와 마을에 울리던 그날
백양나무아래서 곱게도 피어난
은희의 가슴도 설레이고
주인없는 집같이 꺼멓던
강철직장창문들에도 불빛이 어렸던 그날
재영이도 잠들수 없었다
자꾸만 평양하늘을 바라보며
뜨락에 앉아 담배를 갈아대며...
그래서 집을 나선 재영이 구내길에 들어서니
어둠속의 백양나무도 반기며
몸을 솟구고 다가설듯
어이 그렇지 않으리
이 백양아래서 삶을 받아안았고
이 백양아래서 키도 마음도 자란 누구인들
어이 그 같지 않으리
이제 초고전력전기로를 세우면
장군님을 강선에 모시고

장군님을 강선에 모시는 그날엔
백양아 너도 푸른 머리 들려니

×

오 백양나무 백양나무
세기를 넘어 이 땅에 뿌리박고 솟아
상수리를 쳐든 사연깊은 강선의 나무야
우리 수령님 깨어진 벽돌장을 의자삼아
네 아래 앉으셨던 8월의 그날
폭격에 상처입은 아지를 숙이며
너 얼마나 송구스러웠느냐
그날부터 너는 보았으리
재더미우에서 쏟아지는 첫 쇠물을
수령님의 믿음을 안고
기적의 불을 토하는 영웅분괴업연기를
아름다운 노을 피는 사회주의 대문으로
강선사람들이 휘몰아가는 노을빛천리마를
그때부터 너는 들었으리
오시고 또 오시는 수령님의 발자국소리를
강선에 오면 10년은 젊어지는것 같다고
여기는 천리마의 고향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감회깊은 그 음성을
그럴 때면 너도 키를 솟구며
노을비긴 붉은 잎사귀들을 흔들며
얼마나 기쁨에 설레었느냐
그러다 봉쇄의 검은구름에 휩싸여
전등불마저 그리웠던 그 나날
스러져가는 노을 한끝을 부어잡고
너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허나 백양아 이 땅의 행복자야!
살아 머리들 소원을 이루는 그날엔
생이 부풀도록 간직한 그 기쁨을
마음껏 터치라

×

재영이 걸음을 옮기는데
어둠속에서 반가운 목소리
—거 재영설계가 아니요?
—아니 지배인이 어떻게?
백양나무아래서 나오는 두사람
한사람은 젊은 지배인 형국
머리희숙한 다른 사람은
제강소의 오랜 당일군 태준
그가 벌썬 웃으며
—내 이렇게 나올줄 알았소
—어디 잠이 와야지요
사나이들끼리야 무슨 긴 말이 필요있으랴

민음을 안은 심장이 어떻게 고동치고있는지
물어서 알라
하여 이밤에 협의회가 열리고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로
초고전력전기로를 건설하자는
열기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전기로현대화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태준은 정치책임자가 되었다
재영은 총설계를 맡고
형국은 그밤으로
철관을 구하러 김철로 떠나고...

×

그날 밤
온 강선이 잠 못 들던 그밤
은희는 꿈을 꾸었다
하늘도 땅도 온통 노을빛인데
전선길 전선길을 따라 훨훨 날아가는 꿈을
그러다 그는 보았다 그리운 장군님의 모습을
—아버지장군님!
소리치며 달려가 안기려던
그는 그만 우뚝 섰다!
그리고는 안타까이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섰다
—내 무슨 생각을, 내 무슨 낮으로
장군님앞에 나설수 있담
우리 강선이 아직 제구실을 못하고있는데...
그래도 깨지 말았으면 했던
깨여보니 아쉽기만 했던
처녀의 꿈이어
은희의 꿈이어
아 꿈같은 그 시절엔 꿈도 많아라
행복의 꿈 희망의 꿈 사랑의 꿈
래일의 문도 꿈에서 먼저 열고
련인의 얼굴도 꿈에서 그려보는 시절
봄마다 봄들판에 새싹이 움트듯이
그 누구인들 꿈이 움트지 않으리
그 어느 처녀인들 가슴부풀지 않으리
허나 이런 꿈은
그 시절에 두번다시 없으리!

3장

여기엔 없다
온몸을 물주머니로 만드는 고열도
지뢰밭에 몸을 내대야 하는
비장한 그 순간도
여기선 있을수가 없다
종일 정적과 고요만이 숨쉬고

이따금 연필 달리는 소리
 컴퓨터건반 누르는 소리만이 울리는
 제강소의 설계실 여기서 설계가 리재영이
 일한다
 총각시절에 여기 배치받아
 발명가로 롱구선수로 이름높던 재영이
 불꺼진 제강소를 두고
 밤마다 초불아래 모대기더니
 방대한 초고전력전기로설계를
 설계실의 힘으로 말아나선 그날부터
 백발을 날리며 달려나온 그날부터
 《불타는 강》도 넘어오고
 《쏟아지는 폭우》도 다 뚫고왔거니
 결사옹위의 심장들이 피를 뚫이는
 여기는 소요속의 전장—

×

점점 흐려지는 눈에
 도수안경을 세번째로 바꿔끼지도
 이제는 그 며칠...
 재영은 도판우에 그려간다
 새 전기로의 마지막 설계도면을
 연필로 굵고는 재여보고
 지우고는 또 굵고
 이어지고 이어지는 점과 선!
 그 무수한 점과 선들이
 그의 사색의 열매이고 고뇌의 흔적이고
 그리움의 분출이었거니
 그 점 하나 선 하나를 위해
 남모르는 밤길은 얼마나 걸었느냐
 탐구의 새벽창문은 어떻게 열었느냐
 봉쇄의 검은구름이 앞을 막아설 때도
 그는 이 도판앞에 있었다
 미지의 그 길에 폭우가 쏟아지고
 현대화나 대보수나 이런 론의가 날을 세우고
 그의 의지를 꺾으려 했을 때도
 강선에 새로운 숨결을 부어주고
 이 땅에 서서 세계를 보는 눈을 주신
 장군님의 그 영상을 가슴 가득히 안고
 그는 도판앞에 있었다
 그럴 때면
 침단을 돌파할 강자의 자존심이
 그의 온 심혼을 불태우고
 새로운 착상을 불러왔다
 그럴 때면 그럴 때면
 생명의 피줄기인양
 새 전기로가 도판우에 자라났다
 재영은 안경을 번쩍이며

마지막 도면을 그려간다

×

이날 저녁 병원으로
 한 청년이 실려왔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온몸이 찢기고 터진
 그는 재영의 외아들
 어제날의 최전연병사
 갓 서른의 꿈많은 청년
 낡은 전기로를 해체하다가
 넘어지는 철판을 향해
 비호같이 몸을 날리며
 —피하라!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철판을 몸으로 막으며
 병사는 쓰러졌다...
 침상에 누워서도 그는 소리친다
 —피... 하... 라!...
 허나 그의 목소리는
 입속에서만 겨우 맴돌뿐...
 몸을 날리려 했으나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혼수상태에 빠졌어도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한
 병사의 전투는 계속되고...

×

의사들의 긴급처치로
 의식을 차린 그는
 낮익은 얼굴들을 알아보았다
 함께 일하던 동지들을
 눈물이 글썽한 그들을
 그다음엔 또 보았다
 입술이 부르튼 태준을
 아버지의 설계도 아버지도
 자신처럼 믿는
 자신처럼 잘 아는 그를
 —아버지는?
 그의 말 뜻을 알아차린 태준
 머리를 끄덕이며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의 눈가에 따뜻함이 어린다!

×

재영은 알고있었다

조금전 태준이
 뜻밖의 소식을 가져왔을 때
 —내 아들이 어떻게 됐다구?!...
 그 순간 한쪽가슴이 무너지는듯
 그러다 벌떡 일어서며
 —어서 병원으로!
 그럼 설계는?...
 허나 재영은 아버지
 아들이 첫걸음마를 땔적부터
 하늘같은 기쁨을 안고 온몸으로 지켜본
 어찌다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나와도
 뒤척이며 잠 못 들던 아버지
 그 아들이 지금
 피를 쏟고 침상에 있거니
 하지만 재영은 잡았던 마음의 문고리를
 스프르... 놓는다
 그는 당원

강선의백양나무아래서
 붉은 당원증을 받아안은
 설계를 석달만에 끝내기로 한
 당세포결정에 무겁게 손을 든...
 그는 도관앞에 다시 다가섰다
 그 모습이
 불뿔는 화점앞에 몸을 일으키던
 전화의 영웅과 무엇이 다르랴
 그 걸음이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말자고
 불사신마냥 웨치며 나아가던
 병사들의 걸음과 무엇이 다르랴
 오 이 나라의 당원들이여
 그가 그려간 이밤의 설계도면에
 마음의 다발을 엮으시라!

(다음호에 계속)

령도자와 작가

꽃색갈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고

언제인가 너가수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가요 《철산봉에 코스모스 만발합니다》였다.

붉은색 파란색 천만꽃송이
 산정길에 울긋불긋 피었습니다
 장군님 다녀가신 그 길을 잊지 못해
 철산봉에 코스모스 설레입니다

...

무산땅의 광부들이 철산봉 굽이굽이 산정길에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피워놓고 오늘은 오실가, 래
 일엔 꼭 오실가 경애하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기다리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는
 노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언어는 표현이 정확하여야 한다.》

서정이 짙은 노래를 주의깊게 들으시며 노래가
 진실하여 좋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
 득 사색깊으신 음성으로 이 노래가사를 코스모스
 꽃색갈을 잘 관찰하지 못하고 쓰다보니 꽃색갈이
 붉은색, 파란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코스모스꽃
 색갈을 그렇게 표현하는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옆에 있던 일군들은 모두가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만 마주 쳐다보았다.

무심히 노래를 듣고있던 그들은 노래가사에서
 어느 대목이 잘못되었는지 선뜻 가려낼수 없었
 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누구에게라없이
 코스모스꽃에 파란색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파란색이
 있던지 없던지 까리까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머뭇거리는 일군들을 일
 별하시며 코스모스꽃에는 붉은색과 분홍색, 하얀
 색이 있지 파란색은 없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코스모스는 원래 여러가지 색갈로 된 꽃이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꽃색갈들을 다
 기억하고계시는것이였다.

(어쩌면 그리도 꽃들에 대하여서도 조예가 깊
 으실가?!)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내 생각에는
 붉은색이라고 하면 빨간색과 분홍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파란색이라는 표현은 하얀
 색이라고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관찰력이 부족한 한 작가가 잘못
 썼던 노래가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해박한 세계속
 에 바로잡아지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원의 숭고한 신념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화폭

-장편소설 《북두칠성》을 두고-

박춘택

조선로동당원,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이름이 언제나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것처럼 숭엄하고 아름답게 울리는것인가. 당원이란 칭호는 무엇으로 하여 것처럼 값높고 고귀한것인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지금도 가렬한 전화의 나날의 선혈자욱이 력연한 공화국영웅 안영애의 피물은 당원증이 귀중히 보관되어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당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당원의 칭호가 왜 이처럼 고귀한 영예, 가장 높은 칭호로 되는가를 가슴뜨거이 느낀다.

적탄이 뚫고나간 흔적과 함께 붉은 피가 스며있는 안영애의 조선로동당원증.

적의 폭격속에서 자기의 한몸으로 마지막 환자의 몸을 덮어 구원하고 희생된 당원전사 안영애.

아직 꽃나이 청춘이였던 그에게는 꿈도 있었으며 포부도 컸다. 청춘도 귀중하고 생명도 귀중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직 수령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당앞에 다진 그 성스러운 맹세와 신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던것이다.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당원, 그의 피물은 당원증은 당원의 불굴의 정신력, 불변의 신념에 대하여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는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불굴의 혁명적신념, 바로 여기에 진정한 당원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며 참다운 진가가 있다.

우리는 소설에서 이 생활의 진리를 감동깊게 받아안게 된다.

조국이 기억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당의 참된 딸로 영생하고있는 공화국영웅 안영애를 원형으로 형상한 장편소설 《북두칠성》(최영조 작)은 조선로동당원의 영웅적성격을 보여주고 위대한 정신력의 원천과 영생에 대한 철학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새로운 인생진리—영생철학

장편소설 《북두칠성》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작품에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인간의 고상한 생활세계가 비껴있고 영생하는 인간의 삶의 참뜻을 되새겨보게 하는 철학성이 있는 것이다.

깊고 새로운 생활철학을 담은 작품은 사람들을 사색하게 만든다. 소설에는 사람들을 사색의 세계에 이끌고가는 인간의 영생에 대한 심오한 문제성이 있으며 우리 시대 인간의 정신력의 원천인 수령흠모심에 대한 내용이 깊이있게 밝혀져있다.

일생을 충정으로 수놓은 고결한 삶, 하여 수령이 영원히 잊지 않는 생이 시대와 더불어 사멸되지 않는 영생의 삶이다. 영생은 수령이 주는것이며 수령을 따르는 신념과 의리의 열도만큼 삶의 높이가 결정된다. 작품은 이 영생의 철학을 밝히는데 형상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

꿈결에도 그림고 자나깨나 뵈고싶은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최고사령부로 기어이 찾아가리라하는 수령흠모의 송가, 신념의 노래—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지난 세기 안영애의 심장속에서 힘차게 울리던 그 노래속에 우리모두의 영생이 있고 다름아닌 바로 그 노래속에 우리의 사회주의의 영생이 있으며 우리 조국의 영생이 있다는 소설의 이 생활철학이야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여기에 이 작품의 시대정신이 있고 인간문제의

심오성이 있으며 생활철학의 깊이가 있다.

소설이 내세우고있는 인간문제와 종자는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지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천리 밀림속에서 중상당한 부상병들을 데리고 곁쌓이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오직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우리의 주인공 안영애.

엄혹한 시련을 헤치며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그 길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그리움의 길이였고 억척같은 신념의 길이였다.

소설은 안영애의 남다른 해방전,후의 극적인 생활들과 적후의 간고한 길을 헤치며 부상병호송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과정의 생활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그의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인 수령에 대한 흠모심이 어떻게 움터나고 자라났으며 어떻게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웅의 소박한 성품을 그리면서도 그의 남다른 정신적높이와 특출한 위훈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완전히 매혹되어 수령을 믿고 따르며 수령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수령이 있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에게 자기 삶과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는 사상 정신적원천이다.

수령의 위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혹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흠모의 정으로 심장이 불타게 한다.

작품에서 보게 되는것처럼 태백산병동으로의 후송의 길을 떠난 첫날 안영애는 력사학교수 림성구의 이야기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평범한 학자에게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교수 위촉장을 보내주고 평양으로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종합대학에 찾아오시여 그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그의 변변치 않은 논문까지 몸소 보아주시고 논문의 잘못된 점도 바로잡아주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참으로 사랑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는 안영애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아, 장군님은 정녕 얼마나 다정하고 소탈하신 분이신가!

왜놈들을 쥐락펴락한 백두산장수로서만, 미제놈

들을 무자비하게 쳐부시는 백전로장으로서만 신비의 세계속에 그려보던 장군님의 모습이 어쩐지 지금은 인민이라는 그 평범한 부름처럼 친근하고 아버지처럼 따뜻한 육친의 모습으로 안겨오는것이다.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 인정미의 세계에 감동된 안영애는 그이의 숭고한 인간적품모에 매혹된다.

인간적매혹은 흠모심을 낳는다. 소설은 안영애의 가슴속에 고여있는 열렬한 흠모심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가를 진실한 생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태백산병동에서 숙영할 때 안영애의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는 그의 열렬한 수령흠모의 마음, 그리움의 세계를 생동하게 부각한 실례로 된다.

사무치게 차오르는 그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뜨거운것이 앞을 가리운다.

아, 최고사령부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은 과연 그 어디일까?...

저 멀리 북녘하늘가에서 유난스레 반짝거리는 일곱개의 별, 북두칠성을 새삼스레 올려다보는 안영애의 내면심리세계, 태백산병동의 밤하늘가에서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오늘에야 아버지가 저 별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소원한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심장으로 깨닫는 영애의 심중의 세계, 그것은 빛을 주고 열을 준 삶의 품에 대한 그리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아주고 세상에 빛내줄 민족의 영웅, 혁명의 령도자의 품에 안기고싶은 열렬한 갈망이었고 참다운 소원이였다.

안영애는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금 밤하늘가를 바라본다.

아! 나도 저 북두칠성처럼 언제나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곁에 함께 있게 되었으면!...

작품은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이 열렬한 그리움이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고 최고사령부를 찾아 험산준령을 끝끝내 넘게 한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이었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안영애와 인민군전사들의 수령흠모의 세계, 위대한 정신력의 고결한 세계를 경기사범학교 심리학교수 류세익과의 관계속에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류세익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리론을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본능을 놓고 전개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품게 되는 사랑, 존경, 숭배 등의 감정을 한갓 심리의

혼탁일따름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없는 약자들의 심리적존심에 불과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이런 인간심리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지닌 그가 어떻게 인간심리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관점을 세워나가며 수령흠모의 열렬한 마음을 간직한 인간의 정신력과 그것을 체현한 인간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가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류세익은 인간의 숭배심을 자기보다 강한것에 대한 약자의 추종심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면 리성호라는 나 어린 병사에게 하는 안영애의 절절한 호소, 진심의 목소리. 《넌 장군님의 품에 가야 죽지 않아. 최고사령부를 찾아가야 죽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이 그 어떤 추종심이었던가. 아니, 그것은 분명 생사를 건 의지였고 신념이었다.

류세익은 안영애의 이 신념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인간심리의 새로운 세계에 부닥치게 된다.

조건이 어렵고 난관이 엄혹해도 안영애와 립성구 등 인민군부상병들이 자기의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그 믿음, 그 무조건적이고 열렬하고 지어 끝이 없는 그 흠모심에서 그는 인간심리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되는것이다.

성호의 몸상태로 보아 더이상 그를 데리고 간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고향도 이 근방이고 또 어머니도 계신다는데 성호를 자기가 데리고 가면 안되겠는가고 말했을 때 하는 안영애의 말은 류세익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그건 우리 성호를 죽이는 길이에요. 성호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장군님품으로 가는것뿐입니다. 이 몸의 피를 마지막 한방울까지 짭그리 그에게 넣어서라도 난 기어이 성호동무를 최고사령부로 데리고 가겠어요.》

소설은 나직하나 퇴성처럼 공명되어 들려오는 영애의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는 류세익의 내면심리를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안영애의 저 사랑과 헌신은 단순히 성모의 범인도주의적인 사랑과 헌신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목적지향성있는 사랑과 헌신이다. ...

류세익은 그 믿음이 있어 안영애는 저렇듯 저없이 자기를 다 바치는것이며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될가봐 저처럼 전우의 심신을 한몸에 그리 안고 가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것으로 하여 저 처녀는 그렇듯 고결하고 훌륭한것이며 저렇듯 강의하고 열렬한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 그는 위대한 인간에 대한 흠모심은 사람의 마음을 위대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숭배심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며 그것으로 하여 인간은 진실로 고상하게 완성되고 그것으로 하여 사회는 진실로 참되고 아름다와진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수령흠모의 열렬한 마음을 심장에 간직한 안영애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생동한 세부 형상으로 부각하고있다.

숨지는 마지막순간에 자기의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생의 마지막순간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애타게 절절하게 더듬어 찾으며 《장군님을... 장군님을... 뵙고... 싶어요.》이 마지막말을 조용히 남기고 눈을 감는 안영애의 모습.

가장 깨끗하고 가장 열렬하고 가장 숭고한 그 리움으로 세차게 고동치던 심장의 붉은 피를 그대로 당원증에 남겨둔채 사랑하는 전우들의 곁을 떠나가는 안영애의 눈물겨운 최후...특히 작품은 자기 수령에 대한 그리움을 신념으로 간직한 안영애의 고결한 품모와 성격적특질을 입당심의 앞둔 때의 그의 내적체험세계와 입당심의를 위한 당세포총회장면에서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바쳐가는 그 길에서 최고의 영광, 최대의 행복을 찾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념을 위하여 안영애는 입당을 청원한다.

작품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손에 총을 들고 싸우면서 로동당원들의 고결한 신념의 세계를 체험했고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진짜 당원이 될수 있다는것을 깨달았으며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만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저없이, 흔들림없이 곧바로 한길을 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했다는 안영애의 진심의 말에서 그의 당적수양과 혁명적신념을 부각하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주인공 안영애의 생활을 혁명적 수령관의 견지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이 싹터올린 역척같은 신념의 기동으로 뿌리박히게 되는 과정으로 깊이있게 그리면서 수령흠모의 철학, 영생의 진리를 부각하고 수령흠모의 열렬한 마음을 지닌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형상적매력이 있는것이다.

특색있는 구성미와 분석적인 생활묘사

장편소설 《북두칠성》의 높은 예술적품격은 구성이 특색있게 조직되고 생활이 분석적으로 지성미가 있게 묘사된것과 관련되어있다.

작품의 구성미는 정신력의 원천에 대한 종자와 영생에 대한 인간문제해명에 맞는 의의있고 전형적인 생활을 찾아서 안영애를 비롯한 인물들의 풍부하고 굴곡있는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커다란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도록 구성을 엮은것이다.

특히 소설에서는 구성을 조형미가 나게 립체적으로 꾸며 그것의 깊이를 보장하고있다.

작품은 안영애와 인민군부상병들이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주선을 굽고 뚜렷하게 그어나가면서도 류세익과 립성구 그리고 리호반과 표길섭 등 인물들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시공간적으로 겹놓인 지선이 주선을 중심으로 하여 튼튼히 맞물리고있다.

소설에서 류세익의 설정은 안영애의 성격형상과 구성의 조형미를 보장하는데서 혁신적의의가 있다.

안영애와 인민군부상병들의 정신력에 감동되어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자기가 내세웠던 인간심리의 기초의 허황함을 절감하는 류세익의 성격발전에 대한 진실한 형상은 생활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사색의 깊이, 창작의 기교를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다양한 생활사실과 일화들을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로 흥미있게 엮어놓고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과 수난많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지켜줄 위대한 분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이 그대로 어려있는 북두칠성전설은 가난에 시들고 설움에 피명진 수많은 가슴들에 해빛처럼 파스하고 별빛처럼 아름다운 희망을, 꿈을 싹틔우고 자래워준 이야기로서 영애의 성격형상에 이바지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일제와의 항전을 벌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민족의 태양이신 그이의 승리의 발자취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싶어 고향을 떠나는 영애의 아버지인 안진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이 제기한 문제해명에 효과적이다.

이 소설의 구성미는 이밖에도 장면마다 형상과 제를 명백히 설정하고 뜻이 깊게 묘사함으로써 구성의 립체성과 형상의 깊이를 보장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태백산병동에서의 당원모임장면, 적의 병원습격 장면 그리고 심포니다방에서 립성구와 류세익이 벌리는 론쟁장면 등 형성된 모든 장면들이 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적특질을 부각하고 작품의 사상주제를 해명하는데서 뚜렷한 몫이 있게 그려졌다.

이 독특한 구성미는 장편소설의 예술적품격의 높이를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의 혁신성과 예술적품격은 언어구사의 솜씨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 소설의 문장과 묘사는 깊이있고 분석적이며 지성적이고 정서적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새로운 감흥에 잠기게 되는것은 특색있는 인물인 류세익을 등장시켜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조직하고 안영애와 립성구 등 인민군전사들의 전형적성격을 깊이 탐구한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세부묘사를 잘하고 소설적특성을 잘 살려 뒤생활을 파고들어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고 생활을 분석적으로 그려낸 그 묘사력에 있다.

사람들이 다 공화국영웅 안영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있으면서도 이 장편소설을 읽으면서 다시금 깊이 감동되는것은 소설적인 묘사와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물론 작품의 형상세계가 완벽한것은 아니다.

소설에서는 안영애가 수령흠모심을 남다르게 지니게 된 생활바탕의 묘사와 구성의 요소들이 정서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감정조직을 하는데서는 일련의 부족점이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독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소설의 화원에 이채롭게 피여난 이 꽃송이의 아름다움과 향기와 빛깔을 가리우지는 않는다.

장편소설 《북두칠성》은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으로 하여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길동무로 될것이다.

래일을 본다

정 철

나는 성천강반을 거닐고있다.

깊어가는 공업도시의 밤을 대낮처럼 밝히며 아롱다롱 빛을 뿌리는 희한한 불장식들이 유유히 흘러가는 성천강물결우에 억만구슬로 부서져 아름답게 반짝이고있었다.

경축일색으로 단장된 2월의 밤거리, 성천교란 간을 가득 메우며 불구슬이 출렁거리는 오색령롱한 강수면을 앞을 다투어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기쁨과 랑만,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다.

기쁨에 겨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지난해 이 성천강반에 황홀한 불꽃세계를 펼치던 잊지 못할 10월의 그밤이 떠올랐다.

현란한 불의 바다, 쿵쿵 지심을 뒤흔드는 장쾌한 불의 폭음, 놀람과 경탄이 한껏 어울리던 승리자들의 환희로운 웃음소리를...

어찌 잊을수있으랴.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담아 성천강반에 터져오르던 경축의 축포, 승리의 축포...

《야, 저길 좀 봐요.저기, 저기 말이예요.》

내열에서 연방 탄성을 내지르던 40대의 낮모를 녀인이 타오르는 불꽃들의 여광이 춤추듯 흐르는 것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었다.

금시 또 다른 축포가 터져오르는 바람에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꽃송이마냥 활짝 피었다가 부채살마냥 퍼져나가는 새로운 축포의 희한한 광경에 돌려지고말았다.

《야, 참 아쉽네.》

연분홍빛꽃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그 녀인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속삭이듯 말했다.

《무엇이 아쉽다는겁니까?》

나는 초면이라는것도 잊고 스스럼없이 그 녀인에게 말을 걸었다.

녀인은 줄곧 한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채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사실 저 하얀 연기들 말이예요. 불꽃들의 뒤로 흐르는 안개같은 은빛연기가 꼭 우리 수직방사직장의 기대에서 흘러내리는 비날론솜으로 보이겠는데... 그만 훌어지고말았으니 왜 아쉽지 않겠나요.》

나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녀인을 바라보았다. 아, 그러니 비날론생산자들중의 한사람이로구나.

축포의 여광이 어려 별스레 아름다와 보이는

녀인의 얼굴을 바라보느라니 절로 생각이 깊어졌다.

비날론!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주체의 비날론!

저 녀인은 보았으리라. 우리 장군님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비날론솜을 쏘어보고 또 쏘어보시다 평양의 하늘을 바라보시며 수령님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시던 력사의 그 순간을!

수십명의 영웅들을 배출한 영광의 일터를 몇차례나 찾아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여 새로운 비날론폭포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의 그 나날들을 말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 장군님께서 손수 만져보시며 그토록 기뻐하신 비날론솜과 같은 하얀 구름이 하늘가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저 광경을 무심히 볼수 있으랴.

비날론생산자녀인만이 아니었다.

주체철의 폭포마냥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축포의 불보라를 보며 환호를 올리는 사람들속엔 선군주철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룡성로동계급의 궁지에 넘친 모습도, 흥남가스화공정건설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는 비료생산자들의 불굴의 모습도, 동봉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자랑넘친 모습도 있었다.

나는 보았다.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선 승리자들의 모습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보다 더 비약할 기세로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내달릴 신심에 넘친 모습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다.

못 잊을 추억속에 잊지 못할 성천강반을 조용히 지나는 나의 마음속에 그날의 축포가 터져오르고있다.

우리 장군님 내 고향 함흥의 밤하늘가에 환희와 아름다움의 세계를 펼쳐주신 10월의 축포, 승리의 축포가 나의 마음속에 아나,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그 축포속에 나는 본다.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는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여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로 더더욱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래일을, 존엄높고 강성부흥하는 위대한 강성대국의 래일을!

나의 당비

비전향장기수 최태국

감옥에서

철창속 하루하루
나의 당생활
나는 홀로 총화한다
오늘도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노라

래일의 신념을 가다듬는
하루의 당생활총화
수령님 전사로 굴함이 없으리라
나의 마음 더더욱 굳어진다

차디찬 감방에서 한달 또 한달
나의 당생활은 이렇게 이어졌나니
규약상 당비는 바치지 못했어도
수령님과 장군님 우리러 바치는
깨끗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속의 당비가 아니었던가

한해 두해...
서른여섯해
당원의 신념은 그 마음속에 있었나니
당생활은 나의 생명

신념을 지킨 철창속 당생활
0.75명 차디찬 감방에서
나는 이겨냈노라
추위와 굶주림도
모진 유혹과 악착한 고문도

원썬들이
나의 생명 나의 신념을 앗으려고
백지장에 손도장 하나만 찍으면
자유를 준다고
아니면 죽인다고
악착한 전향공세를 들이댈 때

아 눈앞에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
이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당의 훌륭한 전사가 되라고 하시던 말씀
죽음의 충구앞에서 힘이 되었더라

그 힘은 바로
어버이수령님 만나뵈옵던
그날에 받아안은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이
내 한생의 힘의 원천이 되었어라

그날에
수령님 안겨주신 삶
철창속 수수십년
수령님 생각에 눈물젖고
수령님 생각에 목이 메었나니

철창속 복讎하늘 우러러
수령님 안녕을 축원하며 하루가 열리고
변치 않을 맹세 다지며
하루가 저물었어라

아 당생활
그것은 신념
그것은 그리움
그것이 있어
정녕 그것이 있어
영원한 내 삶도 있었어라

수령님 전사된 영예
죽음앞에 악형앞에
광명의 태양 우러러
승리의 힘을 억세게 가다듬던
당원의 참된 삶이 있어라

감옥에서 나와

비전향장기수들 서로 만나면 안된다
모임에 참가해도 안된다
거주지를 떠나도 안된다
된다는 말 하나도 없는
악법을 지키면 비전향이 아니지

서울에 갔었다고
평양학생소년예술단공연
김치깍두기 맛 참 좋시다를 보았다고
악법을 휘둘러
재판에 회부한다고
오라가라 성화로다

여기서 뒤걸음칠 우리가 아니다
그런속에서 지친 몸 끌고
하루하루 고된 일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그러나 량심의 당비가 모아질 때
그것은 행복이고 기쁨이었다
그것은 내 삶의 전부였다

위대한 장군님 펼치신 6.15공동선언
전사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
대하되여 끝없이 흐른다

2000년 9월 2일
그날은 영광의 날이었다
그날은 승리한 조선의 날이었다
그날은 온 세계가 평양을 향하는 날이었다

조국으로

가시철조망을 끊는다
분계선을 허문다
아 나의 조국
얼마나 그림고 그림던 조국이나

나도 울고 안해도 울고
울지 말자 울지 말자
가슴을 더듬어보면
높뛰는 심장에 당비를 안았다

차넘치는 꽃물결
올려가는 환호의 메아리
잘싸웠노라 잘 왔노라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구나

눈물이어 몇어다오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을 보게
다시 한번 받들자 조국아

나의 조국이여

조국에서

안해 달려와 열쌍안긴다
36년만에 다시 만나는 안해
유복녀로 태어난 딸 목에 매달린다
처음 보는 나의 딸
오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딸이

아버이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천하를 주셨습니다
비전향장기수 당비 안고 조국에 왔습니다
장군님을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웃는 밤
백발의 안해는 신혼의 그날처럼
수줍은듯 부끄러운듯
두손에 정히 받들어올린다

여보!
이것이 당신의 당비예요
36년을 하루와 같이 모아두었던
당신의 당비예요

저도 모르게 가슴을 더듬는다
품속에 고이 간직한 나의 당비
이런 때 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라
세상에 정녕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몰랐던 반평생
우리 이렇게
심장이 하나되여 고통치지 않았던가

오직 당만을 믿고
오직 당만을 따르며
어느 하루 한순간도
심장의 박동마냥
당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부부
당을 따르는 마음은 우리 서로 하나였구나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산다
또 이렇게 살리라

원썬들의 고문이 살점을 뜯어내는
단두대에서

누가 보는데 없는 절해고도에서도
죽음이 앞을 막아서도

이렇게 받들리라
이렇게 따르리라
영원히 우리 당만을
영원히 우리 장군님만을...

해병시절 그 아침처럼

김창호

4월의 아침하늘 붉게 물들이며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 우러르니
이 마음속에 파도쳐오누나
저 영광의 기발 나의 함에 올리던
그날의 격정의 환희가

내 옷깃 정히 여미며
장식기발 이채로운 나의 함
함선호각소리 갑판에 올리던
군항의 그 아침에 내 서보나니

그러면 안겨온다
파도갈기 날개처럼 펼치고
격랑을 날아넘던 갑판우에서
해병들의 가슴가슴에
조국의 바다를 통채로 안겨주시던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영상

아 메아리쳐온다
조국의 바다를 주름잡으며
해풍에 절고 멀미에 억세여진
청춘해병들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 우러러
목메여 터치던 환호성이여

저 기발이여라
집채같은 함선도 가랑잎처럼 떠밀리우는
망망대해 해상근무 한밤에도

조국땅 한복판에 서있는듯
마음 든든케 해준것이

눈에 삼삼 안겨와라
전호도 은폐호도 없는 함선우에서
돌격침로 향해 내달릴 때면
위훈으로 부른 승리의 기치였어라
머나먼 항해에서 돌아올 때면
반겨맞아주던 조국이였어라

우러를수록
심장은 커지고배짖은 든든해지더라
따를수록
천만대적도 물거품처럼 부서버리며
바다도 타고았을 넘치는 기상으로
무적의 함대 그 위용 펼쳐온 우리였거니

나의 함 마스트우에 휘날리던
신념의 기발 승리의 기발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여
내 비록 함선을 내렸어도
조국의 바다를 가슴에 안고 피를 끓이던
해병시절 그 마음으로 우러러 변함없으려니

아 푸른 하늘 끝까지 붉게 물들이는
저 운명의 기폭아래 이 몸 세우고
내 한생 살리라
병사의 복무의 배길 이어가리라

읽히우게 쓴다는 의미를 두고

정영종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9월 나라의 최북단에 자리잡은 3월5일청년광산을 찾으시여 사회주의선경을 룡가하는 공산주의선경이라고, 백만점리상촌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다름아닌 그 광산 로동계급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을 쓰게 된것은 나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그들의 투쟁과 위훈을 응당한 높이에서 형상하지 못한 죄스러움 또한 크다.

작가라면 누구나 독자들의 사랑속에 널리 읽히우는 작품을 쓰려고 모대긴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 소원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이번 내 소설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무엇이 부족했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는 매 작품에서 자기가 발견한 뉘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와야 한다.》

뛰니뛰니해도 독자들은 작중인물의 성격이 새롭고 매혹적일 때 그에 끌려 밤을 패며 읽는다. 하여 나 역시 현실체험의 첫 목표로 반할만 한 성격의 발견을 내걸었었다. 그러자면 우선 진짜 광부까지는 못될망정 그들의 친구로는 되여야 했다. 광산생활이 난생처음이었던것만큼 그것을 깊이 파악하자고 해도 달리 할수 없었다.

그래서 부지런히 채굴장의 발파소깡속에 뛰어들어 착암기도 잡아보고 담배도 함께 나눠 피웠으며 선광장의 파쇄기며 마광기를 파고들기도 했다.

한달쯤 지나니 광산물계가 제법 환해졌다. 무엇보다 기쁜것은 그사이 나를 스스럼없이 집으로 초청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진것이었다.

그 과정에 무슨 이야기인들 듣지 못했으랴. 소설에 썬여진 주인공 렬진옥지배인의 좀 기이한 총각시절 련애담도 그렇게 알게 된것이었다. 점차 내 머리속에는 그지없이 소박하면서도 웅심깊고 아름다운 광부들의 성격이 뚜렷이 자리잡혀갔다.

그렇게 사귄 친구들이 하나, 둘 내 소설권내에 착착 들어섰다. 소설초고는 거의 일사천리로 씌여졌다.

그런데 그 초고가 작가들의 큰 불만을 자아낼 줄이야... 무엇보다 기업경영과 관리에서 주도세 밀하고 전개력과 통솔력이 뛰어난, 하여 첫 대면

에서부터 나를 혹하게 만들었던 주인공— 지배인이 일박에 모르는, 정이 안 가는 인물로 그려졌다는것이었다.

《잘 친하지 못했던게지.》

하고 한 작가가 룡삼아 던진 말이 나를 다른 측면에서 정신들게 했다. 교제는 많이 했으되 구태여 더 보탬것도 없는 완성된 일군의 전형으로서 그대로 써도 모두가 반할것이라고 믿고 써갈것이었이 결국 사업행정의 렬거로만 되여버린것이였다.

흔히 주인공보다 상대인물의 형상이 더 인상에 남고마는 소설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된다.

원형이 훌륭하면 대뜸 흥분하여 만세부터 불러놓는, 오늘의 그 완성을 위하여 원형이 당해온 좌절과 아픔, 눈물과 모대김에는 침투하지 않은 결과인것이다. 후에 더 깊이 파악해보니 내 소설의 주인공은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의 높이에 자신을 따라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매일처럼 몸부림치며 채찍질해가는 무섭도록 요구성이 강한 인간이었다. 바로 그 정신적매력을 파지 않았으니 어찌 정이 갈수 있었으랴.

너성들이 잘 그려지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의 딸인 광산병원의사 렬정옥이 성격은 물론 형상뉘도 명확치 못한 일치기로 그려졌다고 했다. 옳은 비판이었다. 주인공에게 가정적짐을 지우면 보다 인간답게, 정이가게 형상될듯싶어 억지로 고안해낸 인물이 그였던것이다.

보다 놀라운 의견은 내가 그중 애착을 기울여 형상했다고 할수 있는 너주인공—옥수금과 애어린 굴착기운전공처녀 리춘애를 하나로 합쳐도 무방할것 같다는 소리였다. 한판에 찍은 쌍둥이라는 것이였다. 현실에서는 그리도 제나름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던 그들이 어찌하여 소설에 출현하자 개성의 불꽃이 꺼지고말았는가?

인물 하나가 빠지면 소설은 절반나마 허물어지게 된다. 그래서 끽끔거리며 쌍둥이모상을 지워보려고 모대기는 과정에 어찌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처녀의 말투며 사고수준이 거의 한본새였던것이다. 나이나 가정환경, 학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때나 멋진말을 내뱉고 지성적으로 사고하는, 이를테면 작가인 나 자신의 사고와

언행을 그들에게 강요한 결과였다. 너자라면 덮어 놓고 곱게만 그리려는 미숙한 창작습벽의 탓이기도 했다. 오직 그 인물 하나만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개성의 탐구야말로 독자가 반할수 있는 미가 아니겠는가.

채취공업성 부국장으로 등장하는 박치명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 문단에서 너무도 자주 경종을 울려온, 《부》자가 달린 일군을 부정으로 형상한 도식의 명백한 복사판이었던것이다. 작품의 극성을 조성해보려고 현실에는 있지도 않은 인물을 고안해냈으니 달리 될수 없었다.

물론 허구인물을 고안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생활의 논리, 형상의 논리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소리치며 자기를 주장해나서기도 하기때문이다. 소설에 나오는 광산의 산 력사— 옥준보로인이 바로 그런 허구인물로서 자기의 당당한 몫을 가지고있다.

문제는 고안된 인물이든 실재한 인물이든 작가가 그에게 스스로 반하여 함께 울고웃으며, 지어 애인에게처럼 사랑까지도 속삭일만큼의 깊은 정을 기울여 형상할 때만이 독자 역시 반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 성공한 작품을 써낸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런 애인을 가지고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방의 노을》의 어떤 인물이 내 애인으로 되어보았던가? 불행하게도 없었다. 취재대상, 작품을 만들기 위한 리용대상으로 사귀어 사람들이니 완전한 의미의 친구로 될수 없었고 애인은 더더구나 될수 없었던것이었다.

진정으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다면 그런 인물은 엄밀하게 계산된 형상과제를 주어 등장시켜도 산 호흡을 해낼수 없다는것이 이 소설창작과정의 중요한 교훈이다.

편집단계도 소설의 형상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공정이다. 누구나 제 나름의 완성을 기했다고 자부할 때 작품을 편집부에 제출한다. 그러므로 편집원의 의견앞에 허심해지기가 쉽지 않다.

나에게도 살점을 뜯어내는것 같은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었는데 집필과 추고과정에 어지간히 맥을 뽑았던터라 여간 짜증이 나지 않았다. 그저 작품의 생리도, 작가의 의도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 까박갈기만 했다. 하여 얼굴을 붉히며 고집하고 억지를 부리다가 마지못해 몇글자 고치는 식으로 대충 땀때기한 대목이 적지 않다.

출판후에 읽어보니 그런 대목은 어김없이 문장의 룰동이 파괴되거나 내용전달이 어설프다. 편집원의 수준문제는 결코 아니였다. 자기 작품을 작가만큼 깊이 파악한 사람이 어데 있겠는가. 또 작가의 문체를 그대로 재현할 사람은?

마지막문장 하나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높은 요구성을 지니지 못한 작가는 참된 의미의 작가가 아니라는것을 그 망그러진 글줄들이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며 깨우쳐주었다.

일부 작가들, 특히 장중편을 다루는 소설가들속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창작과정의 수고가 못내 아깝고 재작업의 부담이 고달파 미약한 형상을 둔구라는 의견까지도 몇마디 대사나 설명문장으로 대치해버리는 현상이 없지 않다. 그렇게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해를 여러번 넘기고 나중에는 그 작가의 역량으로는 완성하지 못하리라는 진단을 받고 아주 기각되고마는 작품까지도 있다. 제때에 머리를 돌려 대담하게 콕 수술하는것이 시간도 훨씬 단축하고 작품의 질도 비약시킬수 있는 방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읽히우는 소설을 쓰는데는 창작론리를 지키는 문제도 포함된다고 할수 있다.

내가 추고과정을 끝냈을 때였다. 신문과 텔레비존으로 단 몇달사이에 생산능력을 일약 2배로 확장한 우리 광산로동계급의 놀라운 투쟁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내 작품이 낡은것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작가적량심으로 보아도 즉시 광산에 달려가 그들의 새 위훈을 보충하는것이 옳았다.

그럼에도 나는 여직껏 써놓은것이 아깝고 재구성해야 할 품이 곤욕스러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빨리 출판에 넘기자는 리기심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었다.

몇달전 독자모임차로 광산에 갔을 때 나는 그동안 변모된 광산의 현실을 두고 자신의 작가적량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현실은 이렇듯 비약적으로 전진하는데 나는 주저앉아 자기생각만 하며 주저했으니... 그때 많은 친구들이 속편을 계속 써달라고 부탁했던것도 따져보면 자기들의 생활을 다 그리지 못했다는 에두른 비판일것이다.

작가는 창작을 시작하면서 작품의 주인공들과 무언의 도덕적약속을 한다. 생활의 진실을 쓰겠다는, 그네들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 세상에 자랑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나는 어긴것이다.

소설의 첫 폐지부터 기대감과 흥미를 안겨주는 문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좀 유치하게도 나는 《북방의 노을》을 처녀들의 밤목욕장면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도 사실이었다. 독자들속에서 처음부터 재미있게 읽히운다는 반영이 나온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초고단계에서 그 장면은 논란을 일으켰다. 주제를 암시하고 사건을 제시하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기보다 독자들의 관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종의 홀림미끼같아 불쾌하다는 것이었다. 독자를 기만하지 말고 정직한 이야기로 시작하라는 소리였다.

굳이 철회하라는 요구는 없었고 나 자신 미련이 커서 그대로 남겨두었지만 《정직한 이야기》라는 말은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렴정옥의 형상이 마감까지 진실하게, 홀륭하게 완결되었더라면 흥미를 돋구면서도 정직한 장면이 될수도 있지 않았겠는지.

기대감은 제목에서도 크게 온다. 이전에 쓴 장편소설 《숲의 노래》의 제목을 두고 여러 사람이 아쉬움을 터놓던 기억이 난다. 무슨 립산사업소나 산림감독원의 생활을 담은 소설인줄 알았다는 것이었다.

《난 전쟁물을 좋아하는데 하마트면 펼쳐보지도 않을번 했더니깐요.》

개중의 한사람은 이런 주를 달기까지 했다.

물론 멋부린 기이한 제목으로 독자의 구미를 돋구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 역시 기만이다. 그렇다고 좋은 상품에 아름다운 상표까지 붙여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끄는 식의 효과를 굳이 외면할 필요야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제목을 두고 고심한다. 독자앞에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의 얼굴이 제목이

기때문이다. 그러되 요구가 없는것은 아니다. 작품전반을 관통하는 주제가 암시되고 양상도 엿보이도록, 주인공들의 지향까지도 감득되도록... 보다는 오직 그 작품 하나에만 붙일수 있는 유일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앞서의 《숲의 노래》로 한번 랑패본적이 있어 나는 무던히 골을 썩인 끝에야 겨우 지금의 제목을 찾아냈는데 제법 형상적으로 달았다고 만족한 그것이 이번에도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지 못할번 하였다. 너무 범박했던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작가는 책의 장정과 매 삽화에도 관심을 돌려 화가를 계발시켜야 한다. 그래야 색에 대한 독자들의 예민한 시각에 만족을 주어 선뜻 펼쳐볼수 있게 안내해주는 것이다.

써놓고보니 작가들의 창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홀륭한 경험은 없이 결발림의 상식같은 소리를 되썩은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 그저 단 한가지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할뿐이다.

더불어 나의 결심도 피력코저 한다. 현재 창작중인 조국해방전쟁영웅주제장편소설을 독자들이 널리 애독하는,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내닫는 걸음걸음을 힘있게 추동하는 명작으로 완성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에 드리는 선물로 몇땀이 내놓겠다는것을!

상식

창의록

창의록은 창의를(나라에 란리가 났을 때 의병을 일으키는것.)문을 비롯하여 반침략애국투쟁과정에 발표된 격문(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투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동적인 글)류에 속하는 글들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창의록은 그 내용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고 민족앞에 수난이 닥쳐왔을 때 애국지사들이 의병을 조직하고 싸움에 떨쳐나서면서 광범한 군중을 결기시킬 목적에서 쓴 글들과 함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따로 모아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일반 격문집들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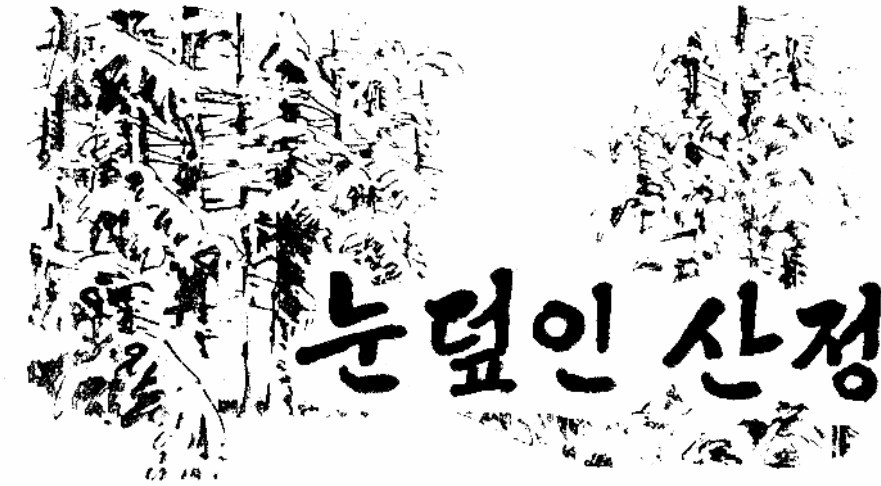
창의록에 수록된 글들은 그 내용에서 애국애족의 사상적지향이 강렬하고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

와 경멸의 감정, 침략자에게 투항굴종하는 매국노들에 대한 날카로운 규탄, 원쑤격멸의 투지와 신념, 투쟁에로의 호소가 특징적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친 조헌이 쓴 글들 가운데서 《중들에게 보내는 통문》을 비롯하여 창의문과 격문류에 속하는 글을 모아 편찬한 《항의신편》, 평안도지방에서 의병투쟁을 벌린 립중량과 윤봉, 차은진, 차은로형제, 김진수 등의 투쟁사적을 묶은 《당산의렬록》등을 례로 들수 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싸운 사람들의 애국적사적을 담은 다양한 형태의 창의록들은 전쟁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정론문학발전의 면모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문학유산으로 되고있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성과여부는 지휘성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공동사설에서-

단편소설



최경훈

1

나이지속한 한 일군이 깊은 사색에 잠겨 눈내리는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림업성에서 오래동안 사업해온 방기열이다.

너부족한 그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알릴듯말듯 담겨져있다.

아래단위에 내려가는 그의 심리는 이번따라 류달리 착잡했다.

(림춘석, 그는 어떻게 일하고있을가?)

방기열은 열차가 퍼그나 달리였을 때까지도 침묵을 지키고있다. 그가 지금 생각하고있는 사람은 성에서 일하다가 파오를 범하고 천암림산사업소 지배인으로 내려가 일하고있는 림춘석이었다.

결쾌스러운 그의 성미로 보아 가만있을 사람이 아닌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석양녘 호수가의 수면처럼 조용했다.

(혹시 의기소침하여 맥을 놓은것이 아닐가?)

림춘석은 성의 생산을 담당한 책임일군으로서 작년 여름에 한해 통나무생산계획을 상반년안으로 끝낼 욕심을 안고 북부고산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림산사업소에 내려갔다가 돌이킬수 없는 파오

를 범하였다.

그가 림산사업소에 도착했을 때는 토장에서 화물역까지 실어내지 못한 통나무가 산같이 쌓여있었다.

림춘석은 문제가 토장에서 철도화물역까지 운반할 연유가 없고 로상에 보강해야 할 오랜 나무다리공사에만 걸려있는것이 아니라 보다는 일군들의 대담성이 부족한데 있다고 생각했다. 하여 그는 성의 상사에 긴급과업을 주어 모자라는 연유와 장대차 2대를 내려오고 사업소가 가지고있는 프락포르까지 총동원하여 주야간 운재전투를 벌리였다.

사업소 설계일군들이 60메터나 되는 오랜 나무다리가 갑자기 실리는 하중을 견디어내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는 우선 통나무들로 간단히 보강해놓고 년간계획부터 맞춘 다음 롱크리트다리로 교체하자고 우기였다.

그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되였다.

쌓여있던 통나무운재작업이 거의 끝나가고있을 무렵이었다. 천곡천다리의 한 경간이 무너져내리며 통나무를 만재한 장대차와 뒤따르던 프락포르가 련달아 다리밑으로 구겨박혔다. 다행히 인명피

해는 없었으나 두명의 운전사가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 과학기술적담보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욕망을 앞세운 그의 관료주의적인 대담성이 끝내 일을 저질렀던것이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림춘석은 전면적인 검토를 받고 천암림산사업소 지배인으로 내려갔던것이다. ...

어느덧 열차는 고원역에 들어섰다. 열차가 역두에 멎어서자 많은 손님들이 올랐다. 마주앉았던 손님이 려행가방과 두개나 되는 짐을 들고 일어서자 방기열은 그의 짐을 승강대까지 들어다주었다.

그가 손님을 바래우고 돌아설 때였다. 등에 배낭을 진 로인 한분이 려행용가방을 들고 승강대로 올랐다.

방기열은 얼른 로인의 가방을 받아주며 팔을 잡아 거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저쪽에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로인을 데리고 열차칸으로 들어왔다.

방기열이 가방을 선반위에 올려놓는데 로인이 갑자기 《이게 누구요? 방기열비서가 아니요?》하고 웨쳤다.

방기열은 고개를 돌려 로인을 쳐다보았다.

《아니, 양태석아버이가?!...》

《옳구만, 이 사람 기열이.》

두사람은 너무 반가와 두손을 맞잡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양태석로인은 방기열이 림춘석과 함께 군대에서 제대되어 천암림산사업소에서 벌목공생활을 시작할 때 첫 작업반장이였다.

《어딜 가셨됐습니까?》

《딸네 집에 나들이를 갔다오는길이네.》

《지금은 뭘하고계십니까?》

방기열은 반가운김에 로인의 손을 잡은채 두서없이 물었다.

《천곡양묘장에서 부대로력으로 나무모키우기를 도와주고있네.》

천곡양묘장은 천암역에서 한정거장 더 가서 있는 천암림산사업소 양묘장이였다.

《그래 자넨 어델 가는 길인가?》

로인이 물었다.

《천암림산사업소에 가는 길입니다.》

방기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로인은 돌연 얼굴에 그늘을 지었다.

《거기는 왜?...》

그의 말투가 곱지 않았다.

방기열은 로인의 말에서 그 어떤 노여움을 안고있음을 가늠할수 있었다. 분명 림춘석의 일때문 일것이다.

자기 사업소에서 나라를 받드는 큰 일군이 돌쪄이나 난데 대하여 큰 자랑으로 여겨오던 로인이였다.

방기열이 침묵을 지키자 양태석은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래 임자가 곁에 있으면서, 더우기 비서까지 한다면서 춘석이 그 사람을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두었던 말인가. 임잔 대체 뭘했나, 응?!》

그리구 또 자기 친구가 파오를 범하구 내려왔으면 응당 제일먼저 찾아와봤어야지 않겠나. 헌데 이제야 내려오다니...》

방기열은 가슴이 뜨끔해나 아무 말도 못했다.

《물론 일이 바쁘겠지. 하지만 사람이 그 어느때든 잊지 말아야 하는게 친우의 우정이구 동지간의 의리가 아니겠나.》

《제 잘못이 큼니다.》

방기열이 조용히 말하자 양태석은 더 다른 말이 없었다. 두사람은 성에가 하얗게 불린 창가에 눈길을 준채 이윽도록 앉아있었다.

방기열이 양태석로인과 헤어져 천암역에 내린것은 한밤중이였다. 산간오지여서인지 무너지듯 내리는 눈발속에 세명의 손님이 나들문을 빠져나왔다.

천암림산사업소는 역에서 한 30~40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방기열도 기다림칸에서 좀 눈을 붙였다가 날이 밝으면 떠나기로 했다. 전화 한통없이 조용히 떠난 길이어서 마중나올 사람도 없었다.

방기열은 려행용가방을 든채 기다림칸안에 두줄로 놓은 장의자를 두루 살펴보았다. 맨 구석쪽에 빈자리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가방을 놓고 자리를 잡고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한대 피우고 앉아 시간을 보낼 작정이였다.

그가 몇모금 빨아 깊숙이 삼키는데 북쪽에서 나오는 열차가 역홈에 들어서고 손님들이 우르르 기다림칸으로 들어섰다. 맨 선두에서 들어온 두툼한 솜옷차림의 웬 젊은이가 곧바로 다가오다가 주춤 멈춰섰다.

방기열은 《앗소. 자리가 비었는데...》하고 한

마디 건네었다. 기열은 육감적으로 젊은이가 한쪽 팔을 잘 쓰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그런데 젊은이는 자리에 앉지 않고 방기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나직이 물었다.

《저... 혹시 비서동지가 아십니까?》

방기열은 깜짝 놀라 커다란 눈을 껌벅거렸다.

《동무가 어떻게 나를 아오?》

그러자 젊은이는 싱긋 웃음을 지었다.

《비서동지가 맞지요. 저... 전국림업부문열성자 회의때 비서동지를 보았었습니다.》

《동무도 그 회의에 참가했던 모양이구만.》

방기열은 오랜 지기나 만난듯 그의 손을 덥석 마주잡았다. 그리고 그를 곁에 앉혔다.

《천암림산에서 일을 하오?》

《예.》

젊은이는 무척 쾌활해보였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오?》

《트락포르운전수를 하다가 지금은...》

《지금은 뭘 하오?》

《저... 기술준비실에서...》

그의 어조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듯 했다.

《트락포르운전수를 그만두었다.》

여러가지 의문과 추측이 뒤엉킨 방기열의 이 말은 한순간에 젊은이의 얼굴을 불에 달군 쇠편 처럼 빨갛게 만들어버렸다. 초면에 상대를 너무 무안하게 만든것 같아 방기열은 더 묻지 않으려는데 젊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고를 쳤지요.》

《사고를?!》

《작년 6월 추레라에 통나무를 만재한 트락포르를 천곡천다리밑에 구겨박았었습니다.》

그 순간 방기열은 머리가 아팠했다.

그럼 이 젊은이가 림춘석이 저지른 사고의 피해자란 말인가. 차거운 소름발이 온몸을 감쌌다.

《모든게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운전수들이라는게 다리보수도 제때에 하지 않고 일을 했으니...》

젊은이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

방기열은 말없이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가 돌보이였다.

《결국은 운전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팔을 다쳤으니까요. 하지만 그런건 문제도 아닙니다.》

후회가 있다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으로 전국림업부문열성자회의에까지 참가했던 제가 일선

에서 물러났다는 그것뿐입니다.》

《...》

방기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숨옷소매속에 감추어진 그의 왼팔을 만져보았다. 부자연스러워하는 감각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짜늘하게 얼어들었다.

얼마간 피로운 침묵을 지키고있던 방기열은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지금 어딜 갔다오는 길이요?》

《지배인동지를 찾아갔었습니다.》

《지배인을? 그가 지금 어디에 있소?》

방기열은 다시금 의아한 시선을 던졌다.

《서두수발전소에 가있습니다.》

《거긴 왜?》

《지배인동지는 우리 사업소에 오자마자 천곡천 다리공사에 달라붙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썩은 다리기둥만 보강하채도 많은 통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실사 그렇게 나무다리를 새로 놓는다 해도 그것이 몇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나 이왕이면 철근콘크리트다리로 교체하자고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심사숙고하시더군요.》

절린것은 강제였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철근 한토막 척척 줍니까. 게다가 생산은 생산대로 밀고 나가야지. ... 확실히 그전에 생산지도를 내려올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느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아, 전달에 벌써 유희자재로 수집한 철근을 총동원하여 중심경간타임을 다 했는데도 도로와 잇당은 다리양쪽에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고 타임을 중지시켰습니다. 다리 양쪽은 힘을 많이 받는 곳도 아니지요.

누가 서두수발전소 주변에서 철근이 묻혀있는걸 본적이 있다고 하자 지배인동지는 청년들을 데리고가서 그것을 끌어내고있습니다. 주인인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해 사고를 쳐놓고 지배인동지를 고생시키는것 같습니다. 정말 안됐습니다.》

방기열은 코마루가 시큰했다. 젊은이는 확실히 로동계급답게 대범하고 인정미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동무는 왜 지배인을 찾아갔겠소?》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다.

《트락포르를 다시 타자구요.》

《상한 팔을 가지구?!...》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저야 제대군인이 아닙니까.》

방기열은 뜨거운것이 옥 치밀어 말을 못했다. 한참후에야 그는 비로소 《동무 이름이 뭐요?》 하고 물었다.

《양지풍입니다.》

《거, 이름이 좋구만. 그래 승인은 받았소?》

《승인해줄게 뭡니까. 공연한 걸음만... 지배인동지는 늘 저한테 미안해합니다. 제가 이렇게된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

방기열은 젊은이의 솔직한 말을 다 듣고는 그 길로 서두수로 떠났다. 마침 뒤따라 들어오는 렬차가 있었던것이다.

그가 서두수발전소 언제말에 도착했을 때 림춘석은 서리꽃이 하얗게 피어난 강변의 버드나무밑에서 용접선팔을 번쩍거리며 물속에서 끌어낸 강철구조물을 토막쳐 청년들과 함께 화물차에 싣고 있었다.

방기열은 한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져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기름때가 번들거리는 솜옷이며 장갑이며 신발은 말이 아니었다. 입에서는 비자루같은 입김이 확확 내불리고 눈섭에까지 성애가 하얗게 매달리었다. 얼굴이 펴 수척해진것 같았다.

문득 눈곱이 저려들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일해온 그를 잘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저미었다.

잠시 마음을 다잡은 방기열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손에서 용접면을 뺏아들었다.

림춘석은 함께 일하던 용접공인줄 알고 《한대더 불이라구.》하며 용접면을 도로 뺏으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비서동무가?!》

얼마나 놀랐는지 림춘석은 한걸음 물러서기까지 했다.

방기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접봉을 강철구조물에 대고 거세차게 지저대기 시작하였다. 시뻘건 쇠물이 녹아내렸다. 피롭던 마음의 웅이가 풀려내리듯이...

한편 림춘석은 방기열이 어떻게 예고도 없이 문득 여기에까지 나타났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는것만은 짐작할수 있었다.

림춘석은 얼마쯤 물러나 버드나무밑의 얼어붙은 바위우에 장갑을 깔고앉아 담배를 한대 붙여물고 뼈금뼈금 빨았다.

솔직한 말로 방기열에 대한 림춘석의 감정은 좋지 않았다. 그가 평소에 호인으로만 생각했던 방기열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것은 천암림산사업소에서 저지른 사고심의때였다. 그때 자기를 동정해줄줄로만 알았던 방기열이 도리어 랭혹하게 비판하는것을 보고 아연해졌던것이다.

짐을 싸가지고 천암으로 내려오면서 안해의 말대로 일을 잘하던 사람이 덜컥 사고를 쳐놓았으니 분해서 그럴수 있었겠다고 넓게 생각해보기도 하였지만 가슴속에 옥땃힌 아픔은 도저히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은 어려울 때 봐야 진속을 알수 있다더니...)

줄곧 이런 생각으로 그는 6개월이 지나도록 침묵하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강변에서 그를 만나게 되니 놀랍지 않을수 없었다.

2

림춘석지배인과 함께 철강재를 실은 화물차를 타고 림산사업소로 돌아온 방기열은 외래자합숙에 자리를 잡고 천곡천다리공사장을 돌아보았다.

림춘석이 동행하였다. 자기 집으로 잡아끄는것을 마다해서인지 그는 방기열을 매우 어성버성한 태도로 대하였다. 묻는 말에나 대답할뿐이다.

실어온 강재를 넣고 콘크리트타입을 하면 다리공사는 2~3일안에 끝날것 같았다. 방기열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다. 그런데 림춘석은 콘크리트가 굳자면 한주일은 잘 걸려야 할것 같다고 하였다. 듣던바대로 무척 소심해진것 같았다.

《콘크리트를 친 다음 구우에 젖은 가마니를 깔고 불을 피워 열을 가하면 2~3일이면 되지 않겠소?》

《?!...》

림춘석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방기열을 쳐다보다가 통명스레 한마디 했다.

《한주일이 문제가 아니지요. 산판에는 찍어놓고 토장까지 끌어내리지 못한 통나무가 많이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프락포트를 움직일 기름이 있습니까.》

그 순간 방기열의 귀전에는 한해전 전화통을 들고 지배인들에게 온 청사가 떠나갈듯이 《앉아서 우는 소리만 하면 통나무가 제발로 걸어서 토장까지 모여온다오? 무슨 조건타발이 그렇게 많소. 소발구로라도 끌어내리란 말이요.》 라고 호통

치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기열은 미간을 찌프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래동안 우에서만 일하던 그가 현실에 부닥쳐 실로 힘겨워한다는것을 직감할수 있었다. 십분 고충이 이해되었다. 게다가 심리적인 타격은 얼마나 크겠는가.

다음날 청년들과 함께 콩크리트타임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 합숙으로 돌아온 방기열은 식사를 한 후 가방을 들고 산지합숙으로 올라가던 길에 지배인의 집에 들렀다.

마침 림춘석이 사무실로 나오려고 토방을 내려서다가 방기열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주인이 쓴 오이보듯 하는데 안주인에게라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훌쩍 떠나면 인사불성이지요.》

방기열은 사람 좋게 웃음을 지으며 안마당으로 성큼 들어섰다.

《난 파오를 범한 사람네 집엔 발걸음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빼놓어진 소리였다.

《그렇지 않구. 난 한아빠트에 살던 옥봉동무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구 찾아왔지 림춘석을 찾아오지 않았네.》

김옥봉은 림춘석의 안해였다.

방안에서 류달리 서글서글한 방기열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옥봉은 방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황황히 달려나와 《성일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셨으면 우리 집부터 들리셔야지요.》라고 나무라며 맞아들이었다.

《이 사람 말을 들었지요? 남들의 눈에 띄을까 봐 몰래 숨어서 왔수다. 우리 로친네가 원칙없이 떨어진 사람을 찾아갔었다면 당장 리혼하자고 접어들텐데 이거 야단이구만.》

김옥봉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방기열도 따라 웃었다. 안주인의 얼굴에 티끌만 한 수심도 없는것을 보니 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여보, 당신도 어서 들어오세요. 비서동지가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림춘석은 마지못해 따라 들어오면서 엇드레질했다.

《그분이 날 찾아왔소, 당신을 찾아왔지.》

《에그, 늘 저런다니. 속이 비틀려가지구.》

옥봉은 눈을 빨며 남편을 가볍게 질책했다. 그 성격은 평양에 있을 때나 여기 와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락천적이면서도 원숙한 녀성이었다.

방기열은 안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새 있는 일을 묻기도 하고 평양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아들소식을 물었다.

《참, 그랜 군대에서 소대장을 하다가 군사대학에 입학문건을 썼대요.》

《그렇소?! 거 정말 잘됐구만! 엇그저께 역에 나가 바래준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방기열의 말은 진심이면서도 감성적이었다.

《비서동지네 성일이두 제대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성일이는 림춘석의 아들보다 몇달 떨어져 입대했던것이다.

《예.》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옥봉은 다소 걱정스러운 눈길로 방기열을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편지가 왔더구만요. 그래 당에서 하라는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 애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당비서이구 고향도 평양인데.》

귀온 보리깍처럼 옆에 앉아 듣기만 하던 림춘석이 천정에 데롱데롱 매달린 원추형누룩덩이에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이야기가 끝없이 가지를 치자 림춘석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조금해하는것이 분명했다.

《지배인동무가 처음부터 잡도리를 잘했구만. 일도 많이 하구.》

다리공사를 녀두에 두고 한 말이었으나 림춘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을 돌리었다.

《그런데 짐은 왜 가지고 왔습니까?》

《방을 옮기려구요.》

림춘석은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았다.

《어디루 말입니까?》

《내 산지합숙으로 올라가던 길이요.》

《산지합숙?! 거기가 어디라구.》

림춘석은 펄쩍 뛰었다.

《산지합숙은 해발 1 200메터나 되는 천암산림지에 있습니다.》

《벌목공들이있는 곳이라면 그이상이라도 찾아가야지요.》

방기열이 현장에 올라가볼 생각을 하기 시작한것은 림춘석이 기름이 없어 천암산림지에서 통나무를 끌어내리지 못하고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그런데 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무렵 뜻밖에도 역전에서 헤어졌던 양지풍이 꿈무니에 술병하나를 차고 숙소에 나타났다. 그는 역시 땅크병다운 대들이었다. 이번에는 지배인을 설복하여 자기 문제를 풀어달라고 직방 들이대는것이였다.

방기열은 허허 웃으며 넌지시 한마디 던졌다.

《듣자하니 양동무가 다리설계를 했다면서?》

《지배인동지가 오자마자 현상모집을 조직하는 바람에 군대에서 땅크도하훈련때 수증다리를 놓던 경험을 살려 한장 그려보았습니다. 헌데 그것이 당선될줄이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양동무가 이제야 적재적소에 왔구만. 군대에서 배운 그 재간을 발휘할 때가 됐으니 말ियो.》

양지풍의 얼굴에는 시뻘건 울기가 올랐다.

《비서동지두 참, 다리설계가 오히려 우환거리가 되었습니다. 천암산림지에 끌어내리지 못한 통나무가 산갈이 쌓였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 땅크병 양지풍이 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방기열은 《됐소 됐소. 내 한번 토론해보지요.》 하며 그를 자제시켰다.

그날 저녁 양지풍은 너무 기뻐 산지합숙의 안내는 전적으로 자기가 맡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돌아갔다. ...

방기열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생각하던 림춘석은 고개를 들었다.

《혼자서 가겠습니까?》

《왜 혼자겠습니까. 동행자가 있습니다.》

《누군데요?》

《양지풍이라구, 전에 프락포르운전수였다던데...》

방기열의 입에서 뜻밖에 양지풍의 이름이 나오자 림춘석은 놀라움보다 먼저 낯색부터 흐려졌다. 그 이름만 들어도 미안하고 죄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림춘석이었다. 그런데다 양지풍이 서두수 작업장까지 찾아왔었으니 더욱더 마음이 편안치 않았던것이다.

《그를 어떻게 압니까?》

《그저 이력저력 아는 사이지요. 전국림업부문열성자회의 대표를 왜 모르겠습니까.》

《비서동문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림춘석은 전국림업부문열성자회의때 대표명단의 이름을 기억하고있는줄로 안 모양이었다.

《지배인동무가 오후작업시간이 늦어질가봐 초조해하는것 같은데 나도 양동무와 약속한 시간이 다됐으니 가바야 하겠습니다.》

김옥봉이 산지합숙에 못 올라간다고 한사코 말렸으나 방기열은 부득부득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3

《그래, 양지풍동무가 양아바이 아들이란 말입니

까?》

《그렇네. 자네들이 사업소를 뜰 때 유치원에 다니던 막내녀석일세.》

방기열은 음식을 한구레미 싸들고 산지합숙을 찾아온 양태석로인과 벌써 반시간나마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래서 지배인은 날 보면 지금도 미안해서 어쩔바를 모른다네. 사람이 일을 하느라면 뜻밖의 일이 있을수도 있지. 그렇게두 웅졸하다구야. 사람이 확실히 작아졌어.》

로인은 오랜 로동계급답게 대범하였다.

일이 참 공교롭게 되었다고 생각한 방기열은 할말을 고르지 못하고 《양지풍동무가 보통 꽤남아가 아니더군요.》 하고 한마디 했다.

《별써 만나본게군.》

양태석로인은 조금 놀라와하는 눈길로 방기열을 쳐다보았다.

이때 림춘석이 부지배인과 자재인수원 그리고 운재소대장과 오랜 운재공 몇명을 데리고 올라왔다. 방기열의 제기에 의하여 지배인이 현장협의회를 조직했던것이다.

산지합숙으로 거처를 옮긴 후 방기열은 벌목공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토론해보는 과정에 기술과에서 내놓은 갈구리삭도에 의한 운재가 그중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산꼭대기에서 토장까지 삭도를 놓고 통나무의 자체하중을 리용하여 끌어내리는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였다.

문제는 쇠바줄이였다. 직선거리로 계산해도 5리가 되니 쇠바줄을 왕복으로 늘이자면 퍼그나 있어야 했다. 이 쇠바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여기 현장에서 하기로 했던것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림춘석은 방기열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양태석로인을 보고 주춤했다.

《아바이가 어떻게?!...》

《놀라긴, 허허... 내가 못올데를 왔다. 방비서가 왔다고 해서 찾아왔네.》

로인은 호방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침 잘 왔습니다. 오신김에 협의회에 참가해 주십시오.》

림춘석은 어성버성해하면서도 거침없이 말했다. 그는 방기열에게 어려운것이 없이 아무것이나 제기할수 있는 옛 작업반장이 있는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게 좋겠소. 아바이도 참가합시다.》 방기열이도 호응했다.

협의회는 지배인이 주관하였다.

이미 참모회의에서 락착지은 갈구리삭도건설의

긴박성과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림춘석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토론들을 합시다. 문제는 쇠바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림춘석은 다시 말을 이었다.

《천국천다리공사도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 비서동지가 젖은 가마니를 깔고 불을 피워 콘크리트혼합물을 말리우도록 한것이 은을 냈습니다. 한주일이나 앞당겼거든요. 갈구리삭도를 성공하여 나무를 산판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운반은 걱정없게 되었습니다.》

순간 방기열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림춘석의 말이 어딘가 모르게 그를 바쁘게 만들었던것이다. 그는 속으로 림춘석이 안할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많이 도와달라는 소리인지 동무들도 주인다운 림장에서 분발하라는 말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방기열은 언저지 고개를 들어 부지배인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부지배인이 입을 열었다.

《쇠바줄도 트랙트르기를 못지 않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기름이나 쇠바줄이나 다 갈구갈지요. 그러나 쇠바줄을 해결하면 매번 기름을 태우면서 통나무를 운반하는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쇠바줄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부지배인의 발언도 결국 쇠바줄을 구해야 한다는 강조에 불과했다. 지배인은 두 인수원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꿀먹은 벼어리들처럼 머리만 기웃거렸다. 나이지숙한 인수원이 난색을 지으며 말했다.

《관리국산하 사업소들을 다 돌아보았지만 쇠바줄은 한토막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자재상사에는 있을런지...》

젊은 인수원도 주뭇주뭇 한마디 했다.

《쇠바줄은 기름보다 구하기 더 힘든것 같습니다. 기름이야 바쁜 목에 꺾다 쓸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배인이 벌컥 성을 냈다.

《똥판지같은 소릴 하지 마오. 쇠바줄문제를 토론하는데 기름은 무슨 기름이요.》

《제가 한번 황철이나 성강에 가보겠습니다.》

다른 인수원의 말이였다.

《어떻게 해서든 자체로 해결할 생각을 해봅시다.》

무겁게 하는 림춘석의 말이였다.

방기열은 지배인이 속이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에게 지배인이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방기열은 피로왔다. 대체로 아래사람들은 걸린 고리를 척척 풀어주는 힘있는 일꾼들이 내려오는것을 좋아한다. 빈손으로 내려온 자신이 송구스럽게까지 하였다.

방기열의 안색을 한동안 지못게 응시하던 양태석로인이 으흠으흠하다가 석싹한 음성으로 한마디 했다.

《다들 뾰족한 수가 없는것 같은데 지배인동무, 내 한가지 안을 제기하라우?》

림춘석이 어서 말해보라고 권했다.

《이야기하지요. 우리 고장에서 해결할수 있는 피나무바줄을 리용하면 어떨까요? 내 어릴 때 류벌공인 아버지가 떼동에서 피나무바줄로 통나무를 비끄러매여 떼를 못는것을 보았수다. 팔뚝만한 굵기로 바줄을 짜서 쇠바줄대용으로 리용할수 없을가요?》

그렇듯한 묘안이였으나 무엇인가 잠시 생각을 굴려보던 림춘석이 《위험합니다. 이 추운 고산지대에서 바줄이 동파되어 끊어지는 날엔...》하고 도리질을 했다.

《안됩니다. 모험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림춘석은 이렇게 말하며 얼핏 양태석로인을 슬쳐보았다. 다시는 사고를 반복할수 없다는 그의 림장은 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완강하였다.

지배인이 이렇게 나오자 다른 사람들도 더 말을 붙이지 못했다.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수야 있는가?...)

방기열은 마음이 쓸쓸하였다. 그러나 아무 내색도 없이 《또 다른 방도는 없을가요?》하고 말하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부지배인이 웅색했던지 방기열에게 《그것은 우리 몫이니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 부언했다.

《나도 성자재상사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방기열이 하는 말이였다.

지배인의 얼굴이 좀 밝아졌다.

림춘석이네가 토장으로 내려가자 방기열은 양태석로인과 함께 무릎을 치는 눈에 푹푹 빠지면서 삭도를 매겠다고 하는 산마루로 올라갔다. 아릅드리 이깔나무, 분비나무들이 짙 들어찬 산마루에서 토장은 급한 경사면을 따라 아득히 내려다보였다.

림춘석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되돌아 올라왔다.

《허참, 이젠 정신이 없습니다. 한가지 소식을

전한다는것이 그놈의 골치거리 쇠바줄때문에 깜빡 잊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비서동무에게 급히 알려주라던걸 그만...》

숨을 톹으며 이렇게 말하는 림춘석의 얼굴이 밝지 못했다.

《무슨 소식이길래?!...》

방기열은 어정쩡히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웬일인지 림춘석은 인차 말을 잊지 못했다.

《내려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어서요.》

림춘석은 말뚝처럼 서있는 방기열의 숨옷소매를 잡아끌었다.

《어딜 내려간다는거요. 어서 말하오.》

《어제 저녁에 집의 성일이한테서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댔다누만요.》

《우리 성일이한테서?!》

방기열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뭔가 짐작되는 것이 있었던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어디서 전화를 한답니까?》

《도립업관리국에서 하더랍니다. 제대되어 림업 부문에 배치받았답니다.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내려와있다니까 그럼 천암림산으로 아예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

방기열은 말없이 키높이 자란 이빨나무우듬지에 초점없는 시선을 주었다. 그 눈길은 어딘가 모르게 허둥거리고있었다. 그러다가 눈을 한웅큼 쥐고 두손으로 자꾸만 뽕뽕 다지었다.

한참후에 림춘석이 조용히 뇌이었다.

《비서동무도 이제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긴 나도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줄 때도 됐지, 허허...》

방기열은 호방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림춘석에게 류달리 서글프게 들리었다.

4

눈덮인 산판에서는 벌목작업이 한창이여서 여가저기 찍어넘긴 통나무들이 수없이 널려져있었다.

벌목공들은 사방에서 기계톱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희열에 넘쳐 일하였다. 나무가 넘어가면서 하늘공간을 하얀 눈가루로 가득채울 때마다 《넘어간다!—》하고 쾌재를 울리는 벌목공들의 랑만에 넘친 목소리가 산판에 메아리쳤다.

방기열은 산마루에 퍼더버리고앉아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토장에 눈길을 준채 어제 저녁 사업소에 내려가 성자재상사와 전화련계를 가지던 일

을 생각했다.

상사사장은 당장 그만한 량을 보장하기가 곤난하다면서 국가계획에 물려 해결받아야 한다고 몹시 송구해하였다.

방기열은 아래일군들의 고충이 충분히 느껴졌다.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겠는가?)

정치사업도 빈말로 끝나면 공담에 불과한것이다. 안타까왔다. 사업소 참모회의에서 누가 말했던것처럼 종당에는 길을 넓히고 소발구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것 같았다. 하루하루 날이 가니 조급해지지 않을수없었다.

너무 신경을 쓰던 나머지 방기열은 도립업관리국에 전화를 건다는 생각마저 껌껌히 잊고 돌아섰다. 퍼그나 와서야 그 생각이 났다. 하지만 전화를 하겠다고 온 길을 되돌아갈수 없었다.

밤이 깊어 산지합숙에 도착한 그는 얼마간 눈을 붙였다가 아침 일찌기 벌목공들과 같이 일어나 삭도대를 세울 산마루에 올랐던것이다.

뜸해졌던 눈이 다시 평평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잠간사이에 방기열의 숨옷우에도 눈이 허영게 쌓이였다.

눈사람이 되어 우두커니 앉아 어떻게 하면 대충의 지혜를 발동시켜볼것인가 하고 생각에 골몰하던 그는 언젠가 동발목을 싣고 안변청년발전소 물길공사장에 갔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때 군인건설자들은 물길굴속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라고 웨치며 동발목들을 허리를 치는 물에 띄워 수십리 되는 막장으로 나르지 않았던가. 이 산판에서도 자연의 힘을 리용할수 없을가.

방기열이 이런 생각을 굴리는데 등뒤에서 《비서동지!》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사람이 다가오고있었다. 털모자를 눈두덩까지 눌러써서 통 얼굴을 가려볼수 없었다.

방기열은 일어나며 《누구더라?》하고 물었다.

《접니다. 저를 모르겠습니까?》

다가오던 사람이 모자를 벗는 순간 방기열은 《아니, 동무가 어떻게?...》하며 반색했다. 양지풍이였다.

《길안내를 하고는 한번 와보지 못해서 미안함

니다. 외지에 와서 불편한 점이 많겠는데... 하는 일없이 몸을 뻗수가 있어야지요.》

《하하하, 동무는 꼭 책임일군처럼 말하누만.》

방기열은 마치 소꿉친구나 만난듯이 반가와했다.

《책임일군이요? 하, 그건 해서 뭘합니까? 난 프락트트운전수가 제일입니다. 군대때 배운 기술이 한생의 밑천입니다.》

양지풍은 이깎나무진대에 걸터앉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군대때 배운게 기술뿐이 아니지. 그때 키운 정신두 한생의 밑천인거요.》

《그럼요. 역시 비서동지는 보는 눈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하.》

양지풍은 역시 쾌남아였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찌기 올라왔소?》

《전번에 부탁한것때문에 왔습니다. 천곡천에 콩크리트다리가 미끈하게 쪽 뻗어간걸 보니 몸이 근질거려 견디겠습니까. 조향륜을 돌리던 사람이 콤파스나 돌려서야 어디... 지배인동지에게 좀 권고해봤습니까?》

《반대하더군. 여기서야 지배인이 결론권을 가지고있으니 난들 어떻게 하겠소.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더란 말이요, 도와주러 온 사람이 감놔라 배놔라한다구.》

방기열은 슬쩍 결눈질해보았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양지풍은 제판에 울컥하여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다.

《젠장, 큰사람이 속이 좁단 말입니다.》

《그런것 같소.》하고 방기열이 맞장구를 쳤다.

성에서 내려온 큰 일군이 이렇게 나오자 양지풍은 오히려 눈이 쾅해졌다. 그자신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눈을 꺼벅거리며 잠시 얼퍼름히 바라보고만 있던 양지풍은 금방 한 자기 말을 부정했다.

《다 그런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때에 보면 정말 인정이 깊고 또 일을 하려고 애쓰지요. 며칠전에 지배인동지는 우리 설계실에 문득 나타나서 새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성에서 비서동지가 내려와있는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을 부쩍 올려야 성일군들앞에 면목이 서겠는데 야단이라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양지풍은 닭알침을 꿀꺽 삼키더니

계속했다.

《제 일전에 부탁한것도 있지만 실은 지배인동지가 집을 떠나 산지합숙에서 고생하는 비서동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마와 겸사겸사해서 결린 문제를 푸는데 이 양지풍의 작은 힘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라왔습니다. 현장을 한번 돌아보자구요.》

양지풍의 솔직한 말을 듣는 방기열은 눈곱이 화끈해올랐다.

(역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양지풍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리고 급한 경사를 따라 곧바로 내려다보이는 토장을 가리키며 삭도를 세울 지형지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방기열의 말을 한참 듣고있던 양지풍은 자기 아버지가 협의회에 참가하여 삭도바줄로 쇠바줄 대신에 팔뚝같은 피나무바줄을 리용하자는 착상을 내놓았다고 하자 고개를 틀었다.

《아버진 또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썼다는 피나무바줄이야길 꺼냈군요. 비서동지, 지금이야 선군시대인만큼 혁명적군인정신, 다시말해서 인민군대식으로 생각하면 모든것이 쉽게 풀리지요. 다리공사때 비서동지도 기술과에 찾아와서 군대식으로 생각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제대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판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의논도 할겸 비서동지도 만 날겸 해서 이렇게 감자나 한배낭 지고왔습니다.》

《그렇소. 정말 잘 왔소.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던 참인데 우리 저기가서 동무들과 함께 토론해보지요.》

방기열은 그제서야 양지풍이 등에 진것이 감자배낭임을 알고 얼른 벗겨들었다. 그리고는 산판이 다 울리게 《휴식!—》하고 큰소리로 웨쳤다.

《자, 동무들! 양지풍동무가 감자를 가지고 지원 왔소. 모두 모이시오!》

여기저기서 벌목공들이 《양동무—》하면서 모여왔다. 방기열은 잠풍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손짓으로 불렀다.

잠간사이에 우등불이 피여오르고 양지풍이 주먹만 한 감자알들을 불속에 쏟아넣었다. 얼마 안있어 감자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나왔다.

《거 냄새가 죽여주는데.》

벌목공들의 입이 어느새 쌀함박처럼 벋글서해

졌다. 성급한 축들은 벌써 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불무지를 헤치려 들었다.

《뛰니뛰니해도 산판에선 이 감자구이이상 없거든.》

방기열은 이렇게 말하며 방금 찍어낸 이빨나무가지를 몇개 꺾어 눈우에 깐 다음 허물없이 앉았다.

《어서들 하나씩 맛보오. 글썄 양동무가 저기 쌓여있는 통나무들을 빨리 날라내려갈 방도를 의논하자구 감자배낭을 메고 여기까지 왔다질 않소.》

《우리가 뭐 양동무를 몰라서요. 우린 군대에서 함께 제대되어 이곳에도 함께 달려온 제대군인들입니다.》

《그렇소?!》

방기열은 벌목공들이 골라주는 감자를 받아 두손으로 재빨리 엇바꾸어 굴리며 숨씨있게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는 입김을 후— 하고 불며 김이 문문 나는 노란 속살을 맛나게 한입 베어물면서 말했다.

《그러니 말이요. 저걸 빨리 날라가야 새해 첫 전투부터 천암림산이 당당히 큰소릴 치겠는데 보다싶이 걸린게 한두가지가 아니요. 사업소에선 갈구리삭도로 나르자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토장까지 늘일 쇠바줄이 없소.

그래,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 자연의 힘을 리용해서 말이요.》

《자연의 힘을 리용해서요?》

한 벌목공청년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문득 이렇게 반문했다. 그리고는 양지풍이쪽을 던지시 바라보며 말하는것이였다.

《우리가 군대때 도하훈련을 하면서 수중다리를 놓은적이 있습니다. 양동무, 거 있지 않나. 강물을 리용해서 나무들을 나른 일 말일세.》

《강물을 리용했다?...》

양지풍은 방기열의 의혹을 풀어주며 군대때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언제인가 도하훈련에서 땅크가 건너갈 수중다리를 가설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산판에 올라가 통나무를 찍어 나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린 찍은 나무들을 산꼭대기벼랑까지 메고 올라가서 강물쪽으로 굴러떨구어 나무가 강물을 타고 지정된 도하장소까지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떠내려가게 했다?》

방기열의 머리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

다.

《동무들, 이렇게 하면 어떻소. 조국해방전쟁때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다놓고 직사로 갈겼다는 로병들의 경험을 살리자는거요.》

《직사로요?!》 양지풍이 눈이 번쩍 뜨이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될것 같습니다. 찍은 나무들을 경사가 심한 산 꼭대기에 끌어다가 토장까지 걸릴수 있는 잡관목들을 다 찍어버리고 내리떨구면 눈판우로 스키처럼 미끄러져갈게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토장까지는 기복이 심하고 나무와 잡관목이 짹 들어찼는데 걸리지 않을까?》

방기열은 내려가면서 불룩하게 두드러진 언덕이며 바위, 나무들이 서있는 경사면을 가리켰다.

《그썸한거야 뭐, 여기서 토장까지 같은 깊이로 굴곡이 없게 전호를 쭉 내리파면 조구통처럼 통나무가 옆으로 흘러지지 않고 곧추 내려갈게 아닙니까.》

양지풍은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웁소! 전호에 눈을 퍼넣고 다진 다음 하루밤만 지나면 뽕뽕 얼어서 눈강관이 되겠지. 그러면 통나무들이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갈거요.》

방기열은 젊은이들처럼 주먹을 흔들며 환성을 올리다가 양지풍을 부둥켜안고 눈우에 벌렁 넘어졌다. 전나무우듬지에서 청서 한마리가 깜짝 놀라 다른 나무로 날아넘어가면서 가지를 흔들어 놓았다. 나무가지에서 눈가루가 그들의 머리우에 흰꽃보라처럼 쏟아졌다.

《양동무, 정말 장하오! 진짜 인민군대식이요, 군대식! 하하하.》

《하하하.》

양지풍도 덩달아웃었다. 두사람의 웃음소리는 온 산판을 울리었다. 벌목공들도 양지풍의 설명을 듣고 패재를 터쳤다.

《양동무, 빨리 내려가 도면을 그리요. 지배인동무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지배인더러 도림업관리국에 전화를 걸어 제대군인들로 돌격대를 무어이리로 보내달라구 전하오. 내가 부탁하더라고 말이요.》

이렇게 말하며 방기열은 눈시울을 습벽이였다.

《알았습니다!》

양지풍은 오른손을 올려 절도있게 경례를 붙이며 기운차게 대답했다.

양지풍을 사업소로 떠밀어보낸 방기열은 해중

일 벌목공들과 함께 나무를 찍으며 산마루에서 토장까지 전호파기에서 있을수 있는 문제들을 놓고 거듭 토의를 하였다.

저녁에 채벌중대장은 자기들도 한몫 말아나서 겠다면서 현지를 밟아보라고 제대군인벌목공을 한명 붙여주기까지 했다.

다음날 아침 합숙마당가의 기발대에 띄웠던 붉은 기발을 풀어가지고 산마루로 올라간 방기열은 벌목공청년에게 산마루에서 제일 높고 잘 보이는 이깎나무웃초리에 기발을 띄우라고 했다. 벌목공청년은 싱긋 웃더니 자기의 나무잡이솜씨를 시위해보이려는듯 기발을 꿈무늬에 지르고 다람쥐처럼 나무에 기여올랐다. 맨 꼭대기까지 오른 그는 두개의 기발끈을 웃초리에 단단히 잡아맸다.

《자, 어떻습니까. 비서동지!》하고 청년은 아래에 대고 소리쳤다.

눈보라속에서 붉은 기발이 기운차게 펄럭이였다.

《정말 멋있소! 동무는 고지에 맨먼저 기발을 꽂은 영예로운 척후병이요, 척후병!》

방기열은 만족하여 소리쳤다.

《아닙니다. 천암산마루에 기발을 꽂은 사람은 바로 비서동지입니다.》

청년은 산관이 울리게 큰소리로 웨쳤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방기열은 흐뭇하게 토장을 내려다보았다. 벌써 토장까지 전호가 직선으로 쭉 뻗어간듯 한 느낌이 갈마들었다. 물론 언땅을 파헤치자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대군인돌격대가 달라붙고 온 림산사업소가 펼쳐나서면 능히 빨리 해제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다.

이런 생각으로 기분이 붕 뜬 방기열은 벌목공청년과 함께 경사급한 눈속을 미끄러지면서 한것이나 현지를 돌아보고 토장에 이르렀다.

지배인 림춘석은 양지풍과 수십명의 청년들속에 둘러싸여 운재직장 휴계실마당에서 붉은 기발이 나뭇기는 산마루를 올려다보고있었다.

방기열은 온통 눈투성이가 되어 그들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들은 방기열이 다가오는것도 모르고 커다란 종이장을 펴든채 흥분해서 손짓하며 떠들었다.

방기열을 먼저 발견한 양지풍이 《비서동지!—》하고 부르며 달려왔다. 그제서야 림춘석이 고개를 획 돌렸다. 모여선 사람들의 눈길이 방기열에게로 쏠리였다.

《비서동지!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출신 양지풍 도면을 끝내고 제대군인돌격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양지풍이 힘차게 보고하자 방기열은 그를 와락 그러안았다.

《수고했소, 양동무.》

몇발자국앞에서 얼싸안은 두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대군인청년들이 일시에 물러와 방한모에 성애가 하얗게 불린 방기열을 둘러쌌다.

그러나 두사람만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져서있었다. 림춘석과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운 제대군인 공병부소대장 방성일이였다.

방기열과 헤어져 사업소로 내려간 양지풍은 그 즉시 기술준비실성원들과 함께 도면을 완성해가지고 지배인을 찾아갔다. 열정적인 양지풍과 실장의 설명을 들은 림춘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관리국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국에서도 그들의 제의를 좋게 받아들여 그날로 공병출신 방성일을 대장으로 하는 제대군인돌격대를 무어 올려보내주었다.

림춘석은 제대군인들을 합숙에서 식사시키고 잠자리까지 잡아준 다음 성일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김옥봉은 아들과 한학급동창인 성일을 눈물을 머금고 맞아들이였다.

중학교시절 손꼽히는 최우등생이였고 학급반장으로로서 동무들을 위해서라면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던 성일이의 소행을 추억하면서 옥봉은 어떻게 되어 대학에 가지 않고 림업부문에 진출했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방성일은 조용히 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편지 한통을 꺼냈다. 제대될무렵 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지였다.

두 내외는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성일아, 나라없던 그 세월 천대받고 멸시받던 처서군의 후손인 우리는 나라를 찾아주시고 내세워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대손손 림업전선에서 보은해야 한다. 물론 불밝은 교정에서 대학공부를 하는것도 좋지만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때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 ...

림춘석은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덤덤히 생각했다.

(나는 책벌을 받고 내려오면서 무엇을 생각했

던가. 내려와서도 자식들의 장래를 두고 얼마나 고민했던가. 살얼음우를 걸어가듯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라의 림업을 위해 자기의 오늘뿐아니라 미래도 이 산판에 물으려 하는 방기열, 그는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가!

그런것도 모르고 그의 매가 아프다고만 생각하면서 그가 변했다고 생각했지,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래서 더 비뚤어지게 나가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그는 로동계급의 마음속에 들어가 걸린 고리들을 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해냈다.

지금에 와서 보니 확실히 변한것은 방기열비서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보신, 소극성, 이것이 어제날의 이 림춘석을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인가. ...)

림춘석은 말없이 담배만 빼금빼금 빨았고 김옥봉은 조용히 눈굽을 적시었다.

밤이 깊어 방성일을 앞세우고 집을 나선 림춘석은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공사를 이끌어 나갈 결심을 하였다.

림춘석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방기열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림춘석은 마치 처음 만나기나 하는듯 먼저 방기열의 두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비서동무, 이런 법이 어디있소?! 비서동무가 성일이를...》 하고는 목이 짹 잠겨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지배인, 이제 나를 비서라고 부르지 마오. 난 인차 년로보장에 들어가게 되오. 이제 올라가면 사업을 인계해야 할거요.》

《뭐라구요?!》

림춘석은 깜짝 놀라며 화석처럼 굳어졌다.

《사람이 때가 되면 제때에 물러날줄도 알아야지, 나라를 위해서두... 내 마지막에 미결이 있다면 그것은 지배인동무의 책벌을 내 손으로 벗겨주지 못하게 된거요.》

순간 림춘석의 눈시울이 파르르 떨었다.

《!...》

방기열은 림춘석의 두손을 맞잡고 눈보라치는 온 산판이 찌렁찌렁 울리게 큰소리로 말했다.

《지배인동무! 대담하게 이번 공사에 성공하여 모든 림산사업소들에 일반화합시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말이요. 이 일에 어제날의 생산국장 지배인동무가 앞장섭시다!

어떻소, 산판일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있는 양태

석아바이가 돌격대의 로동안전사업을 봐주도록 하는게. 그러면 마음을 놓을수 있을겁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방기열의 말을 림춘석은 극구 찬성했다.

그 다음날부터 전호파기공사가 밤낮없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군데군데 꽃아놓은 불뭉치가 산밭을 밝히고 눈가루를 뽀얗게 일구며 살을 에일듯 달려드는 천암산칼바람의 뽁뽁거리는 소리도 대번에 꼭 눌러버리며 돌격대원들의 기세찬 노래소리와 함께 함마소리, 곡괭이소리, 발파소리가 산릉선에 메아리쳤다.

양지풍과 방성일이 돌격대의 작업을 지휘했다. 공병부소대장의 숨씨가 달랐다. 모든것이 군대식이었다. 눈비속에서 전호를 파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낸 그들의 일손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방기열은 지배인과 함께 커다란 바위우에 퍼놓은 설계도면을 또다시 들여다보며 해제를 올렸다.

《통쏘이길설계도》

도면의 옷단에 쓴 큼직한 각글체는 볼수록 신통하였다.

《멋있소. 아무리 보아도 마음에 들거던. 대중의 지혜란 참...》

방기열은 만족하여 몇번이나 곱씹었다.

림춘석은 합숙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정말 놀랍습니다. 글썄 양지풍동무가 제대군인들앞에 도면을 펼쳐놓고 전호처럼 깊이 내리관경사길에 통나무가 잘 미끄러져내려가게 눈을 다져넣는다고 설명하자 성일이가 대뜸 다져넣은 눈우에 물을 부어 얼음판을 만들자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내 산마루에 물이 어디 있는가고 하자 성일이가 호탕하게 웃더니 〈지배인동지, 산우에는 온통 물입니다.〉 하면서 전호를 따라 내려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도람통을 하나씩 놓고 장작불을 피우면서 눈을 퍼넣어 녹은 물을 다져넣은 눈우에 부으면 이 북방의 추위에서는 잠간사이에 얼음판이 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병사시절 고지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머리에서만 나올수 있는 착상이지요.》

《아주 기발한 착상이요. 그렇게 되면 통나무운반속도를 더 높일수 있겠소.》

《그런 의견이 나오자 양지풍동무는 속도가 높은만큼 대담하게 전호를 더 넓히고 깊이도 좀 더 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대나요.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는것이 아니겠소. 어물한 너

석! 하하...》

림춘석이 하는 말의 의미를 대뜸 알아차린 방기열은 지배인보다 더 크게 웃었다.

통쏘이길작업은 제대군인돌격대와 온 사업소가 달라붙어 예견했던것보다 사흘이나 앞당겨 끝냈다.

드디어 개통식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류달리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붉은 기발이 필력이는 산마루에는 림춘석을 비롯한 사업소일꾼들과 운재공, 벌목공, 악기를 든 림산마을학생들, 가두아낙네들까지 올라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속에는 김옥봉도 있었다.

방기열은 이미 준비하였던 붉은 신호기발을 림춘석에게 넘겨주고 먼발치에 물러섰다.

운재직장장이 통나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옆에 줄지어선 운재공들과 제대군인돌격대원들의 앞으로 나와 보고했다.

《지배인동지! 통쏘이길개통준비가 끝났습니다.》

림춘석은 대렬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돋구어 기운차게 화답했다.

《그럼 시작합시다.》

운재공들과 제대군인돌격대원들은 일시에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다.

림춘석은 신호기발을 쥐고 통쏘이길입구의 언덕에 올라섰다.

시원하고도 규모있게 열린 통쏘이길로 토장이

아득한 점으로 내려다보였다.

림춘석이 머리로 신호기발을 높이 쳐들었다. 사위가 숨죽은듯 조용해졌다. 이윽고 림춘석은 신호기발을 힘껏 내리그었다.

《통나무 발사!—》

요란한 구령과 함께 운재공들이 산같이 쌓아놓았던 통나무들을 통쏘이길에 떨어뜨렸다.

얼음길에 떨어진 통나무들이 련이어 탕탕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려갔다. 전호의 랑벽을 짓조으며 씽—씽— 날아꽂히는 통나무들의 속도는 눈으로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와!—》

사람들속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온 산판이 들썩했다.

토장을 향하여 총알같이 내닫는 통나무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신호기발을 넘겨준 림춘석은 붉은기발밑에 서있는 방기열에게로 다가왔다. 끝없는 격정에 휩싸인 그는 흥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직사포사격이 멋있습니다. 신심이 생기고 배짱이 생깁니다, 하하하...》

방기열과 림춘석은 들끓는 작업장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옆에서 두툼한 솜옷저고리팔소매에 《로동안전》이라고 새긴 큼직한 완장을 낀 양태석로인이 눈시울을 습벅이며 서있었다.

《조선문학》축전상 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이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찰자로서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할 때 진실로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99(2010)년 제14차 《조선문학》축전상시상모임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승전비》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김도환

단편소설 《그리운 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정영중

단편소설 《병사의 어머니》 4.15문학창작단 작가 림봉철

단편소설 《높은 령 저너머》 조선인민군문예창작사작가 김홍익

단편소설 《가보》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 위원회

서정시 《수령님과 땅》 남포시 선창동 김재원
시조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보라!》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실장 류명호, 교원 최주원

평론 《백두산과더불어 영원무궁할 위인찬가》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실장 서재경

평론 《변영의 시대를 열어놓은 사랑과 헌신의 자욱에 대한 력사적화폭》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장희숙

작가의 형상수법과 작품의 감화력

-단편소설 《붉은 오각별》을 읽고-

송원길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혁명전통주제의 단편소설 《붉은 오각별》(김혜인 작, 주체99(2010)년 10호)을 반갑게 읽어보았다.

소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은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간직하고 곳곳이 이어가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혁명전통의 핵을 이룬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에 영광스러운 어제와 있고 긍지높은 오늘이 있고 강성번영하는 래일이 있다.

혁명의 후세대가 전 세대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정신적유산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가.

작가가 신흥지구 혁명전적지에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무명전사묘에서 사회적문제가 예리하며 극성이 강한 생활자료를 선택하고 형상화하여 제기하고 해명한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은 오늘의 시대정신, 선군시대정신의 요구에 맞는것이다.

소설은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소설의 사상예술적성과는 탐구하고 리용한 단편소설의 형상수법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한편의 작품을 써도 그것이 생활인식의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게 여러모로 심사숙고하고 품을 들여 써야 한다.》

소설작품창작에서 형상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는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서 작가가 리용한 형상방법의 특성은 우선 1인칭소설형식에 회상식구성법을 적용한것이다.

소설은 문체상특성으로 볼 때 1인칭소설이다.

그러면 작가는 왜 1인칭형식을 택하였는가.

그것은 작품의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일관한 줄거리로 통일시켜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려는데 있다.

1인칭소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시점에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기때문에 다른 형식의 소설보다 소설의 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펼쳐 보이는데 유리한 소설형식이다.

작품에서 사건은 여러개가 설정되어있다.

집도 없이 역주변에서 떠도는 방랑소녀가 신한목재회사 사장인 일본놈과 함께 공사장에 나타난 주인공—호시에를 언니라고 부르며 그의 손목에 매달렸다가 밀치워 자갈무지에 머리를 짓쫓고 피가 흐른 사건, 다음날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국경지대로 가던 적군수령차 전복사건.

차거운것 같으면서도 인정이 많은 녀자인 호시에가 심부름군의 딱한 사정을 들어 도와주며 그 심부름군이 호시에의 부탁으로 그의 집에 짐을 나르다가 통제품인 소금을 발견하는 사건, 로동자들이 일하러 나간 기회를 리용하여 함바를 수색한 호시에의 밀고에 의하여 리산이 체포되는 사건, 호시에가 행불되고 리산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며칠후 감쪽같이 살해당한 사건.

주인공이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영웅적으로 싸우다 부상입은 몸으로 비밀련락장소까지 기여와 소나무에 동지들에게 남기는 글을 새기고 안도의 숨을 쉬며 최후를 마친 사건 등 여러개의 사건선이 설정되어있다.

작가는 작품의 소재와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소설의 여러 사건들을 일관한 줄거리로 통일시켜 조선인민혁명군 녀전사의 위훈을 정서가 깊게 감동적으로 펼쳐보이는데 유리한 1인칭소설형식을 선택하였다.

소설은 이러한 1인칭소설형식에 회상식구성법을 적용하였다.

작가가 작품에 회상식구성법을 적용한것은 여러개의 사건선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많은 소설의 내용을 단편소설이라는 그릇에 담는데는 이것이 유리하였기때문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회상식구성법을 적용하면서 작품전체를 회상으로 구성하면서도 회상의 여러 계기를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양하게 설정하여 작품의 진실성과 논리성을 보장하고있다.

녀전사의 묘비앞에 선 나의 현재시점에서 소설

은 근 20년전 봄의 평범한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년전 신흥지구 비밀근거지 발굴조사단에 망라되었던 도혁명사적관 학술연구실장인 나는 며칠전 혁명전적지구에서 발굴된 미명의 유해를 해명하기 위하여 현지로 떠난다.

군산립경영소 노동자들이 새로운 수종의 나무를 심던중 발견한 평토나 다름없는 주인없는 묘지, 그안에 있는 2개의 관통상자리에 있는 녀성으로 추측되는 시신, 해발 천여메터나 되는 산꼭대기에 박달나무판자를 받쳐 정히 안장한것이라든가 총상자리며 또 녀성의 시신이라고 볼 때 범상치 않은 유해로 판정된다. 1940년대초에 안치된것으로 판정된 유해가 혁명전적지구구역안에서 발굴되었기때문에 더구나 범상치 않은 유해인것이다.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에 단 한점의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의 두터운 이끼속에 파묻힌 력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나를 비롯한 우리 당의 참된 사적일군들의 고심어린 노력으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며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사실을 친히 고증하시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전원이 희생된 《붉은 오각별》조 성원들,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을 가슴뜨겁게 회고하신다.

소설의 형상방법에서의 특성은 또한 1인칭소설 형식에 생활자료의 성격에 기초하여 추리식구성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있다.

추리식구성법은 작가가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작품에서 긴장감과 흥미감을 조성하여 독자들을 시종일관 작품의 세계에 이끌어가는데 유리한 소설형식이다.

주인공 호시에와 관련된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그가 혁명가의 손에 의하여 처단되었다면 왜 처단된 원쑤의 시체를 정성다해 안장했겠는가, 또 그가 원쑤들의 손에 희생되었다면 그를 안치한 사람들은 누구들이며 어데 있는가, 호시에는 왜 수리봉으로 올라갔는가, 리산은 누구이며 호시가 행불된 그날에 어떻게 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으며 그후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 있던중 누구에 의하여 살해되었는가 등 소설은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하나 해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발굴된 유해가 호시에의 시신으로 판정된 후 뼈속까지 완전히 왜물이 든 악착한 친일

분자, 의협심이 강하고 인정이 많기로 소문난 리산을 불온서적주모자로 밀고하여 경찰들에게 체포되게 한 인간의 탈을 쓴 역적년, 차거운것 같으면서도 인정이 많은 녀자, 나이에 비해 퍼그나 세련되고 현숙한 행동거지며 마디마디 맺힌 옹골찬 목소리, 턱을 약간 쳐들사하고 다니는 자신만만한 몸가짐에서 쉬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상이 만만치 않게 풍겨오는 녀자 등 목격자들의 엇갈린증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색과정에 대한 묘사, 칼벼랑 밑에서 탄피를 발견하기까지의 사색과정과 소나무에 새긴 부호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독하는 과정, 소나무에 새긴 부호를 해독한데 기초하여 주인공의 영웅적최후를 상상하여 묘사한 부분 등 소설의 많은 부분들이 추리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소설의 형상방법에서의 특징은 또한 이미 세상에 알려진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적중한 리용과 적들의 관헌기록의 숨씨있는 리용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소설의 첫 부분에 삽입된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한계 련은 소설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암시하면서 녀전사의 묘비앞에 선 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중하게 리용되었으며 적들의 관헌기록을 숨씨있게 리용한것은 사건 추리의 과학성을 보장하고 구성의 립체미를 돋굴 뿐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을 비롯한 《붉은 오각별》조 성원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의 투쟁내용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게 해준다.

혁명전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훈을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고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에 단 한점의 공백도 없게 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당의 참된 사적일군들이 있어 수령결사옹위의 별들은 땅에 묻혀도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그 빛을 거울로 삼아 수천수만의 새로운 별들이 빛나고있다.

이처럼 작가가 소설에서 탐구하고 리용한 형상수법들은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부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됨으로써 작품은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소설문학의 형상수준과 예술적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형상수법을 적극 리용하며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와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미학정서적수준에 맞게 새로운 형상수법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새해에도 소설창작의 새로운 형상방법을 적극 탐구하고 창작실천에 활용하며 혁명전통주체의 소설창작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수정천

리기창

△때;현재

△곳;새로 개발된 광산에서

△나오는 사람들

정옥주;연구사

박영조;연구사

박춘섭;영조의 아버지

박영란;분석공 (영조의 녀동생)

최분임;의사 (옥주의 어머니)

△그의 남녀로동자들

△무대;선광분석실 앞마당.무대 왼쪽에 분석실로 들어가는 현관계단, 그뒤로 역으로 가는 길이다. 느티나무밑에 긴의자가 놓여있고 오른쪽 꽃밭에는 새로 떠다심은 사철나무 한그루, 오른쪽으로는 선광장으로 가는 길, 무대를 가로질러 방쪽길이 보이고 《최첨단을 돌파하라!》라는 횡단구호판이 있고 방쪽너머로 수정천과 계단식선광장이 바라보인다.

1경

△《폭풍쳐 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의 노래가 울리는 가운데 막이 열리면 남녀로동자들 방쪽길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간다.

이때 영란 분석표를 들고 분석실에서 나온다.

영란;동무들, 우리 광산조업이래 선광실수률이 최고수준이에요!

△ 남녀로동자들 분석표를 보며 기뻐한다.

로동자들;야, 정말 최고기록이로구나!

로동자1;(즉흥시적으로) 오, 저 푸른 하늘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돌고 이 땅우엔 품위높은 광물폭포 사품치노라!

모두;야—(박수를 친다.)

로동자2;그러니 금속공업전선에 더 많은 광물을 보내주자구!

△남녀로동자들 힘있게 호응하며 나간다.

△이때 낚시도구를 든 박춘섭 들어온다.

춘섭;선광실수률이 높아지니 사기들이 났구나!

영란;그래요. 아버지, 낚시질을 나가시나요?

춘섭;오냐, 년로보장을 받았지만 광물생산에 떨어져나선 전투원들에게 산천어국을 푸짐히 대접하자는거다. 하하하...

영란;정말 이번에 오빠와 옥주연구사동지가 서로 연구소는 다르지만 우리 광산에 내려와 지혜를 합쳐 새로운 선광법을 도입해준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는지 몰라요.

춘섭;아무렴. 그래서 이제 논문을 공동의 이름으로 발표할 작정이러더구나.

영란;어디 그뿐이에요요. 선광법을 도입하던 과정에 오빠와 옥주동지가 (두손을 마주잡으며)이렇게 남다른 사이까지 됐구요. 호호호...

춘섭;그러게 말이다. 연분이란 참...(새로 심은 사철나무를 보자)이 사철나무는 네가 떠다심은거냐?

영란;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오빠와 옥주동지가 함께 심은거예요. (시를 읊듯이)그대가 한 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일사귀! 라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에요. 호...

춘섭;그러니 뜻이 깊은 나무로구나. 하하하...

(사철나무를 손질한다.)

영란;그럼요, 그런데 오늘 아침차로 함께 떠난 다면서 왜 아직 안 올가요?

춘섭;글쎄, 네 오빠 긴급과제때문에 올라오라는 연구소의 전화까지 받았단데.

영란;(밖을 보다가)아, 저기 오빠가 와요.

△ 이윽고 외출복차림에 가방을 든 영조 들어온다.

영란;오빠! (마주 달려가 가방을 받아든다.)

춘섭;(영조의 어깨를 두드리며)그새 수고했다.

영조;(웃으며)뭘요. ...
영란;(밖을 다시 바라보며)옥주연구사동진 안와요?
영조;이제 올게다. 내가 먼저 역에 나가 차표를 떼기로 했으니까.
영란;그래요?!
춘섭;올라가던 길에 우리 광산에 이동치료대로 내려왔던 옥주의 어머니를 만나서 너희들의 문젤 승낙받는데 좋을것 같구나.
영조;(더수기를 만지며)그러지 않아도 옥주동무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영란;야, 오빠 좋겠네. 호호호...
영조;요건. (영란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눌러준다.)
춘섭;옥주연구사한테 내 인사를 전하거라.
영조;네.
춘섭;다음번에 꼭 함께 내려오너라. (방쪽 넘어 수정천으로 내려간다.)
영조;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손목시계를 보고나서)나도 역에 나가야겠구나. 그럼 영란아, 잘 있거라.
영란;오빠, 이 가방은 제가... 어서 가자요.
△영란, 영조 다정히 웃으며 역으로 나간다.
△뒤이어 남녀로동자들 옥주의 배낭을 들고 떠들썩거리며 나온다.
로동자1; 정옥주연구사동지, 빨리 오십시오!
옥주;(웃으며)아이, 그 걸음을 따라가단 숨 넘어가겠군요. 호호호.
로동자2;야, 이제 옥주연구사동지가 올라가면 신문과 방송에 널리 소개되겠구만.
로동자3;그뿐인가요. 훈장도 문제없을거예요.
로동자들;아무려문요.
옥주;아이참. (사철나무를 손질하며 수집어한다.)
로동자4; (꾸레미를 옥주에게 안겨주며)우리 교장의 특산물이에요.
로동자3;(꾸레미를 안겨주며)이것도 받으세요.
옥주;고마워요. 일들이 바쁠편데 어서들 가보세요.
로동자들;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결혼식날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고 나간다.)
옥주;아이참, 정말 좋은 동무들이야.
△ 이때 낚시도구를 든 춘섭 들어온다.
춘섭;헛참, 맹랑하군.
옥주;안녕하십니까?
춘섭;우리 영조를 못 만났소?
옥주;먼저 역에 나갔을거예요. 산천어를 많이 잡으셨나요?

춘섭;산천어들이 말짱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 열친 산천어밖에 못 건졌수다. 헛참.
옥주;그전엔 잘 잡혔나요?
춘섭;수정천이 맑은 물이라구 수정천이라 산천어가 득실득실했수다.
옥주;그래요?! (잠시 생각하다가)그 산천어를 나한테 주실수 없을까요?
춘섭;아니, 열친 이 산천어를 뭘하려구?
옥주;분석을 좀...
춘섭;허허허... 선광공학연구사가 열친 산천어도 연구하우?
옥주;그래요. ... (배낭에서 비닐통을 꺼낸다.)
춘섭;그럼 가지우다. (옥주의 비닐통에 열친 산천어가 담긴 바غه뜨물까지 쏟아주며)그럼 또 오우다. 내 저 선광장웃쪽에 좀 올라가보겠수다. (나간다.)
옥주; (비닐통을 보며 혼자소리로)그 많던 산천어들이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을까?
△영란 달려나온다.
영란;여기서 뭘하세요. 지금 오빠가 차표를 떼놓고 기다리는데요.
옥주;우선 이걸 좀 분석해줘. (비닐통을 내민다.)
영란;어마나, 이걸 뭘 산천어예요?
옥주;수정천물에 열친것 같애. 어서! (영란의 등을 떠민다.)
△영란 비닐통을 받아들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분석실로 들어간다.
옥주;(생각에 잠겨 거닐며)혹시 선광실수물을 높이자구 우리가 도입한 그 시약때문이 아닐까. 만일 그것이 원인이라면?!...
△잠시후 영란 분석표를 들고 나온다.
영란;글쎄, 수정천에 오염물질이...(분석표를 보인다.)
옥주;(분석표를 받아보고 저으기 놀라며)틀림없구나. 영란이, 오빠한테 가서 알려줘!
영란;네. (달려나간다.)
옥주;(땀없이 의자에 앉으며)나는 선광실수물을 높일 생각만 했지 왜 저 수정천이 흐려질걸 미처 예견 못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시간이 걸릴텐데. (의자에서 일어나 생각을 더듬다가)그렇다면 영조동무와 학위논문으로 제출하자던것과 우리 어머니한테 가자고 약속했던것은?!...(도리머리를 저으며 수정천을 바라본다.) 그렇다고 저 수정천이 흐려지는걸 알면서도... 아니, 그건 내 양심이 허락칠 않아!
△영조숨가빠 달려나온다.
영조;수정천물이 어떻게 됐대구?
옥주;이걸 보세요. (분석표를 보인다.)

영조:(분석표를 받아보고)응?! (잠시 생각하다가)옥주동무, 그러나 우리가 새로 도입한 선풍법은 품위높은 정광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아니요. 선풍실수율을 높인데 비하면야...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옥주:(놀라며)뭐라고요?!

영조:그리고 동무 어머니도 우리가 오길 기다릴텐데...

옥주:그렇다고 흐려진 수정천을 두고 어떻게?

영조:오염도 허용수치에서 얼마벗어난것도 아닌데 후에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소.

옥주:후에라고요? (새로 떠다심은 사철나무를 보며 감회어린 어조로)나는 이 나무를 함께 심으면서 영조동무가 하던 말을 잊을것 같지 못해요. 사시절 푸르른 이 나무처럼 일생을 과학탐구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자던 그 약속을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된 물이 흐르는걸 알면서도 잠시나마 미룬다는건 우리 과학자들의 량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조:(옥주의 절절한 목소리에 자책감을 느끼며)그건옳소. 현대 우리가 도입한 시약은 종전에 다른 광산들에서 쓰던것과 다르기때문에 그에 적합한 폐수정화제를 연구한다는게 결코 쉬운 문제 아닐거요.

옥주:그러기에 무슨 새로운 방도가 없을가요?

영조:방도라?! 화학공장의 폐설물에 의한것이 있긴 한데. ...

옥주:화학공장의 폐설물로요?

영조:그런 연구가 있었소. ...

옥주:성공했는가요?

영조:(고개를 흔들며)실패요.

옥주:거기서요?

영조:아니, 우리 연구소의 한 연구사가 실험하던중 유해가스폭발로 두눈을 상했소.

옥주:(놀라며)어쩌면...

영조:그러니 그건 아예 단념하는것이 좋겠소.

옥주: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열쇠라고 하지 않나요.

영조:하지만 실패는 심각한 교훈이라는 말도 있소. 옥주, (그의 손목을 잡으며) 난 옥주동무까지 그런 쓰라린 전철을 밟게 하고싶지 않소! 안되오. 절대로, 절대로...

옥주:그렇다고 흐려진 수정천을 외면한채 속수무책으로 있을순 없지 않나요.

영조:폐설물 말고 다른건 없을가?...

옥주:가만, 얼마전에 과학기술통보자료를 보았는데 바다나물이나 나무뿌리추출액으로 정화제를 만들수 있다고 썼더군요. (배낭에서 자료집을 꺼

내 보인다.)

영조:(자료집을 받아 읽어보고)그것 참, 그럴듯하구만 그래. 하하하...

옥주:그렇지요?

영조:(갑자기 낯색을 흐리며)그런데 이걸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쩐다?...

옥주:참, 영조동문 긴급연구과제가 제기됐다는데 걱정말고 어서 올라가보세요.

영조:그럼 그새 옥주동문 이것을 참고삼아 추진시켜보오, 나도 힘써보겠으니. ...

옥주:알겠어요.

△멀리서 기적소리 들려온다.

옥주:렐차시간이 되어오는데 어서 떠나세요.

영조:함께 떠나자던 동행길이 이처럼 뜻밖에 갈라지게 되니 섭섭하구만.

옥주:(나직이)저 역시 같은 심정이예요. ...

영조:(옥주의 손목을 잡으며)옥주! 몸조심하오. 그럼...(나가려다.)

옥주:저, 이걸 가지고 가세요. (꾸레미와 과일물을 안겨주며)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주세요.

영조:알겠소. 그럼 다시 만나기요.

옥주:건강하세요.

영조:잘있소.(나간다.)

△옥주 그를 배웅해주고 자료집을 번져보는데 남시도구와 바계뜨를 든 춘섭 들어온다.

춘섭:(옥주를 보자)아직 안 떠났소?

옥주:네, 좀...(산천어가 담긴 바계뜨를 보고) 어마나, 산천어를 많이 잡으셨군요.

춘섭:저 선풍장웃쪽에선 잘 잡히더군요.

옥주:그렇거예요. 아버님이 준걸 분석해보니 우리가 도입한 시약의 영향때문에 산천어들이 웃쪽으로 올라간것 같애요.

춘섭:글쎄 어쩐지. 하여간 그 원인을 밝히느라고 수고했수다. 수정천을 맑게할 해결책은 없겠소?

옥주:그래서 바다나물로 폐수정화제를 만들어볼가 해요.

춘섭:바다나물이라구요?! (의자에 앉아 모자를 벗어두고 부채질을 한다.)

옥주:(의문의 눈길로)왜 그러세요?

춘섭:내 고향이 바다가였수다.

옥주:그래요? 바다가엔 바다나물이 많겠지요?

춘섭:그러므요. 언젠가 내가 고향에 가보니 바다가사람들은 것처럼 어렸던 고난의 시기에도 바다나물엔 조금도 손을 대지 않더군요.

옥주:(저으기 놀라며)예?!

춘섭:바다나물이 한줌이라도 줄어들면 물고기

들이 알을 잘 낳지 못하구 또 바다물이 흐려진다
구요.

옥주;그래요?!

춘섭;이거 늙은게 주책없는 소리를 해서... 좌
우간 올라가서라도 저 수정천을 맑게 할 묘책을
좀 찾아주우. 그럼 잘 다녀가우. (나간다.)

옥주;(착잡한 생각에 잠겨)그럼 바다나물대신
나무뿌리로? 아니, 그것도 조국의 귀중한 자연부
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화학공장의 폐설물로 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지 않을까?!

△옥주의 결심이 흔들리게 하려는듯 영조가 하
던 말이 증폭되어 울린다.

《우리 연구소의 한 연구사가 유해가스폭발로
두눈을 상했소. ...난 옥주동무까지 그런 전철을
밝게 하고싶지 않소. 안되오. 절대로, 절대로, 절
대로...》

△옥주 두손으로 귀를 막고 모대기다가 수정천
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을 담아 방창이 울린다.

나의 보람은 나의 보람은 그 어데 있는가
멀고 험한 길 걷는다 해도 이 길우에 있어라
아 행복을 꽃피우는 이 길에

△방창이 울리는 속에 옥주 배낭을 지고 무엇
인가 결심을 다질 때 무대 어두워진다.

2경

△때;1경으로부터 얼마간 지난 후, 아침.

△곳;1경과 같은 장소.

△까치소리 울리는 가운데 무대 밝아지면

영란 사철나무에 물을 주고있다.

영란;까치가 우는걸 보니 오늘은 오빠와 옥주
동지가 오려나?

△이때 춘섭 밖에서 《수고들 했수다.》하며 빈
질통을 지고 들어온다.

영란;아버지, (질통을 벗겨주며)그만큼 쉬시라는
데 또 침전지보강공사장에서 밤을 새웠나요?

춘섭;무더기비에도 끄떡없게 침전지공사에 온
광산이 떨쳐나섰는데 나라고 가만있겠느냐. 침전
지보강공사를 다 끝마쳤다.

영란;그래요?!

춘섭;(의자에 앉으며)참, 오빠한테서 전보가 왔
더라. (전보를 꺼내준다.)

영란;(전보를 받아보고)15일 도착, 그럼 오늘이
군요. 그래서 까치가 울었구나!

춘섭;오빠가 오는 길에 옥주연구사도 함께 오

면 좋으련만.

영란;정화제를 연구해가지고 함께 올거예요.

춘섭;그렇가?

영란;그렇지 않구요. 호호호.

△그들이 즐겁게 웃을 때 영조와 함께 옥주의
어머니(최분임) 들어온다.

영란;아니, 저기 오빠랑 옥주연구사동지의 어머
니가 오시누만요.

춘섭;응?!

영조;영란아, 아버지, 건강하셨습니다까?

춘섭;오나.

분임;편안들 하셨어요?

춘섭;먼길에 수고했수다. 전번처럼 또 이동치로
대로 오셨수?

영조;그런게 아니라 옥주동무가 실험중에 눈을
좀 상하고 입원했다기에 내가 찾아갔더니 글썽
의사선생도 모르게 광산으로 온것 같다구 해서
어머니와 함께 오는 길입니다.

영란;(놀라며)어마나, 옥주동진 안 왔는데요.

영조;뭐?

춘섭;눈을 상한 몸으로 도중에서 무슨 일이 생
긴게 아닌가?

분임;걱정 마시우. 이제 오겠지요. 글썽 영란이
오빠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바쁜 가운데 우리
옥주일을 돕자구 선광폐수정화제라는걸 만들어왔
다우.

춘섭;그게 정말이냐?

영조;예, (가방에서 정화제봉지를 꺼내보이며)
이겁니다.

춘섭;나무뿌리추출액으로인지 만든거냐?

영조;그걸로 만들어볼가 했는데 옥주동무한테서
편지가 왔더군요.

춘섭;옥주연구사한테서?!

영조;예, 옥주동문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바다나
물 한줌이라도 그것이 조국의 귀중한 자원임을
뜨겁게 느꼈다면서 지금 새로운 연구안을 모색중
이라고 썼더군요. 나는 옥주동무의 편지를 읽으며
아무리 훌륭한 연구라도 그것이 나라의 부강번영
에 참답게 이바지하자면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조국의 재부로 생각하는 애국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걸 폐부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하지만 화학공장의 폐설물로 택했
던겁니다.

춘섭;그랬단 말이지. ...

영란;오빠 정말!

영조;(웃으며)영란아, 새것의 창조는 다름아닌
희생정신의 산물이란다. 하하하... 아버지, 이 정
화제만 도입하면 수정천의 오염물질을 제정된 허

용수치보다 0.1% 더 제거할수 있습니다.

춘섭;저런!

영조;그래서 이 정화제를 도입할데 대한우의 승인까지 받아왔습니다.

영란;(손벽을 울리며)야, 그럼 수정천이 맑아지겠네.

춘섭;그렇다면 이 정화제를 가지고 지배인이랑 광산일군들과 토의해서 당장 도입하도록 하자!

영조;그래서 저도 서둘러 왔습니다.

춘섭;영란아, 어머니를 집에 모셔라.

영란;네.

분임;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들 보시우.

춘섭;저, 그럼...

△춘섭, 영조 가방을 들고 나간다.

영란;(질통을 들며)어서 가시자요.

분임;먼저 앞서라구. 내 여기서 옥주가 오나 좀 기다려볼테네. ...

영란;그럼 인츰 오세요. (나간다.)

분임;옥주가 그런 몸으로 어텔 갔단 말인가?

△자동차 멧는 소리에 뒤이어 배낭을 진 옥주 나오며 운전사를 향해 인사한다.

옥주;운전사동무, 고마워요! (돌아서다가 눈을 비비며 비칠거린다.)

분임;아니, 옥주야! (허둥지둥 다가가서 부축하며)어디 좀 보자!

옥주;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길?

분임;(그의 배낭을 벗겨주며) 화학공장의 폐설물로 실험하다 눈을 상했구 또 입원했다가 의사선생도 모르게 뛰쳐나왔다면서. 완치되기도 전에 어찌자구 그러니?

옥주;다 나왔어요.

분임;안과선생이 그러는데 이제 유해가스를 한번 더 쏘이면 아주 위험하다더라. 그러니 연구사업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서 눈치료부터 받아야겠다.

옥주;(분임이를 의자에 앉히며)어머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눈이 이렇다는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약속하지요?

분임;원, 말두 말아. 영조 그 사람과 병원에 들렀다가 함께 왔다.

옥주;(의자에서 일어서며)아니, 영조동무가요?!

분임;아무렴, 그 사람은 자기가 좀더 일찌기 정화제를 연구했다면 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게라구 하더라.

옥주;그럼 영조동무가 정화제를 가져왔어요?!

분임;오냐. 제정된 허용수치보다 0.1% 나 더 높은걸 가져왔는데 방금 그걸 도입하겠다고 아버지와 함께 광산일군들한테 갔단다.

옥주;이걸 어찌나?!

분임;왜 그러느냐?

옥주;(배낭에서 분석표와 정화제봉지를 꺼내보이며)이걸 보세요.

분임;(분석표를 받아보고)이거냐?

옥주;그건 이미 내가 제정된 허용수치까지 도달했던 분석표이구 이 정화제는 그 나머지 허용수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거예요. 아직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분임;(놀라며) 이것 참 야단났구나.

옥주;왜요?

분임;지금 광산에서 그 사람의것을 도입하겠다는데 네것이 아무리 더 좋다 해도 이제 와서 네가 그걸 분석해 내놓는다면 그 사람의 립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과학에도 참다운 불리도덕이 있는 법이다. 남남끼리도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는것이 미덕일진대 하물며 자기 사람이 될 그와 네것, 내것 해서야 안되지. 남들이 뭐라겠느냐.

옥주;예?!

분임;그러니 네걸 분석하겠다는 소린 아예 입밖에 내지 말고 그 사람걸 도와주거라.

옥주;어머니!...

분임;(밖을 보고)저기 그 사람이 오는구나.

△이옥고 영조, 영란 들어온다.

영조;아니, 옥주동무가?

영란;옥주동지! (달려가 옥주의 손을 잡고 반가와하며)눈은 좀 어때요?

옥주;괜찮아.

영란;기뻐하세요. 지금 오빠의 연구안을 도입한 다구 광산일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더구나 옥주동지의 고심을 덜어주게 되었다구요.

영조;영란아.

분임;(옥주에게 입밖에 내지 말라고 눈짓하고 나서)그럼 얘기들을 나누라구. (자리를 피해 나간다.)

영란;어머니, 같이 가자요. (웃으며 따라나간다.)

영조;옥주!눈이 어떻소? 그새 고생했겠구만.

옥주;일없어요. 건강하셨어요?

영조;나야 뭐...(의자에 앉으며) 내가 미리 정화제를 완성했다면 동무가 그런 일을 당하지조차 않았을텐데 안됐소.

옥주;필요.

영조;(의자우에 놓인 분석표를 보자)아니,이건 동무가 실험한 분석표요? 동무도 제정된 허용수치까지 했었구만.

옥주;하지만...

영조;(옥주가 손에 든 정화제봉지를 가리키며)그건 또 뭐요?

옥주;아직 분석은 못해봤지만 허용수치보다 좀 더 높여보자구...

영조;(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그렇소?!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용케 해냈구만. 그걸 분석해보고 더 좋으면 도입하구요.

옥주;(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인다.)저, 그렇게 되면...

영조;(자기나름대로 생각하고) 음, 그러니까 내 체면때문에...

옥주;(고개를 더 숙인다.)

영조;나를 생각한다는거지? 그런 선의와 아량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옥주;예?!

영조;난 동무가 보낸 편지를 읽고 조국의 자연 부원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려는 그 마음속에서 더욱 순결하고 뜨겁고 사심없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남다른 긍지를 느꼈댔소! 옥주! 그런데 오늘의 대고조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요. 난 그런걸 바라지 않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오!(칭 나간다.)

옥주;(뜨거운것을 삼키며)영조동무! 고마워요. 동무의 말대로 분석을 해보겠어요.

△좁전에 나와 듣던 분임 다가온다.

분임; 옥주야, 영란이 오빠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다구 네 생각만 앞세우는게 아니냐?

옥주;그 동무가 진심으로 요구하는걸요 뭐.

분임;응?!

옥주;어머니, 여기 잠깐 제세요.

분임;어딜 갈려구?

옥주;수정천에 내려가서 분석시료를 떠오자구요. (배낭에서 유리통을 꺼낸다.)

분임;그러다가 넘어지면 어쩔려구. 내가 가마.

(유리통을 빼앗아들고 나간다.)

옥주;어머니, 조심하세요. (배낭에서 정화제봉지를 꺼낸다.)

△좁전에 나와 듣던 영란 그들의 말을 잘못 리해하고 다가선다.

옥주;영란이가 마침 왔구나. 이 정화제를 좀 분석해줘.

영란;예?! (울먹인다.)

옥주;왜 그래?

영란;어쩔 그럴수가 있어요. 나는 옥주동지처럼 과학에 대해선 잘 몰라요. 하지만 서로 의리와 랑심만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건 알아요.

옥주;그게 무슨 소리야?

영란;옥주동지가 자기것을 분석하자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 오빠 이미 정화제를 완성해서 지금 도입하는중이고 연구사동지의것이야 아직 그 성공의 여부조차 모르고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 바쁜 여가에 밤잠과 끼니조차 잊으면서 연구사동지를 위해 바친 오빠의 연구성과를 밀어버리는게 옳은 처사인가요? 차마 그럴줄은 몰랐어요. (달려나간다.)

옥주;영란이! (그를 리해시키려고 따라가다가 그만 넘어진다.)

분임;(분석시료를 떠가지고 나오다가 옥주를 부축해주며)옥주야, 그러게 내가 뭐라구 하던?

춘섭;(나오다가)옥주 어머니, 영란이가 잘못 알고 엇드레질을 한것 같은데 나를 옥하시우.

분임;영란이로서야 그럴수가 있지요.

춘섭;아니웬다. 그 애가 오해한것 같수다. 옥주 연구사, 내 우리 영조한테 다 들었으니 개의치 말고 분석을 해보우. 모두들 기대가 크다오.

옥주;고맙습니다. 난 분석치를 잘 가려볼수 없으니 어머니가 곁에서 확인해주세요.

분임;애두 참...

춘섭;어서...

△옥주, 분임 분석실로 들어간다.

춘섭;분석결과가 좋아야 할텐데. ...

△춘섭 초조한 마음으로 거니는데 영조 나온다.

영조;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춘섭;방금 옥주연구사가 분석에 착수했다. 네 연구안도입은 중지시켰니?

영조;그렇습니다.

춘섭;어서 들어가봐라. 내 영란이한테 말을 좀 해줘야겠다.

영조;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춘섭;아, 아니다. (말끝을 얼버무리며 나간다.)

영조;아버지...

△옥주 손으로 눈을 비비며 분석실에서 맥없이 나온다.

영조;옥주동무, 분석결과가 어떻소?

옥주;(심란한 낯색으로)뜻대로 되지 않는군요. ...

영조;분석결과가 시원치 않은 모양이구만. 옥주! (그와 나란히 의자에 앉으며)너무 상심마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과학자들의 숙명이란말도 있질 않소. 몸도 불편한데 좀 쉬오.

△이때 로동자1 달려나온다.

로동자1;연구사동지, 분석결과를 빨리 알려달랍시다.

영조;알겠소. 좀 기다리라고 전하오.

로동자1;예, 빨리 오십시오. (나간다.)

영조:(손목시계를 보고)옥주!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게겠소. 옥주동문 앞으로 자기의 연구안을 더 심화시키고 지금은 내가 시작한것을 우리 공동이름으로 도입하지요! 그럼 그렇게 상정시키겠소. (나가려고 한다.)

옥주:저, 그 정화제도입은 잠시 미루자요.

영조:(의아해서)뭐요?

옥주:그리고 저한테 시간적여유를 좀 주세요. 다시 한번 해서 꼭 성공시키겠어요, 네?

영조:다시 해보겠다구?

옥주:그래요.

영조:그러니 기어이 동무의 연구안을 도입하는거요?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 제정된 허용수치까지 도달한 정화제를 공동이름으로 도입하는것조차 반대한단 말이지? 이제 보니 동무의 자존심이 훼손당할가봐 그러는것 같은데.

옥주:예?! 사실은 저...

영조:(그의 말을 가로채며)그만하오. 흐려진 수정천을 보고 것처럼 안타까워하던 동무가 어쩌면 그럴수 있소?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기 전에 저 수정천을 먼저 생각하오, 저 수정천을!

옥주:뭐라구요?!

영조:(사철나무를 가리키며) 똑똑히 명심하오!

우리가 심은 이 나무가 사시절푸르싱싱히 자라는건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의 뿌리때문이라는것을... 우리는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성대국이라는 거목을 사심없이 받드는 뿌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요!

△옥주 설음이 북받쳐 얼굴을 싸쥐고 느티나무로 가서 어깨를 떠다.

영조:내가 동무의 진속을 다 알지 못한 청맹과니였소!

△영조 격해서 나가려는데 춘섭, 영란 들어온다.

춘섭:(격해서)웁다. 진짜 청맹과니는 바로 너다!

영조:(놀라며)예?

춘섭:넌 옥주연구사의 실패만 보구 어쩌서 수정천을 티 한점없이 맑게 하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의 진심은 보지 못하는가 말이다.

영조:아버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옥주동문 분석결과 실패한건 사실이구 나의 정화제는 0.1%나 더 높지 않습니까?

춘섭:뭐라구요?

영조:그러니 이미 광산일군들과 합의되었던 나의 연구안을 당장 도입할 결심입니다. (나가려다.)

춘섭:섯거라!

영조:예?(멈춰선다.)

분임:(분석실에서 분석표를 들고 나오다가 영조

에게 다가서며)이사람, 우리 옥주를 너무 탓하지 말라구. 그리고 이 분석표를 좀 보게. (그의 손에 분석표를 쥐어준다.)

영조:(분석표를 받아보다가 자기 눈을 의심하듯)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옥주에게 다가가서) 옥주! 이걸 제정된 허용수치보다 0.3%나 더 높인것이 아닌가?! (옥주의 손목을 와락 잡아 흔들며) 그런데 무엇때문에 도입 못하겠다는건가, 왜?

옥주:(대답없이 돌아서서 수정천을 바라본다.)

△이때 로동자들 나온다.

로동자들:그래,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조:동무들, 옥주동문 제정된 허용수치보다 0.3%나 더 높였습니다. 이걸 우리 학계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완전한 성공입니다.

로동자들:(기쁨에 넘쳐)야, 옥주연구사동지! 축하합니다.

춘섭:수고했네. 그럼 그걸 도입해야지.

로동자들:웁습니다!

옥주:...

춘섭:왜 그러나?

영조:옥주동무는 그 수치조차 도입할수 없답니다.

춘섭:뭐라구요?

로동자들:옥주연구사동지!

춘섭:그것도 만족할수 없다는거겠지?

옥주:그래요. 과학기술적으로 그 허용수치는 인정되어도 아직 그 나머지수치로 해서 앞으로 조금이나마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담보할수 있겠어요.

△모두 충격을 받는다.

옥주:오늘뿐아니라 먼 후날에 가셔도 물은 흘러도 산천어떼가 없는 수정천, 내 조국의 산천초목에 깨끗한 생명수를 줄수 없는 수정천이 되여선 절대로 안돼요. 모두들 잘 아실테지요. 몇해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수백만톤의 광석을 캔것보다 침전지시설공사를 잘하여 강물의 오염을 깨끗이 없앴것이 더 기쁘다고, 한점의 공해도 없을 때 인민의 공장으로 뿔뿔이 부를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오늘이라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광산에 오시여 저 수정천물이 조금이라도 흐려진걸 아신다면 얼마나,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제정된 허용수치라고 해서 그에 만족하거나 위안을 가진다면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모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빈틈이 생길것이 아닌가요!

△모두 감동에 휩싸인다.

영조;(자책감에 잠겨)옥주동무, 잠시나마 허용수치에 만족했던 나를 용서하오. 나는 오늘에야 과학기술적으로는 허용수치가 있지만 조국을 받드는 우리들의 애국심에는 그 어떤 허용수치도 자리잡아선 안된다는것을 가슴깊이 느꼈소.

영란;(옥주에게)아까는 제가, 제가 그만...

옥주;영란이!

영조;저 수정천엔 오직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애국의 마음만이 흘러야 하오. 옥주동무, 우리 지혜를 합쳐 마지막 한점의 불순물까지 말끔히 없애버립시다.

옥주;영조동무. (서로 손을 뜨겁게 마주 잡는다.)

소개

고전소설 《황생의 망상》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실학파의 문학작품을 출판하고 세계에 널리 소개하며 그에 대한 연구도 임같은것도 가질수 있다.》

고전소설 《황생의 망상》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초사이에 활동한 리수광(1563—1628)의 작품으로서 그의 문집인 《지봉류설》에 실려있다. 소설은 이야기체소설로서 짧은 단편양식을 갖추고있는데 실학사상의 선구자인 리수광의 사상적 리념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소설에서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는 력대 봉건통치배들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공리공담의 해독성과 그 후과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봉건통치배들이 교본처럼 여기고있던 유교경전에 대한 맹종맹동이 사람들을 얼마나 희극적인 존재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주제로 제기하고 실학자의 립장에서 형상으로 해명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인 황생으로 말하면 그는 한양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는 양근이라는 산골마을에 살고있었는데 늘 유교경전을 넘볼처럼 외우다나니 거기에 적혀있는 천지개벽이라는 말도 그대로 믿고있었다. 지어 그는 다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날이면 하늘이 무너져내리고 땅이 꺼져내릴것으로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워하고있었다.

하루는 황생이 방에 홀로 앉아 책을 보고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뢰소리가 요란스럽게

쏙쏙;쏙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광산에 꼭 모시고 검덕의 광부들처럼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자구!

모두;드립시다.

△모두 찬란하고 아름다운 노을이 비껴드는 수정천을 바라볼 때 설화가 울린다.

설화;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위대한 심장에 자기들의 박동을 맞춰가는 우리 주인공들의 뜨거운 마음에 반들려 강성대국으로 빛날 내 조국의 모습은 그 얼마나 더 아름다와질것이라!

△음악이 더욱 높이 울리는 속에 막이 내린다.

울리더니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혼비백산한 황생은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왔다.

사위는 캄캄하여 지척도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공포감에 휩싸여 눈을 딱 감고 《이게 바로 천지개벽이라는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천지개벽 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죽어없어졌을것이니 이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아남았구나. 옛날 천황씨는 땅우에 사람이 생겨나기 전에 태어났다고 하여 바로 <천황씨>라고 불렀다고 했으니 인제는 내가 그 천황씨가 되겠구나.》하는 생각이여서 두려움은 일시에 사라지고 줄곧 기쁘기만 하였다.

그는 희색이 만면하여 《옛날 천황씨때는 아직 글자도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글도 잘 외우고 쓸줄 안다. 그러니 나의 위풍은 옛날의 그 천황씨와는 견줄바도 못된다.》라고 자부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했다.

어느덧 무겁게 드리웠던 먹구름이 가셔지고 하늘이 맑게 개이기 시작하였다.

황생은 거연히 서서 성인마냥 그윽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 일인가.

하늘도 그대로이고 땅도 그대로이고 산천도 그대로인데 달라진것은 오직 황생의 집뿐이였다.

산밑에 있어야 할 집은 보이지 않고 흙사태에 묻혔으니 집터도 찾아볼수 없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이웃들이 달려와 뜻밖의 봉변을 당했으니 이 일을 어쨌으면 좋겠느냐고 위로해서야 비로소 자기가 헛꿈을 꾸었다는것을 깨달은 황생은 천지가 요동치기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는가 했더니 알쭉히 자기만 손해를 보았다고 탄식하였다.

황생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그리고 그후부터 어리석은 황생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황씨》라고 조롱하여 부르곤 하였다.

소설은 유교경전에 현혹되었던 황생의 이러한 희극적인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하기 짝이 없는 공리공담을 일삼을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이 가지는 유산적의의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제기하고 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남의것이라면 덮어놓고 숭상하며 따르던 고루한 독경식학풍이 사회적인 병폐로 되고있던 시기에 실학자의 립장에서 시대앞에 경종을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리성을 깨우쳐준것은 이 소설의 중요한 사상에술적성과의 하나로 된다고 할수 있다.

이 소설이 가지는 유산적의의는 다음으로 소설문학창작이 아직 사회적으로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시대를 조명해볼수 있는 우수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단편소설창작의 귀중한 경험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예술적인 면에서 볼 때 소설은 우선 천지개벽이라는 하나의 생활세부를 통하여 고루한 학풍이 지배하던 당시의 시대모습을 집약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사실 임진조국전쟁이후 사회발전의 후진성을 리성적인 안목으로 투시해보면서 그 원인의 하나를 량반문인들의 고루한 학풍에서 찾은 작가에게는 할 말도 많았고 비판할 대상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작가는 갑자기 쏟아져내린 흠사태를 천지개벽으로 착각하고 자기를 천황씨로 자처하며 기뻐하던 주인공이 어리석은 망상을 개탄하

게 되는 하나의 생활세부를 통하여 한 시대를 예술적으로 규정지었으며 사고와 실천의 기준을 현실로 정할데 대한 진보적인 사상을 보여주었다.

단편소설양식에 맞게 탐구된 이러한 구성조직은 예술적감흥을 높이고 주제와 사상을 인상깊게 보여주는데서 효과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형상창조에서 풍자적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비판적경향을 강화한 특성도 가지고있다.

소설에서 작가가 형상의 초점으로 정한것은 다름아닌 황생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유교경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의식이다. 그는 유교경전을 무턱대고 숭배한데로부터 현실의 의의는 애초에 인정하려고조차 하지 않으며 현실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질 목적으로 폭 썩은 경전들을 안고 산간오지에 들어가 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흠사태를 만났으니 줄지에 녹아난것은 황생밖에 없다.

그런데 희극은 어디에 있는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주제에 이제 혹시 경사에서 익힌 천지개벽이 아닌가 하여 자기를 천황씨로 상상해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얼빠진 사고와 현실간에는 이런 심한 차이가 있는것이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사람으로서는 웃지 않을수 없는 희극인것이다.

소설은 어리석은 황생이 추구하는 지향과 현실간의 모순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희화화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져 공리공담을 일삼는자들에게 조소를 보냈으며 사회적병폐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소설은 이러한 유산적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자적주인공인 황생의 성격과 생활을 소설적인 묘사보다 이야기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소설작품으로서의 특성을 원만히 살리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소설은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실학자로서의 진보적인 견해를 집약된 생활세부를 통해 흥미있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17세기 단편소설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윤동일

마지막시험지를 바친다 (외 1 편)

강문혁

빠짐없이 다 쓰고
여백없이 꽉 채운
한장 시험지를 들고
내 무거운 마음 다잡지 못하는데

이 한장 시험지엔
만장의 무게가 실려있어 울렁이는 마음이어!
눈섭마저 무겁던 그밤들이 여기 다 담겨있고
흘러온 땀방울도 그대로 배여있는것 아니던가

그래서 보고 또 보는 시험지
두번다시 쓸수 없는 마지막시험지를 안고
마침내 걸음도 가벼이 교탁앞에 나간다
두손으로 정히 시험지를 바치는 순간
내 눈빛은 스승의 모습을 우러른다

받아달라 스승이여
5년세월 품들여 키워준
이 제자의 어엿한 성장을!
사무치게 정깊은 교정이여, 룡담산이여
벽차게 살아온 청춘의 대학시절을
나는 이 시험지에 그대로 새겼노라!

묻지 말라 나의 대학시절
어떻게 흘렀는가를...
자부하노라 룡담산언덕우에서 다진
그날의 맹세를 지켜온 나날이었다
자나깨나 책과 인연을 맺고 산
내 생활의 정류소엔 안일의 종점이 없었다

우주에 위성을 떠올리고
CNC 로 최첨단의 문을 연 선배들도
이렇게 시험지에
자신의 량심을 수놓지 않았던가
긴말이나 미사려구를 모르고
높은 성적으로 량심을 검증받지 않았던가

묻지 말라 나의 청춘시절
어떻게 빛내였는가를...
새로 펼쳐진 인재의 수림속에서
제일 뽕뽕하고 미끈한 나무 한대를
조국이 찾을 때
그 한대의 나무가 바로 내가 되려고 했고
그대의 부름엔 룡담산의 아들들이 앞서야 했다

정녕 하루같은 5년세월이었다
그렇게 거짓없이 공백없이 흘러온 대학시절은
이 시험지로 증명되는것이다
탐구와 열정의 날과 달은 무수히 흘렀어도
검증의 순간은 길지 않다
시험시간은 90분...
먼 후날 그 누가 나의 대학시절을 묻는다면
꼭같은 점수로 칸칸을 빼곡이 채운
나의 졸업증을 증명서처럼 내보이리라
이 땅 그 어디서도 먼저 찾는 사람
인민이 알고 조국이 두고두고기억하는
인생의 최우등졸업생이 되리라

고백하노라
나는 지금 가슴을 쭉 펴고
떳떳이 마지막시험지를 바친다
나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에
내 삶의 보증서와도 같은
대학시절의 자서전
애국의 자서전을 바친다

허나 내 인생의 시험은 끝나지 않으리
나를 지켜보는 스승들의 눈빛은
내 마음속에서 흐려지지 않으리
조국이 매겨주는 영원한 5점을

내 한생의 시험지에 새기리라!

진달래

-(통일거리에 세워진 리인모동지의 반신상앞에서)-

청춘의 피 더운 젊은이들이
그대곁에 나무를 심습니다
천만가지 꽃중에 연분홍진달래
그대의 심혼이 잎잎에 떨기진
목숨같은 님의 꽃이 웃습니다

옥중의 서른네해
폭압의 쇠사슬에 천겹만겹 묶이였어도
마음속에 고이 피우던 진달래는
님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이어서
부디 그대곁에 피어야 하는것인듯
이처럼 진한 향기 풍겨야 하는것인듯...

가시돌힌 장미의 요염은 싫었기에
리기적인 매화는 인연이 없었기에
소박하고 순결한 진달래에
님에게 바치는 진정 아낌없이 담던
그대의 시 주옥같은 편편들이
여기에 꽃잎으로 고이 엮어진것 아님니까

진달래마음은 곧 그대여서
그대는 통일성전에 몸 담은 투사
옥중의 서른네해 그 지나간 세월
님을 위한 애국의 봄꽃은 순간도 시들지 않았고
남녘의 하늘가에 진한 향기 뿌렸습시다

진달래의 순결 지켜 기어이 안긴
그처럼 사랑하던 님의 품—조국에서도
포화속 종군길에서 붓대를 달리던 그날처럼

쉽없이 걸었습니다 시가의 행군길을...
아버이사랑을 노래에 한껏 담으며
진달래로 활짝 폈습시다 숨지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 봄날 우리의 청춘들은
통일의 봄노래 불러주던 그대
참대의 끈고끈음같이
애국의 길에 한생을 끈게 편
그대처럼 살려고
그대 넋이 숨쉬는 마음의 진달래를 안아보나니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넋을 새겨주고
쇠사슬도 묶지 못할 의지를 버려주며
후손들앞에 영원한 스승의 모습으로 서있는
그대결에 사랑을 다해
그대앞에 의리를 다해
아 꽃으로 영생을 축복하는것입니다

소개

월터 스코트와 장편소설 《아이번호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일정한 역사적사변이나 역사적사건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기 위하여서는 사건을 잘 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월터 스코트(1771—1832)는 영국진보적량만주의 대표자이며 영국근대력사소설의 창시자이다.

스코트는 1771년 8월 스코틀랜드의 에딘바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대학교수의 딸이었다. 당시로서는 아주 교양 있는 훌륭한 가문이었지만 스코트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출신과 가문을 긍지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동경한것은 옛날 의적단의 두령 로빈후드나 리들 존과 같은 인물들이였다. 이것은 스코트가 어려서부터 당시의 보편적가치기준에 불만을 품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는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옛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 책읽기도 좋아하였는데 그가 즐겨 펼친 책들은 고전작품들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전설집과 민요집들이였다.

그는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나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문학서적

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였으며 잠만 있으면 스코틀랜드의 각지를 여행하면서 민족력사와 시가에 대한 자료수집에 몰두하였다. 그가 영국민요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것은 사회에 나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 《스코틀랜드 국경가요집》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일이였다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1796—1813년 기간 스코트는 시인으로서의 창작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시기 작가는 스코틀랜드력사를 소재로 한 서사시들인 《마씨온》, 《호수의 미인》, 《섬의 령주》 등을 발표하였다.

19세기 1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코트는 시창작을 포기하고 산문 특히 소설창작에로 방향을 바꾸었다. 방대한력사를 담기에는 시라는 그릇이 너무도 작았던것이다.

첫 소설인 《웨이벌리》(1814)를 발표한데 이어 《가이 매너링》, 《공양로인》, 《로브 로이》 등 수많은 력사소설을 창작하였다. 이와 함께 《검은 난쟁이》와 《공양로인》을 함께 수록한 단편집 《려인숙주인의 이야기》와 《미들로씨언의 심장》을 첨가한 작품집 《로난로이》, 《몬트로즈전설》을 수록한 작품집 등을 내놓았다.

그의 소설들은 첫 작품이 무명으로 발표된 까닭에 흔히 《웨이벌리》작가라는 이름으로 계속 출

판되었다. 때문에 오늘에 와서도 그의 소설전체를 총칭 《웨이벌리소설》이라고도 한다.

월터 스코트가 차지하는 문학사적지위는 영국 문학에서 처음으로 사실주의적력사소설의 길을 개척하였다는것이다.

스코트의 소설들은 한마디로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살리는데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국문학에서 랑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적특징을 가지고 사회소설의토대를 닦아놓았고 1930~1940년대에 발생하여 크게 발전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토양으로 되었다.

월터 스코트의 소설작품들이 미친 영향은 유럽 나라들의 문학에 어려있다.

스코트의 역사소설들에서 나타나는 랑만주의적 특징은 후날 프랑스의 빅토르 유고와 알렉상드르(아버지) 뒤마와 영국의 스티븐슨과 같은 작가들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며 한편으로 프랑스의 발자크, 로씨야의 뿌슈킨과 같은 사실주의작가들은 스코트의 역사소설에서 나타난 사회비판적경향을 받아들여 자기 나라들에서 역사소설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끌어올렸다.

1820년에 발표한 장편력사소설 《아이번호우》는 12세기말 봉건영국의 시대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하고있다.

장편소설 《아이번호우》에서 작가는 권세욕에 가득찬 존친왕과 그를 추종하는 노르만기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령주들과 기사들의 잔인성과 전횡, 방탕과 략탈로 차있던 중세기 암담한 생활을 반영하였다. 작가는 또한 봉건령주들의 억압을 반대하는 중세기 농민들의 투쟁을 반영하였다.

장편소설 《아이번호우》는 근대적인 역사소설 창작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 역사물주제작품들은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에 흥미가 집중되면서 해당한 시대의 역사가 단순히 미약한 배경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스코트는 이러한 역사에 생기를 부여하였다. 소설에서는 역사적현실을 몇백년전의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는것처럼 생동하게 재현하고있다.

700년전의 역사적환경, 사회계급적모순, 사건, 당대시대의 개성적모습, 그 시대풍속, 민속, 기물등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소재가 심중하게 선택되고 인물형상도 스코트시대의 사회적문제성을 안고있는 지나간 역사의 인물로 생생하게 묘사되고있을뿐아니라 인물형상도 주요인물들뿐아니라 부차적인물들까지도 채치있게 개성적으로 그리고있다. 특히 레베카를 비롯한 녀성들의 형상을 잘하였다.

이렇게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이 비교적 잘 결합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장편소설《아이번호우》는 영국에서 역사소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한정철

가사

나의 발자국

주광남

어디에 새겨졌나 나의 발자국
돌아보아 부끄럼도 후회도 없네
그 얼마를 넘었나 고난의 험한 령
우리 당만 따라왔네 헛디딤없이
아 발자국 내 인생의 자욱이여

어떻게 새겨졌나 나의 발자국
돌아보아 가슴속에 궁지 넘치네
찬바람이 불어도 땀배인 자욱을

조국위해 새겨왔네 헛디딤없이
아 발자국 내 인생의 자욱이여

어떻게 새겨가라 나의 발자국
한생토록 변함없이 나는 걸으리
언제나 곧바로 어디서나 힘있게
장군님만 따르리라 헛디딤없이
아 발자국내 인생의 자욱이여

조선로동당창건 65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대고조시대의 벅찬 숨결이 맥박치고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반영한 국보적인 걸작들,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을 진행하였다.

전국문학축전에 입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소설문학부문

단편소설 《기발》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리명

단편소설 《집》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라순

단편소설 《흰눈세계》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 김혜영

단편소설 《그리운 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정영중

단편소설 《나의 희망 별하늘》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 김경일

단편소설 《우리 노래의 가락》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김홍균

단편소설 《가보》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작가 김혜인

단편소설 《높은 령 저 너머》 조선인민군문에 창작사 작가 김홍익

△시문학부문

장시 《빛나는 세월에 드리는 노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한광춘

장시 《그리운 어머니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만영

시초 《돌격대의 첫날... 백날...》 강원도 원산시 소년회관 작가 김정곤

시초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련시 《영원한 어머니대동강》 평양시 중구역 련

화2동 박철

련시 《나의 당비》 비전향장기수 최태국

련시 《어머니에 대한 생각》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최남순

서정시 《땅과 우리 수령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작가 변홍영

서정시 《수령님세월이 흐른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석주

서정시 《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연희

풍자시 《인간날조품—리명박》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창식

가사 《곧바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철

가사 《만복의 문 열리네》 8.28청년돌격대관리국 국장 김영남

가사 《주체철 제일이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권

가사 《꼭 오실거야》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창작실장 류명호

가사 《비약의 속도 CNC 바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호성

가사 《백두의 산제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경심

가사 《사회주의멋이라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류동호

가사 《하늘의 두 날개》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렬형미

△아동문학부문

단편소설 《저 하늘의 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최치성

단편소설 《비둘기떼 날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민경숙

단편소설 《시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준길

단편소설 《맑은 거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혁민

동화 《뿔사슴과 재빛산양》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황령아

동화 《버들가지》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

회 작가 최복실

동화 《물려받은 재산》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 김명철

동화 《왕자킵도전경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박문

우화 《칠면조의 우정》 조선작가동맹 남포시위원회 작가 문영철

동시 《꽃구경 오세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향희

동시 《끓어지는 할아버지》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홍순모

동요 《수수께끼편지》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성연일

동요 《말꼬리잇기놀이》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

위원회 작가 최성희

△평론문학부문

평론 《소설에는 극성이 있어야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춘택

평론 《정보산업시대와 지식인성격형상의 새로운 경지》 김형권신포사범대학 강좌장 민병철

△고전문학부문

혁명전설 《주석님은 한울님이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우경

사화 《유적발굴기》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리빈

상식

유엔이 새로 정한 문맹자기준

유엔이 새 세기의 문맹자들을 3부류로 나누었다고 한다. 즉 1부류는 글을 모르는 사람, 2부류는 현대사회의 부호(지도, 곡선도 등)들을 식별할 줄 모르는 사람, 3부류는 컴퓨터를 리용하여 학습, 교류,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1부류의 문맹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맹자들이며 2부류와 3부류의 문맹자들은 기능형문맹자로 간주되고있다. 다시말하여 마지막 두부류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지만 과학기술상식측면에서는 문맹자와 같은것이다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2호 (루계 제760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0(2011)년 2월 1일
발 행	주 체 100(2011)년 2월 5일

ㄱ—0679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